

MONO1201429954

951.98509 -14-4

한라산의

바위길

한라산신의 길에 새기다






磨崖銘



| 색인 정오표 |

강면규	138	남수	33	방어사	119
강우백	173	남익상	29	백록담	15, 186, 192
강욱빈	173	남현	29	부시간	51
강인호	124	노인성	202, 203	부수찬	37
강정	163			북벽	61
고경준	136, 141	대사간	37		
고기하	142	도련사숙	114	산방산	53
고평호	114	동벽	23	선유의식	192
공신정	169	들령기	147, 148	성영하	57
군관	125, 135	등영구	148	손경오	78
권섭	123			송구호	125
권세공	143			송원호	125
김계병	173			수운계	173
김규환	79	마애각석	10	순무어사	33
김몽규	108	마애명	10	신기경	29
김봉길	110	망경루	169	신덕함	143
김세완	74	맹인행	57	신호인	48
김수석	141	목인배	140	삼낙수	32
김양수	133, 149	민복기	76	삼락중	98
김윤	152, 155			삼약	104
김재유	51			삼원택	98
김재호	163			삼항지	43
김정	62, 187, 188	박래언	156	삼현택	11, 174
김중보	51	박만화	123	쌍계석문	145
김중운	171	박민현	160		
김중은	29	박선양	135		
김진호	195	박성한	111		
김창언	91	박성협	111	인경운	19, 106
김철	155	박영한	98	안근	123
김치	189, 190	박장복	24	안덕계곡	53
김치원	45	박장호	98	안명약	153
김형수	134	박종민	102	양당	31
김희	49	박종오	151	양세술	25
김희선	195	박진문	123	양응상	166
김희정	195, 198	박창봉	109	양인보	175
		박천형	42	양훈	43
		박치순	91	엄사만	27
		박휴	57	엄선	27
나리포창	107	방선문	93, 96, 131, 145	엄제	27
남만리	170	방암	202	연상루	113

| 색인 정오표 |

영주산	189	이현택	158	탐라록	153
영초	172	이형목	42	탐라빈흥록	48
오위장	135	이형진	194	통덕랑	165
오창두	128	임관주	52		
왜학	104	임태유	126		
용운	116			풍영록	171
우선대	180			피병규	125
윤주당	158	장령	165		
유산기	186	장문명	51		
유석호	29	장봉징	105	한리산	53, 186, 195
윤구연	121	장한규	90	한리산개방평화기념비	80
윤권	57	전최	139	한리산도	186
윤득규	133	정관휘	165	한락증	105
윤명훈	57	정동리	146	한백증	105
윤부연	122	정동원	128	한익상	143
윤상화	164	정은	73	한정운	113
윤식	57	정우식	73	한정유	171
윤제홍	38, 96, 187, 192	정의성	153	한창유	157
윤진오	149	정이환	34	한학수	143
은선동	87	정치복	104	혈망봉	200
의운	116	조관빈	37, 185, 191	흥구서	55, 123
이갑현	161	조영순	37	흥규	136, 141
이경로	47	조우석	45, 88	흥대성	49
이근복	181	조위진	57	흥명서	105
이기은	127	조정철	37, 41	흥범식	51
이기용	195	조태채	37	흥순목	164
이노영	161	조희순	30, 137	흥우순	170
이로하	153	중방	125, 135	흥종우	168
이명계	27			흥준	136
이명준	117			흥준건	57
이양정	42	차운	116	흥중징	115, 126
이영준	162	참동비	137	흥태두	118
아원계	27	책실	125	흥평규	128
아원조	150, 186, 194	천제연	53	화운	116
이윤성	57	최익현	66, 127, 195, 197	환선대	151
이응량	51	최치경	89	황규현	155
이의겸	101			황덕빈	43
이익	64, 187, 188			회헌집	20, 38
이재관	162	탐라계곡	85		
이재호	159				
이정섭	175				
이필술	163				

한라산이 소중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오늘날 서예, 역사, 문화, 미술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이 되고 있는 금석문은 인류가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문자화 되었습니다. 그 중 마애석각문(磨崖石刻文)이라고도 불리는 마애명(磨崖銘)은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銘文)으로서 제주지방에서도 섬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신선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목사(牧使)나 관료, 유배인 또는 제주유림 등에 의하여 한라산을 오르 내리면서 새겨놓은 글씨로서,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역사적 행적을 좇는 향토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백록담, 탐라계곡 일원에서 마애명 현황조사 및 탁본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한라산 등산로의 초입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명승인 제주시 방선문 계곡 일대에서도 옛 선인들의 마애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 한라산연구소에서는 한라산의 인문학과 역사지리학적 접근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한라산 조사연구의 범위를 자연자원 조사에서 역사문화연구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마애명 조사를 기초로 향후 제주도 금석문 연구에도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번에 발간된 '한라산의 마애명'은 백록담 31개소와 탐라계곡 4개소에서 조사한 마애명 탁본자료와 사진 자료,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선문 계곡에서 조사한 마애명 65개소의 사진 자료와 관련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한라산 마애명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한라산이 소중한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품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책자가 나오기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라산 백록담과 가파른 계곡을 누비며 현장조사 및 탁본작업에 참여한 연구원 여러분과 편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장 양영환

한라산의 마애명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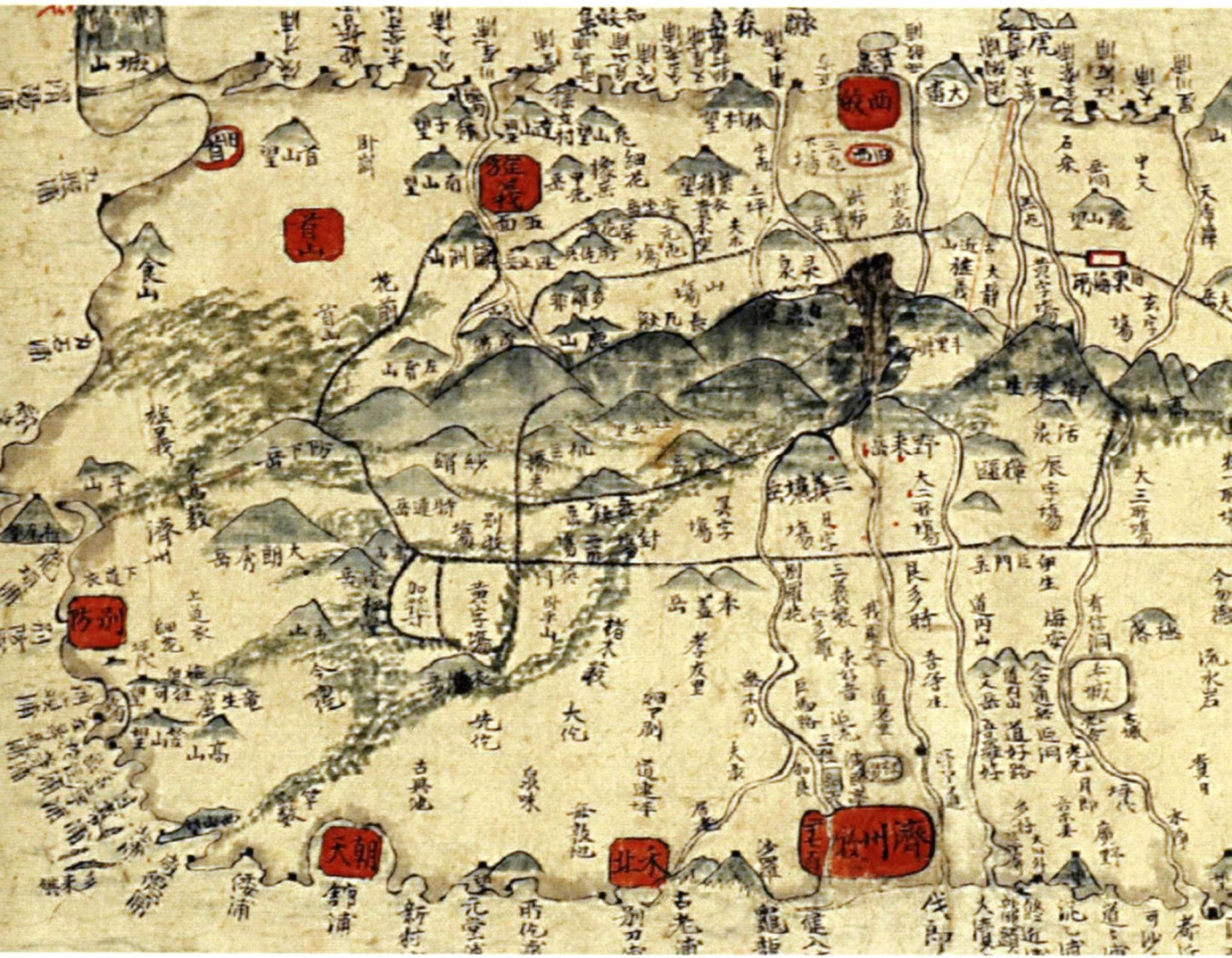
- ☑ 마애명(磨崖銘)이란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마애석각문(磨崖石刻文)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 ☑ 본 한라산의 마애명은 2012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에 판독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현장조사 후 2012년 자료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 ☑ 수록순서는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중심으로 탐라계곡, 방선문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장소별로 구분하여 바위에 새겨진 방향의 차례를 따라 수록 하였다.
- ☑ 마애명은 자연암석에 음각과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으며, 마모정도가 심하거나 글자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면 각각의 사진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 백록담 및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과 사진을 병행하여 제시하였고, 방선문의 마애명은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 ☑ 한자 원문은 우상에서 우하, 좌상에서 좌하순으로 판독하였으며, 인물판독에 있어서는 우측의 인물을 중심으로 좌측의 인물들을 동행인으로 판독하였다.
- ☑ 한자 원문표시는 새겨진 각자대로 세로쓰기로 표기하지 않고 독자가 읽기 쉽게 현재의 어법에 맞춰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 ☑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글자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口’으로 표기하였다.
- ☑ 훼손정도가 미약하여 글자판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 안에 표기하였다.
- ☑ 마애명의 연월일은 갑오경장(1894년) 이전은 음력의 표시임을 밝혀둔다.
-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도용 및 복사를 금함



Contents

01	서론	08
02	한라산의 마애명	12
	2-1. 신선이 머무는 곳, 백록담	18
	2-2. 신선이 숨어 있는 곳, 탐라계곡	82
	2-3. 신선을 만나러 가는 곳, 방선문	92
03	조선시대 한라산 유람과 마애명	184
	3-1. 김정과 이익의 한라산	187
	3-2. 김치의 한라산	189
	3-3.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191
	3-4.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	192
	3-5.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194
	3-6. 최익현과 김희정의 한라산	195
	3-7. 유산자들의 백록담 인식	198
04	맺음말	204
	참고문헌	
	부록	
	색인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에 제작된 지도로 조선 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의 제주도 순력 및 행사장면을 화공 김남길이가 그린 제주 유일의 풍속화첩이다. 제주도의 풍광과 풍속 등을 총 43면에 담고 있다. 그 중에 「한라장축」이 포함되어 있다.



{ 01 }
서론

①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리고 새기는 존재이다.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대자연이 주는 풍요를 기원하던 흔적은 암각화로 남아있다. 원시를 자연과의 투쟁의 시간으로 인식하던 혹은 원시의 풍요로 기억하던시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무엇인가를 기렸고 무엇인가를 새겼다.

투쟁의 대상이 대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인간들은 청동기와 철기에 자신들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투쟁과 승리에 관한 또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겼다. 거북의 등껍질 혹은 청동기에 남아있는 황하유역의 기록들과 화병이나 돌에 새겨진 그리스의 기록들, 우리는 그것들을 문명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신라인들은 불교이념을 자신들의 시공간에다 기록했다. 경주의 남산, 완벽하게 지상에 구현되었던 불국도를 보라. 완전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인들의 불교미술을 보라. 이 역시 신라나 고려라는 각각의 공간에 기리거나 새겼던 흔적들이며 문명인 것이다. 또한 이런 행위에는 당시의 이념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원시인들에게는 풍요가 그들의 이념이었으며, 고대에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신라와 고려에는 불교가 그들의 이념이었듯이 조선이 들어서자 성리학적 이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성리학적 가치로 무장된 지배계층과 유배인들에 의해 중앙의 이념이 제주로 이입됐고, 관청을 통해 각 마을로, 개인들의 사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념의 전파자들은 그들 방식의 풍류의식을 제주라는 공간, 이를테면 용연과 방선문 그리고 한라산 등 명승고적을 따라 마애각석(磨崖刻石)을 새겼다.

마애각석(磨崖刻石)이란 절벽이나 단애를 갈아서 그 위에 글을 새긴다는 뜻이다. 그 중 마애석각문(磨崖石刻文)이라고도 불리는 마애명(磨崖銘)은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특정하여 지칭하며, 제주지방에서도 섬전체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예로부터 신선산(神仙山)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漢拏山) 일대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목사(牧使)나 관료, 유배인 또는 제주유림 등에 의하여 한라산을 등람(登覽)하면서 새겨놓은 산천경승(山川景勝)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의식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역사적 행적을 좇는 향토사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그 사료적(史料的) 가치는 아주 높다.

이번 한라산의 옛선인들의 마애명 조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명승(名勝)으로 지정된 백록담(白鹿潭), 탐라계곡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한라산 등산로

초입(初入)의 하나인 제주시 방선문 일대 마애명의 현지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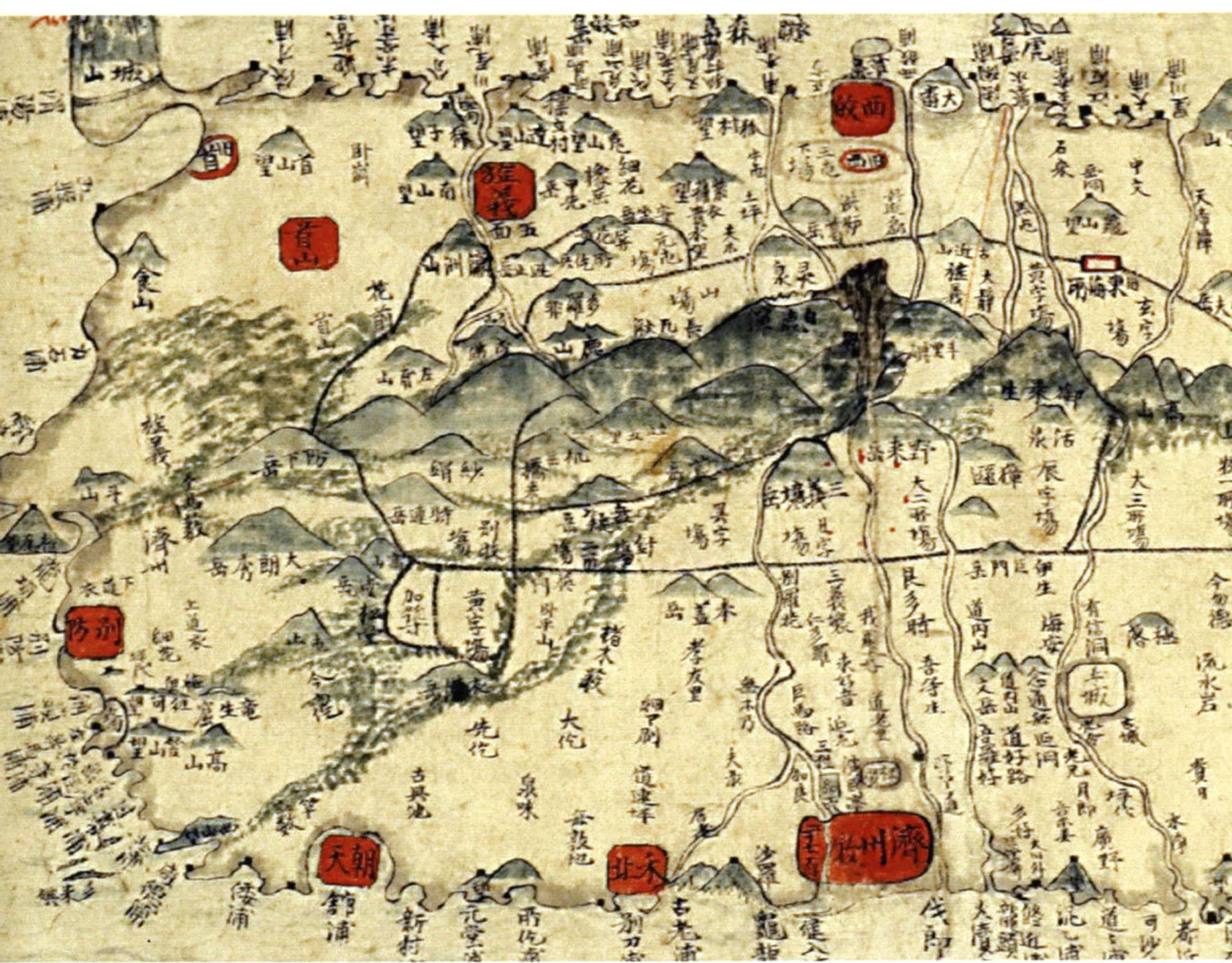
본 조사의 내용 중에는 다른 조사자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자료도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시 추가로 발견된 다수의 마애명과 기존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한라산내의 마애명 목록으로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현지조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년간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한라산 백록담분화구와 탐라계곡, 방선문계곡 등 총 3구역에서 실시되었다. 백록담 현장조사는 약 20여차례 실시하였고, 탐라계곡 현장조사 5회, 방선문계곡 조사 약 10여차례를 실시하여 백록담분화구내에서 31건, 탐라계곡 4건, 방선문계곡에서 65건 등 총 100건의 마애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에 대하여는 전량 사진촬영 및 탁본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방선문내의 마애명은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사진촬영만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기존 조사된 자료와 상당부분 추가로 발견된 건수를 포함하고 있다.

마애명 원문은 독자가 읽기 쉽게 현재의 어법에 맞게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와 띄어쓰기로 제시하였으며, 원문을 따로 해석하거나 원문의 음을 한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관련 인물의 행적 위주로 해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제주를 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횡으로 겹겹이 आरो새겨진 무늬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낀 돌이끼들을 들어내며 차근차근 읽어가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글은 제주의 고유한 무늬를 읽어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02

한라산의 마애명

- 2-1. 신선이 머무는 곳, 백록담
- 2-2. 신선이 숨어 있는 곳, 탐라계곡
- 2-3. 신선을 만나러 가는 곳, 방선문

② 한라산의 마애명

언어가 인식에 선행할 수도 있지만 인식이 언어에 선행하기도 한다. 이름의 기능이란 일차적으로 구분, 즉 분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는 어떤 새로운 존재가 그들의 인식 속으로 낯설게 다가왔다는 의미이며, 새롭게 들어온 대상을 기존의 존재와 분리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사는 땅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는 그 행위에 앞서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가령 '제주' 라는 명사가 가능하려면 우리 말고 다른 존재들, 즉 제주가 아닌 다른 공간이 우리들의 인식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해진다. 제주의 옛 이름인 탐라가 그렇고, 한라라는 이름이 그렇다.

이름은 언제나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네들의 필요에 의해 부여되기 마련이다. 결국 탐라라는 이름은 제주가 최초로 다른 공간들의 역사에 편입되어지는 과정에서 타자들에 의해 이름 지워졌다는 것이다. 제주는 다시 같은 과정과 방식으로 고려라는 타자에 의해 큰물, 즉 바다를 건넌다는 뜻의 제(濟), 큰 고을을 뜻하는 주(州)가 합쳐진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탐라에서 제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주가 고려의 행정 구역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찬가지로 애초에 산이 있었다. 섬이 산이었고 산이 섬인 땅,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은 이 산을 구체적인 이름 없이 그저 산이라고만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산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행위는 이 산과 저 산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제주의 산은 유일무이, 비교대상이 있지 않아서 따로 이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만치 높은'이라는 뜻을 가진 '한라(漢拏)'라는 현재의 이름을 부여한 것은 제주사람들이 아니라, 제주 바깥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고려 충열왕 무렵, 1275년에서 1308년 사이에 제주로 들어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던 해일의 시에 '한라'라는 이름이 보이지만,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은 「고려사지」 공민왕 18년 기록에 보이며 같은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인다.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였던 한라산은 이제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지배계층들에 의해 국가에 소용되는 말들을 키우는 목장이 되고, 자신들의 정서적 감흥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남쪽하늘 낮게 뻗다가 금방 저버리는 남극노인성이란 별은 단순한 별자리 이상이다. 남극노인성을 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병장수에 대한 약속이며, 국가적으로는 태평성대의 증거였다. 그래서 제주로 부임해 온 관리나 유배객들은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남극노인성이 가장 잘 보인다는 한라산을 기어코 오르코자 했던 것이다. 힘들게 산을 올라 돌을 갈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시를 적

어두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한라산에는 또 하나의 무늬가 새겨지게 된 것이다.

책실이라는 이름의 자제들과 수행군관들, 심지어 악공까지 동원한 떠들썩한 등반이 있었는가 싶으면, 유배가 풀리자마자 바로 기록할만한 일행도 없이 쓸쓸이 한라산에 오른 유배객들도 있다. 또 유배인에서 방어사겸제주목사로 바뀐 신분으로 산에 오른 이도 있으며, 행적미상의 인물들이 산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돌에 글을 새겨 마애명을 남기고 있다.

백록담 동벽과 북벽 언저리에 새겨진 마애명들에서 그들의 이름을 읽고 시를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이제는 한라산의 무늬가 돼 버린 과거의 인물들과 조우한 것이다. 칼바람이 휘감아 도는 백록담 동벽에서 팡팡 언 손을 녹여가며 진행된 탁본작업은 말 그대로 하늘이 허락하는 시간에만 가능했던 작업이었다. 또한 떠낸 탁본을 책상에 펼쳐놓고 둘러앉아 그 인물을 역사기록에서 찾아내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각종 기록에서 그 사람의 기록을 찾아내면 마치 옛사람을 직접 대면한 듯 반가웠다. 이 책은 그런 험난하고도 기쁨이 넘치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한라산의 마애명은 모두 3구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즉, 한라산 백록담과 탐라계곡, 방선문일대의 마애명과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으로 소개하여 관련 인물의 행적 위주로 수록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미비된 자료나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자료 등을 통하여 보완하거나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조사지 개황

본 조사의 주요 조사지인 한라산 백록담과 탐라계곡, 방선문 일원의 조사지 개황은 아래와 같다.



조사기간을 살펴보면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해발 270m인 제주시 방선문 주변의 마애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한천의 상류인 해발 615m 이상의 한라산 탐라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부터 10월까지 해발 1,950m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백록담과 탐라계곡에서 탁본작업을 실시하였고, 관련 인물의 행적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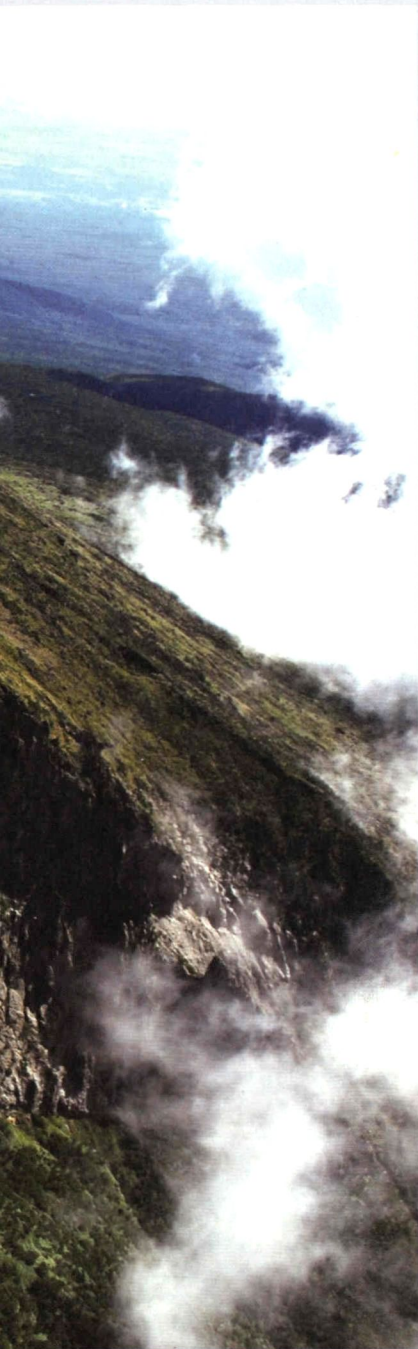
● 조사방법

한라산의 마애명 현황 조사는 제주시에서 출발하는 조선시대 한라산 주요 등산로였던 한라산 북쪽 등산로를 주요 조사구로 선정하여 제주시 방선문 일대를 포함하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자료의 검토를 거쳐 백록담 분화구를 중심으로 탐라계곡과 방선문의 현장조사 위주로 현지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제주시 방선문 일원에서 시작되는 한천 상류를 따라 탐라계곡과 백록담 일원까지 현지답사를 수행하였으며, GPS상 위치조사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였고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작업을 실시하면서 미비된 자료의 추가조사를 병행하였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라산 마애명 조사의 긴 여정길





2-1

신선이 머무는 곳, 백록담

고도가 높아 은하수를 끌어당길만 하다는 의미의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두무악(頭無岳), 꼭대기가 둥글어서 원산(圓山)이라고 알려졌다. 정상부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라산은 인간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김치, 이해조, 조관빈, 최익현과 김희정 등의 기록은 한라산 백록담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은 백록담의 외형상 모습 뿐만 아니라 신선과 백록을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여 티끌기가 전혀 없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백록담은 참으로 천부(天府)의 성곽이었다.

백록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23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210,230㎡에 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관빈(趙觀彬)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 회헌집(悔軒集) 권15에 수록

기(記)란 건축이나 유람 등의 사연을 적어두는 글의 한 종류인데, 개인적으로 핵심은 날 끝처럼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한라산을 유람하고 난 뒤 소감을 적은 사대부들의 글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성리학적 가치가 너무 깊게 배여있어서 대체적으로 감흥이 떨어진다. 그러나 조관빈의 글은 문장이 평이하면서도 유려하여 읽는 맛이 뛰어나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명(名)과 실(實), 이름과 실제라는 주제로 한라산에 대한 소감을 날카롭게 관통시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라산에 관한 기(記)들 중, 단연 백미(白眉)라고 여겨 번역하여 심는다.

어렸을 적부터 이미 신선의 산이라 불려지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고 들었다. 일찍이 그곳을 한번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큰 바다가 그 곳 사이에 있고 험하고 또 멀었다. 늘상 산에 끌리면서도 마치 하늘에 있는 듯 높아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해년 겨울, 나는 대사헌으로서 간언하는 일로 임금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대정현에 유배를 당해 오게 되었으니 이곳이 바로 내가 평소애 그리워하던 탐라 땅이다. 설날 그믐날에 바다를 건너다가 배 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단지 하나의 둥그런 산이 검은 빛으로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가만히 스스로 되뇌어보길 “이 산이 바로 영주산이라는 것인데, 삼신산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내가 듣던 것만큼 산세가 대단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곳으로 오게 된 것 역시 인연이니 나의 오래된 소원이 풀릴 수도 있으리라. 마음 같아선 해남에서 배에 오를 때엔 도착하자마자 바로 산에 오르고 싶었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이 ‘한라산은 사월 이전에는 추워서 산에 오를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에 생각을 접어버렸다. 그러던 중에 마침 날씨가 따뜻한 늦은 봄에 출륙의 명이 내려오자 비로소 그 달 28일로 날을 잡고 여러 사람과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장차 산을 향해 떠나려 하는데 이때부터 밤비가 와서 3일 동안 그치지 않았다. 산행을 중단하니 우울감이 밀려들었다.

4월 초하룻날 새벽, 하늘이 비로소 화창하게 개자 나는 바로 지체없이 가마를 재촉해 산 아래에까지 이르렀는데 홀연히 음산한 안개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낙비가 내리려고 하였다. 동행자 모두 내게 말을 돌려 돌아가길 권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타이르기를 “비록 형악의 구름일지라도 어찌 기도발로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말에 의지해 산길을 올라가서 산중에서 아침을 장만했다. 잠시 앉아 있는데 산속이 점점 쾌청해졌고 검었던 안개가 흰 구름이 되어 산 아래 낮게 걸쳐 있었다. 망망한 바다가 온통 흰 비단을 깐 듯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나도 정신이 맑아져서 한 점의 잡스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견여를 재촉하여 굽이진 산길을 나아가게 하였다. 그렇게 줄지어 계속 위로 올라가다보니 산길은 이전처럼 그다지 가파르거나 험하지 않았고 숲이 머리위로 둥그렇게 우거져 해를 가릴 정도였다. 조릿대가 땅에 가득 널려있었고 그 사이사이 철쭉과 진달래꽃이 길 양 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수 십 여리를 더 가니 때가 바야흐로 대낮이 되어 구름이 걷혔다. 깎아지른 듯 서있는 돌 봉우리를 올려다보니 산세가 마치 하늘을 타넘을 듯 했다. 비로소 견여를 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정상상을 향해 올라갔다. 향나무가 서로 엮혀 숲이 울창한 것이 마치 그림 같았다. 언 눈이 여전히 쌓여있고 쌀쌀한 것이 마치 겨울과 같았다. 정

상에 도착하니 시종들이 앞 봉우리를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혈망봉이라고 일러줬다. 그 봉오리에는 구멍이 나 있고 그걸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삐죽삐죽한 봉오리들이 층층이 사방을 에워싸고 그 가운데에 맑은 못이 있어서 깊이가 몇 길이나 된다고 하니, 바로 여기가 백록담이다. 속세에 전하는 말이 '신선이 백록을 타고서 이 못에서 노닐었다' 고 한다. 갑자기 백록이 백록담 가를 따라서 지나갔으니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때마침 일기가 아주 맑고 깨끗하였다. 바다는 광활하여 하늘과 바다가 서로 접해 구분치 못하겠고 넓어서 어디가 끝 가는데 인지를 모르겠다. 동남쪽이 바로 중국 영파, 유구, 남만, 일본이고 서북쪽이 바로 중국의 항주, 소주, 우리나라 동쪽의 신라, 백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겠다. 다만 시력이 따라주지 못함이 한스럽다. 마라, 지귀, 무현, 송악, 산방, 성산, 백량, 청산, 경두, 추자, 사서, 비양, 화탈 등 멀고 가까운 여러 산과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이 아득한데도 또렷하게 떠있다. 다만 하늘은 더욱 유장하게 느껴지고 바다 역시 더욱 광활함을 깨닫자 순간 아득해지면서 몸이 하늘에 반쯤 봉 떠 있는 것만 같았고 표현히 멀리 들어 올려 진 느낌이 엄습하였다. 오호라! 나는 이제야 말로 이 산이 천하의 명산임을, 그리고 이름난 것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실상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제주사람 중 나를 따라온 자들 모두가 나에게 축하한다며 '여로부터 이 산에 올라 유람하는 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대개는 비바람과 운무를 만나 낭패를 면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서 일찍이 이렇게 쾌청한 풍경을 시원히 만나보지 못했으니, 오늘 같은 유람이야 말로 신선의 경지에 있지 않은 자라면 어찌 이런 경치를 볼 수가 있겠는가?' 라고들 했다. 나 역시 스스로 산과 바다를 감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다. 만약 대간의 상소로 탐라로 유배되지 않았다면, 비록 내가 이 신선들의 땅을 방문하려 해도 아마 쉽게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 오늘의 유람은 어찌 하늘이 빌려준 것이 아니겠으며 또한 우리 임금의 내려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산을 내려온 뒤에도 해는 아직 저물지 않았다. 그 이튿날 기(記)를 지었다.

④ 遊漢拏山記

余自少時 已聞漢拏在耽羅 以仙山稱 嘗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且遠 居常引領 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也 辛亥冬 余以都憲 言事忤旨 被謫大靜 卽耽羅地也 歲除日渡海 舟上望見漢拏 則惟一圓山 黑立而已 竊自語曰 此山乃所謂瀛洲 而居三神之一 豈名與實之不相副耶 然此來有緣 宿願可諧也 解纜便欲上山 居人云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時暮春暖 始以廿八日 約同行諸人 將向山去 自是夜雨 三日不止 停行 殊覺泄鬱 四月朔日曉 天色始霽 余乃不時促駕到山下 則陰霧忽作 驟雨欲至 同行皆勸余回轡 余謂諸人曰 安知衡嶽之雲 不開於默禱之餘耶 遂信馬而上 炊飯中山 坐移時 山內漸晴 黑霧變成白雲 低在山下 茫茫海面 鋪盡一色白錦 已令神思清適 不復一點塵想 飯訖 促肩輿轉進 地邈向上 不甚陡峻 穹林礙日 苦竹滿地 間有躑躅杜鵑 爛開左右 行可數十餘里 日方午 雲盡捲 仰見石峰戍削 勢欲凌空 余遂捨輿取筇 須人推挽而登 香木交縈 蔚然如畫 凍雪猶積 凜然如冬 及到絕頂 從者指前峰曰 此是穴望峰 峰有竅可通望⁹故名焉 層巒四圍 中有潭綠淨 深可數丈 卽白鹿潭也 俗傳神仙騎白鹿 遊於此潭云 俄而有白鹿 從潭邊過 誠一奇事也 于時天氣澄清 海色莽濶 上下相涵 浩無涯畔 東南則寧波 琉球 南蠻 日本 西北則中國之杭 蘇 我東之羅 濟 知在指點 而只恨目力不及 如摩羅 知歸 巫峽 松嶽 山房 城山 白梁 青山 鯨頭 楸子 斜巖 飛揚 火脫等遠近諸山 大小諸島 歷歷在眺望中 但覺天益長 海益闊 身搖搖如在半空 使人有飄然遐舉意 余於是乎始信此山之爲天下名山 而有名者必有實也 濟人之從余者 皆贊余曰 自古遊人之登此山者何限 而每值風雨雲霧 多不免狼狽而歸 未嘗有快靚晴景 如今日之遊也 苟非有仙分者 何能得此也 余亦自念山海之賞 是余平昔之願 而使余無霜臺之疏 耽羅之謫 則雖欲訪此仙區 恐不可易得矣 噫 今日之遊 豈非天借 亦豈非吾王之賜耶 下山 日猶未昏 其翌日 爲之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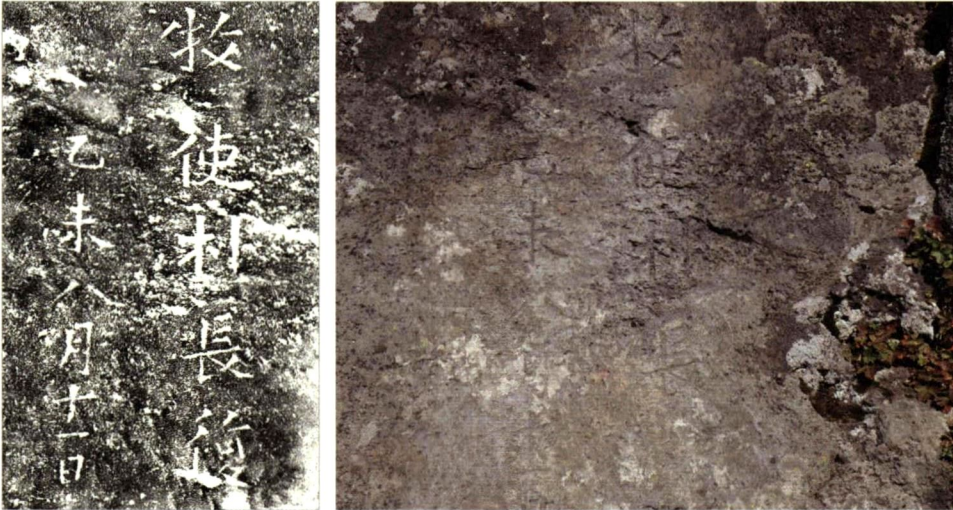
{ 백록담 동벽 }

한라산 백록담내에서는 마애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새겨져 있는 곳이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록담 동벽의 단단한 바위위에 올라서면 멀리 태평양을 내려다보며 호연지기를 누렸을 옛 선인들의 기개가 느껴지는 곳이다.

- 01 목사 박장복
- 02 양세술
- 03 엄제 일행
- 04 남익상 일행
- 05 조희순
- 06 양당
- 07 심낙수와 남수
- 08 정이환
- 09 조관빈과 조영순
- 10 조정철
- 11 목사 이양정 일행
- 12 황덕빈 일행
- 13 목사 조우석 일행
- 14 이경로
- 15 신호인
- 16 김희 일행
- 17 김종보 일행
- 18 임관주
- 19 홍구서
- 20 윤식 일행
- 21 목사 조위진일행

01

• 목사 박장복



牧使 朴長復 乙未 八月 十一日 탁본 15cm x 42cm(글자 6cm x 6cm)

인물

박장복(朴長復, 1778~?)은 조선 순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자는 내경(來卿)이고,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834년(순조 34) 7월 제주에 도임하고 1836년(乙未年) 3월에 일처리를 잘못된 일로 인하여 파직 되어 떠났다. 1835년(헌종 1)에 향사당(鄕社堂)을 중수하였고 대정 향교를 중수하였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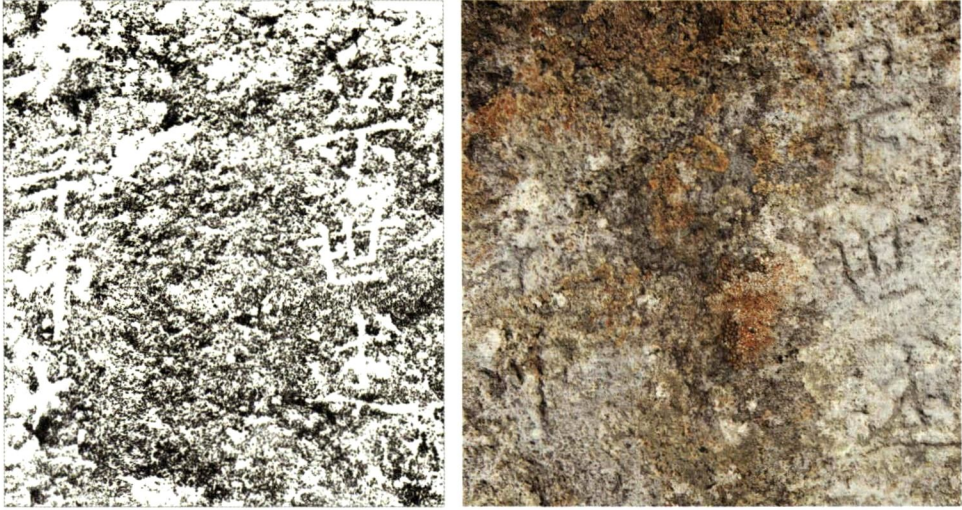
박장복은 승지로부터 시작해서 대사간까지 올랐던 인물인데,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도정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제주목마패 위조범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파직되었다는 승정원 기록이 보인다.

이재학이 비변사의 말로 게하여 말하길 “형조의 계목을 보니 제주목 마패위조범을 먼저 결안을 받고 바로 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법식에 위반되었으니, 해당 목사 박장복을 파직의 법을 시행할 일입니다” 이에 왕이 윤허하였다.

李在鶴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刑曹啓目 以濟州牧馬牌僞造罪人先捧結案 直爲修啓 有違法式 該牧使朴長復 施以罷職之典事 允下矣

제주에서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마패 위조범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1836년(乙未年) 5월 23일에 파직이 어전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그해 8월 11일 본인은 개인적으로 한라산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영록」에 의하면 이익태도 파직 후 산에 올랐으며 다른 예도 있다.

02 양세술



梁世述 辛卯 탁본 20cm x 20cm(글자 6cm x 6cm)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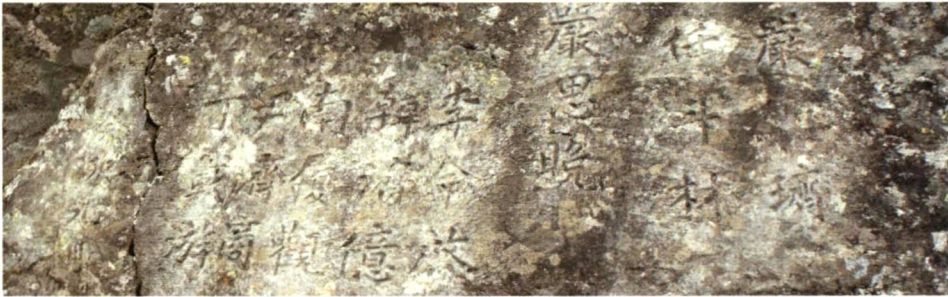
양세술(梁世述)이 한라산에 등정한 해는 1771년인데, 승정원일기 1793년(정조 17) 5월 19일(庚戌) 기록에 양세술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가까운 비장을 파견하여 진출하는 일을 같이 감독하게 하는데, 각 동과 각 섬을 3소로 나누어 군관전낭청 정익주와 장교전주부 김인택으로 하여금 1소 동부 26동을 담당하게 하고, 군관전낭청 김언택과 장교전주부 박시엽으로 하여금 2소 서부 21동을 담당하게 하고 군관출신 양세술과 장교전별장 엄덕승으로 하여금 3소 한산섬 등 삼도 16동을 담당하게 하여 작년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의 기민들의 수를 차례대로 파악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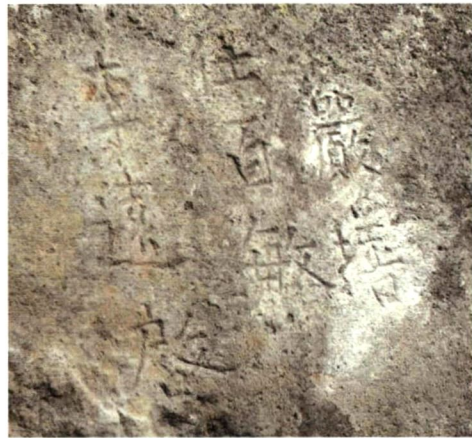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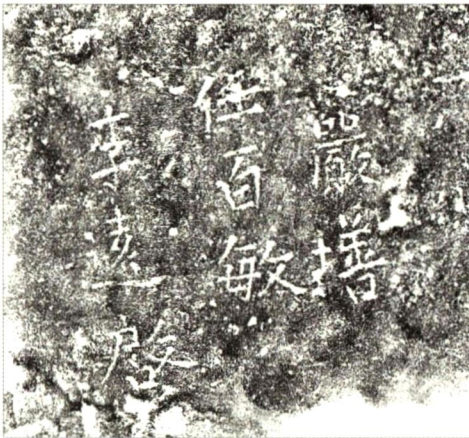
遣親裨 眼同監賑 各洞各島則分爲三所 使軍官前郎廳鄭翊周 將校前主簿金仁澤 掌一所東部二十六洞 軍官前郎廳金彦澤 將校前主簿朴時燁 掌二所西部二十一洞 軍官出身梁世述 將校前別將廉德升 掌三所閑山等三島十六洞 而自昨年九月 十二月至 次次抄飢

그렇다면 양세술은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한 인물로 보이고, 여기 제명된 대로 신묘(辛卯)년에 한라산에 올랐다면 1771년이 된다. 이 때 제주목사가 양세현이었는데 혹시 목사 양세현의 아들 양훈의 제명이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어 양세현을 따라온 군관이 아닌가 여겨진다. 양훈에 대한 설명은 뒤에 수록되어 있다.

03. 엄제 일행



嚴璿 任斗材 嚴思晚 李命啓 韓濟億 南履觀 尹濟商 丁載游
 癸卯 九月 日 탁본 95cm x 44cm(글자 8cm x 8cm)



嚴璿 任百敏 李遠啓 탁본 95cm x 44cm(글자 8cm x 8cm)

인물

엄사만(嚴思晩, 1729~?)은 조선 정조 때 제주 목사이다. 자는 과회(寡悔), 본관은 영월(寧越)이다. 1783년(정조 7) 4월에 제주 목사로 제수 되어 동년 6월 도임하고 1785년 5월에 떠났다. 1785년 제주 대기근에 도민을 잘 구제하여 가선대부로 특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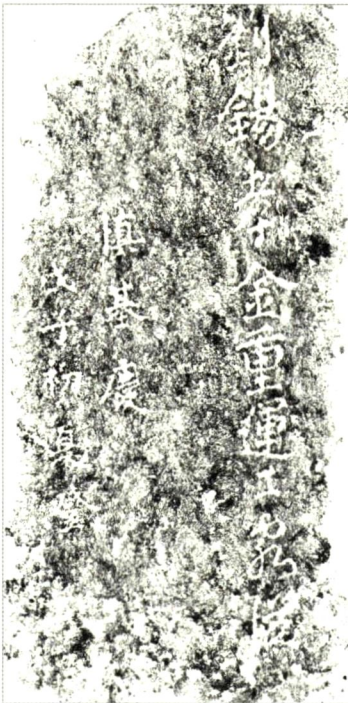
해설

엄사만 목사 보다 앞쪽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제(嚴濟)와 엄선(嚴繕)은 엄사만의 부친인 엄우(嚴隅)의 형제로 여겨지며, 이명계(李命啓)와 이원계(李遠啓)도 형제로 추정된다. 이 당시 제주로 부임하는 목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심복이나 가족이나 친척 한두 명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책실(冊室)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군관이나 막빈의 형태로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 도서지역이나 변방인 경우는 보통 부인이나 보살펴 줄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위 인물들 중 이명계는 문장이 좋아서 일본에 통신사를 따라 서기(書記)로 따라간 적도 있고 박지원, 이서구, 박제가, 백동수, 이덕무 등과 어울리던 백담시단의 좌장격인 인물이었다. 과거응시를 꺼리던 시단 분위기와는 달리 이서구와 함께 과거합격을 하고 지방수령으로 출사를 한 인물인데, 시기적으로 보아 아마 같은 인물이 아닌가 짐작한다. 왜냐하면 지방 목사가 무인인 경우 장계의 형식이나 내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제주로 부임할 때 문장이 좋은 사람을 막료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04 • 남익상 일행



南益祥 南峴 戊子四月 탁본 26cm x 30cm(글자 7cm x 7cm)



劉錫孝 金重運 二客從
慎基慶 戊子初夏登 탁본 26cm x 30cm(글자 7cm x 7cm)

인물

남익상(南益祥, 생몰년 미상)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1767년(영조 43) 2월 제주에 도입하고 1769년 7월에 청곡(淸穀)의 수량을 남발한 관계로 파직 되었다. 재임 중 비장청(裨將廳)을 건립하고 남북수구(南北水口)를 구축하였다.

해설

목사인 남익상과 일가붙이로 보이는 남현(南峴)이라는 인물의 제명이 있는데, 그 옆으로 제주판관인 신기경(愼基慶)의 제명이 보인다. 신기경(1720~1797)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판관이었는데 1766년(영조 42) 8월 제주 판관으로 도입하고 1769년 2월에 떠난 인물이다. 목사 남익상과 판관 신기경은 동시기에 제주에 재임하였지만 남익상과 남현은 무자(戊子)년 4월이라고 기록했고, 신기경은 무자년 초하(初夏)로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는 같지만 다른날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유석효(劉錫孝)와 김중은(金重運) 두 사람도 이 때 손님의 자격으로 동행한 듯 보인다[二客從].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말 그대로 육지부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손님일 수도 있고, 육지부의 경우처럼 비장이나 막빈 등을 객(客)이라고도 하는 경우로 보아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05 • 목사 조희순



趙義純 탁본 18cm x 27cm(글자 8cm x 8cm)

인물

조희순(趙義純, 생몰년 미상)은 조선말기의 무신이다. 자는 덕일(德一)이고 호는 학해당(學海堂)이다. 고종 때의 제주 목사. 1868년 10월 이후선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872년 5월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재임 중인 1869년 여름의 가뭄과 가을의 흉수로 흉년이 되어 아사자가 많이 생겨 구휼에 힘썼다. 향교를 중수하고 군기를 수리하며 화약을 제조 하도록 하였다. 조희순 목사의 마애명은 현재 방선문에도 남아 있다.

해설

백록담에는 이름만 제명되어져 있지만 방선문에는 시와 날짜가 제명되어 있다. 무신이면서도 시를 제영한 것이 이채롭다.

06 양당



梁塘 탁본 6cm x 14cm(글자 6cm x 6cm)

해설

양당(梁塘)은 행적미상이다. 제명된 이름의 마모상태가 심한 편이지만, 글씨가 제법 고풍스런 맛이 있다. 제주인으로 양씨 외자 이름들은 승정원일기 등을 검색해보면 17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당시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본다.

07 • 심낙수와 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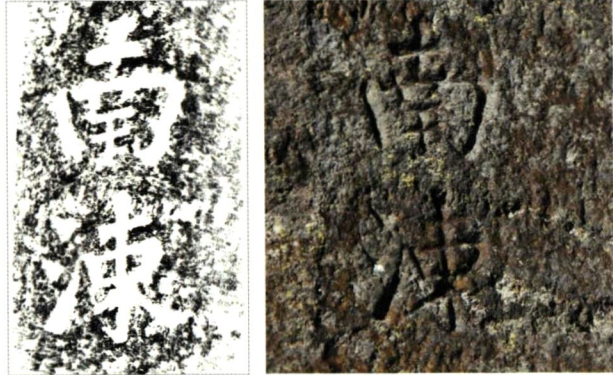
恩坡退士 沈樂洙 以巡撫御史來過 甲寅春 탁본 34cm x 77cm(글자 10cm x 10cm)

인물① 심낙수

심낙수(沈樂洙, 1739~1799)는 본관이 청송(靑松)이고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일환재(一丸齋) 혹은 은파(恩坡)이다. 할아버지는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1593~1662), 아버지는 심형운(沈亨雲), 어머니는 승지 김고(金槨)의 딸이다. 1793년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제주에 파견되었다가 1794년(정조 18) 3월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이철운(李喆運)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1794년 10월 유구(琉球)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하였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잘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 떠났다. 1794년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로 하급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인 시취(試取)를 실시하여 문과에 7명, 무과에 3명 등 10명을 합격시켰다. 이 때의 시제(詩題)가 '한라산(漢拏山)' 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가 한라산에서 받은 인상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다. 이때 시취되었던 인물의 글은 「탐라빈홍록(耽羅賓興錄)」의 시권(詩卷)에서 보인다. 1794년 의사(義士) 오홍태, 호자 박계곤, 정부 박씨, 충비(忠婢) 고소락의 가문을 정표(旌表)하고 정녀(貞女)인 사비(私婢) 옥매의 집안에 요역을 면제해주었다. 또한 제주 유생들의 시취 내용과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는 「탐라빈홍록」을 간행하였으며, 대일관을 건립하고 지은 「대일관기(大日觀記)」가 전한다. 시문집인 「은파산고(恩坡散稿)」가 있다.

해설

등정한 날이 갑인춘(甲寅春)으로 되어 있어 순무어사(巡撫御史) 일을 마감할 시점에 등장하고 뒤의 3월에 제주목사로 제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명 바로 뒷부분에 당시 정의현감 남수(南涑)의 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南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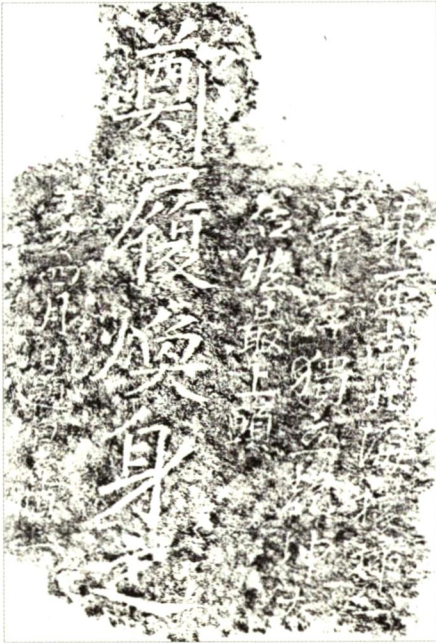
탁본 10cm x 27cm
(글자 10cm x 10cm)

인물② 남수

남수(南涑, 1751~?)는 자는 이청(而淸),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1793년 12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재임 당시에 제주목사는 심낙수(沈樂洙)이며, 제주관관은 홍이조(洪履祚)였다. 갑인년(1794)의 대기근 때 남수현감의 건의로 다음 해부터 내탕금(內帑金) 10만5천 냥을 보내어 관찰사로부터 하여금 쌀로 바꿔서 진휼하게 되었다.



심낙수가 어사로 부임해 왔을 당시 남수는 정의현감으로 재직 중이었다. 백록담 동벽의 심낙수와 남수의 마애명이 새겨진 바위는 둘다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심낙수 마애명이 앞에 있으며 그 뒤에 남수의 이름이 조그맣게 새겨져 있어 제주어사를 뒤에서 호위하고 있는 충성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東西南北海 撐插一峯浮 獨立乾坤大 居然最上頭
鄭履煥 身之 丁亥四月日 題白鹿頂

탁본 45cm x 85cm(글자 15cm x 15cm, 7cm x 7cm, 5cm x 5cm)

인물

정이환(鄭履煥, 1731년~?)은 자는 신지(身之)이고,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1757년(영조 33) 춘당대정시문과(春塘臺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3년 회령부에 정배의 왕명이 내려다가 환수되었고, 1766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으로 제주도로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76년 부응교가 되고 곧 동부승지가 되었는데, 왕세손(王世孫: 뒤의 정조)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홍봉한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해 정조가 즉위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에 대한 문책으로 남인 한성좌윤 김구주(金龜柱)를 흑산도로 정배하였는데, 이 때 그도 예문관제학에서 쫓겨났다. 이 때 왕은 많은 죄인을 사면하면서도 그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김치인(金致仁)이 다시 영의정이 되자 치사(致仕)하였던 정이환은 특별히 충주 목사를 제수받았고, 몇 년 뒤 관직을 떠나 죽었다.

해설

정이환은 1766년에 제주도에 정배되었다가 유제가 풀린 이듬해인 1767년(丁亥) 4월에 한라산에 올라 그 기쁨을 시로 지어 제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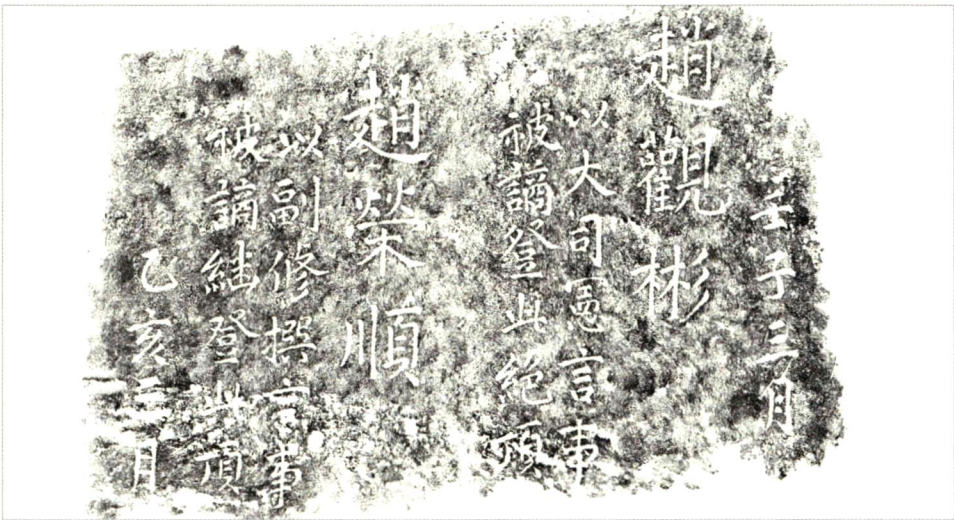
그가 제영해놓은 시를 해석하여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죄 바다인데	東西南北海
하늘 떠 받친 봉우리 하나 꽃혀서 떠 있네	撐插一峯浮
홀로 올라서니 하늘과 땅 드넓은데	獨立乾坤大
문득 최정상이구나.	居然最上頭

유배 중인데도 태연히 산에 오르고 시까지 거침없다. 시의 전체적인 느낌은 웅장하고 기백이 넘친다. 어디에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소외되었다는 소외감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해배되어 한라산 정상에 서서 벅찬 기쁨을 흔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잘 짜여진 평성(平聲) 우운(尤韻)의 5언 절구이다.

심낙수의 문집인 「은파유고」에 보면, 유배인 정이환은 제주목사 심낙수와 교류가 있던 인물이다. 정이환과 심낙수의 마애명이 가까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사 심낙수는 자신과 이미 교류가 있던 정이환의 제명 옆에다 새긴 것으로 보인다.

09 조관빈과 조영순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 被謫登此絕頂
 趙榮順 以副修撰言事 被謫繼登此頂 乙亥三月

조관빈 탁본 44cm x 69cm(글자 14cm x 14cm, 8cm x 8cm)

조영순 탁본 44cm x 64cm(글자 14cm x 14cm, 8cm x 8cm)

원문번역

임자년 3월에 조관빈(趙觀彬)이 대사간(大司憲)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 곳 정상에 올랐었는데, 조영순(趙榮順)이 부수찬(副修撰)으로서 언사(言事)로 인해 유배되어 이어 이 곳 정상에 오르니 을해년 삼월이다(乙亥三月).

인물① 조관빈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자는 국보(國甫), 호는 회헌(梅軒)이다. 계원(啓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희석(禧錫)이고, 아버지는 노론 4대신인 태채(泰采)이다. 1727년 동지돈녕부사로 임명되자 노론 4대신인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 등이 죄적(罪籍)에 있으므로 의리상 취임할 수 없다고 상소하였다. 그 해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1731년 대사헌에 있으면서 다시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론을 일삼고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

인물② 조영순

조영순(趙榮順, 1725~1775)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자는 효승(孝承), 호는 퇴헌(退軒)이다. 희석(禧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우의정 태채(泰采)이고, 아버지는 동몽교관(童蒙教官) 겸빈(謙彬)이며, 어머니는 민계수(閔啓洙)의 딸이다. 박필주(朴弼周)의 문인으로, 1751년(영조 27)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이 된 뒤 1754년에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1차 인사기록)에 올랐으며,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의 천거로 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부수찬이 되었으나 왕세자에게 영의정 이천보(李天輔)를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가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

해설

조관빈은 노론 4대신 조태채의 아들이다. 조영순은 조관빈의 조카가 된다. 양주 조씨 집안은 노론의 실세가문이었으므로 정치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일 조영순의 아들인 조정철까지 제주로 유배되면서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는 집안이다. 조선 후기 정치적 난맥상이 이 집안의 가계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이다. 유배인으로서 조관빈이 정상에 오른것이 임자 3월임을 강조하고, 이어 조카 조영순이 정상에 오른것인데 을해 3월이라고 하여 같은 3월임을 강조하면서 조영순이 문장 전체를 써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탁본을 보면 오른쪽에 조관빈의 이름이 보이고 왼쪽에 조영순이 보인다. 조영순은 자신이 유배 온 사연을 적고나서 등반일의 간제(乙亥)를 적고 있는데, 중부인 조관빈의 경우에는 간지(壬子 3月)가 제 위치를 벗어나 오른쪽 끝에 붙어있다. 또한 두 제명의 글씨체는 한 사람의 글씨체가 분명해 보인다. 두 사람의 시대적 간격은 약 23년 정도가 되는데, 이 제명은 전체가 조영순이 유배가 풀리자 한라산에 올라 자신과 중부의 유배사연을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부의 이름과 사연을 먼저 적긴 했는데, 중부가 한라산에 오른 시기를 강조하기 위해 오른쪽에 적고 있다. 특이한 점은 숙부에 이어 이 곳 한라산에 올랐다(繼登)는 대목인데, 이 역시 이 제명이 조영순에 의해 제명되었으리라는 추정의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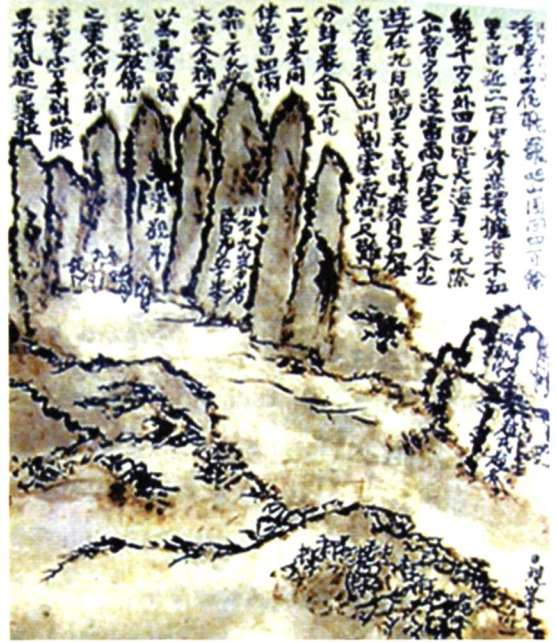
한편, 조관빈의 문집<회헌집>에 있는 시를 보면 그는 백록담에 올라서 어딘가에 탄핵받은 사연과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어 놓았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서 감회를 읊다(登漢拏絕頂口號)〉

아침 나절 흐렸다가 저녁 되어 개이니	朝日同雲晚時晴
눈에 들어오는 경계가 한눈에 환하다	眼中境界十分清
혈망봉의 머릿돌을 찾아가서	爲尋穴望峰頭石
탄핵받은 사연 뒤에 이름 적어두었네	題得霜臺疎後名

〈회헌집〉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1825년(순조 25) 2월 제주에 경차관으로 부임해 온 윤제홍은 「한라산도(漢拏山圖)」를 그렸는데 거기에는 회헌, 즉 조관빈의 제명과 조씨제명(趙氏題名)이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적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론해보면 회헌 조관빈의 제명이 따로 존재하며 조카인 조영순은 중부인 조관빈의 제명을 몰랐거나 찾지 못해서 아예 자신의 제명 한쪽에 중부의 사연과 이름을 제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조정철의 마애명역시 조영순 마애명 근처에 있다가 분화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윤제홍 <한라산도>의 일부. 그림에 나타난 조씨제명(趙氏題名)과
마애명을 새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백록담 분화구 밑에서 올려다 본 북벽 전경

10 • 조정철



趙貞□ 丁酉以前□□ 被謫庚戌□□

趙貞□ 辛未以防□使□登絕□

탁본 52cm x 75cm (글자 19cm x 19cm, 12cm x 12cm, 9cm x 9cm, 7cm x 7cm)

이 마애명은 바위의 아래 부분이 파손되어서 각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조정철(趙貞喆)의 마애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물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양주(楊州)이고 자는 성경(成卿)·태성(台星), 호는 정헌(靜軒)이다. 1775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77년 강용휘(姜龍輝) 등의 정조 시해음모사건(弑害陰謀事件)에 연루되어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다. 1810년 풀려나 정언(正言)·동래부사(東萊府使)를 거쳐 1813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 1816년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고 대사헌,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183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가 되었다. 저서로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이 있다.

해설

정유년(1777년)에 전별검(前別檢)으로 파직되어 경술년(1790)에 이곳을 올랐고(登此) 신미년(1811년)에 방어사로 부임해 와서 이어서(繼)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고 볼수 있다. 조정철은 조선의 유배인 중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30년이라는 기나긴 제주 유배생활을 끝낸 뒤, 1811년 환갑의 나이에 다시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제주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홍랑(洪娘)과의 애뜻한 사랑은 유명한 일화이고, 유배 중인 몸으로 부종인 같은 제주사람과 사제의 인연을 맺고 가르치고 돌보아 준 일과 그와 홍랑 사이에서 얻은 손녀의 사위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은 일, 무엇보다 그가 제주도민들을 위해 선정을 베푼 일은 제주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할 만한 인물이다.



11

• 목사 이양정 일행



李養鼎 李亨默 羅東善 탁본 48cm x 53cm(글자 15cm x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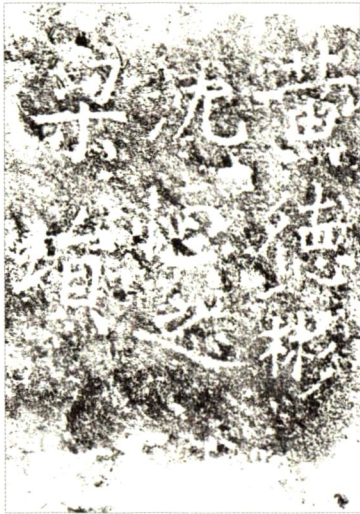
인물

이양정(李養鼎, 1739~?)은 1781년 7월 목사 김시구의 후임으로 도임하고 1782년 1월에 승지로 제수되어 떠났다. 재임 중 제주순무안사시제어사 박천형이 내도하여 과장(科場)을 개설하여 3명을 시취하고 열녀에게 정표를 내렸다.

해설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서 별다른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명은 용연과 백록담, 정방폭포, 산방굴사 네 군데에서 보인다. 이형묵(李亨默)은 이 시기에 제주관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나동선(羅東善)이 동행인으로 보인다.

12. 황덕빈 일행



黃德彬 沈恒之 梁墳 탁본 30cm x 30cm(글자 7cm x 7cm)

인물

황덕빈(黃德彬)은 1770년 제주관관으로 도임하고 1772년 8월에 떠났다. 심항지(沈恒之)는 국가에서 금했던 청나라 주린(朱璘)이라는 사람이 지은 「강감회찬(綱鑑會纂)」이라는 서책을 매매하는 일에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제주로 유배되었다. 이 책에는 태조 이성계와 인조를 모독하는 내용이 일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죄목만으로도 극형에 처해진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의 문제적인 서적이었다. 양훈(梁墳)은 이 당시 제주목사인 양세현의 아들이다.

해설

위 세 사람은 신묘년, 즉 1771년에 한라산에 올랐다. 황덕빈은 제주관관이고 양훈은 당시 제주목사였던 양세현의 아들이었으므로 둘의 동행은 자연스럽지만, 심항지의 동행은 의아스럽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제주관관 다음에, 목사의 아들보다는 앞에 쓰여 있어 의아하지만 연령순이라고 보면 자연스럽다.

13

• 목사 조우석 일행



牧使 趙禹錫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義經
判官 申義恒 李寅和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
丁酉 五月 日

탁본 108cm x 62cm(글자 10cm x 10cm)

인물

조우석(趙禹錫, 생몰년 미상)은 현종 때 제주목사이며 1836년 3월 박장복의 후임으로 부임하고, 1837년 11월에 흑우(黑牛)를 진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파직되어 떠났다.

해설

제주로 부임했던 목사들은 변방이라는 특징으로 무관이 많이 부임했는데, 무신이라는 성격상 이들 중에는 탐학하거나 목민보다는 행유와 주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비변사의 말로써 계를 올려 말하길 제주목사 조우석은 재앙을 입은 백성들의 구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에만 전념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하여 이미 많은 말이 들린다.

又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使趙禹錫 罔恤災民 專事肥己 怨聲藉藉 已多入聞

겨우 1년 반이라는 길지 않은 재임기간에 산방산을 비롯하여 용연, 탐라계곡과 백록담 등에 본인과 동행한 이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의 유람에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는데 심지어 악공들까지 대동하고 유람을 나섰다. 탐라계곡에는 자신과 판관, 자신의 막료들과 악공 2인까지 포함하여 13명이 따라나섰다. 백록담에는 악공 중 무거운 악기였던 금(琴) 연주자의 이름은 빠지고 있다. 또한 산방굴사에도 그의 이름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판관과 막료, 피리 연주자 문명신(文命新), 거문고 타는 김치원(金致元)의 이름까지 제명되어져 있다. 그가 이런 유흥에 빠져있을 당시 제주는 비바람에 피해를 입어 환곡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1837년 10월에 이미 비변사의 장계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었음을 알 수 있다. 화살을 만드는데 나무는 제주도 특산물이었기에 그가 개인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사사로이 채취한 뒤 배로 육지부로 실어 날라 팔았던 일이 문제가 되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엄히 신척하라는 유히가 내려졌음에도 멀쩡하게 임기를 이어간다.

탐라계곡으로 유람 간 시기가 그해 9월이었고, 백록담에 놀러간 것이 5월이었다. 이것만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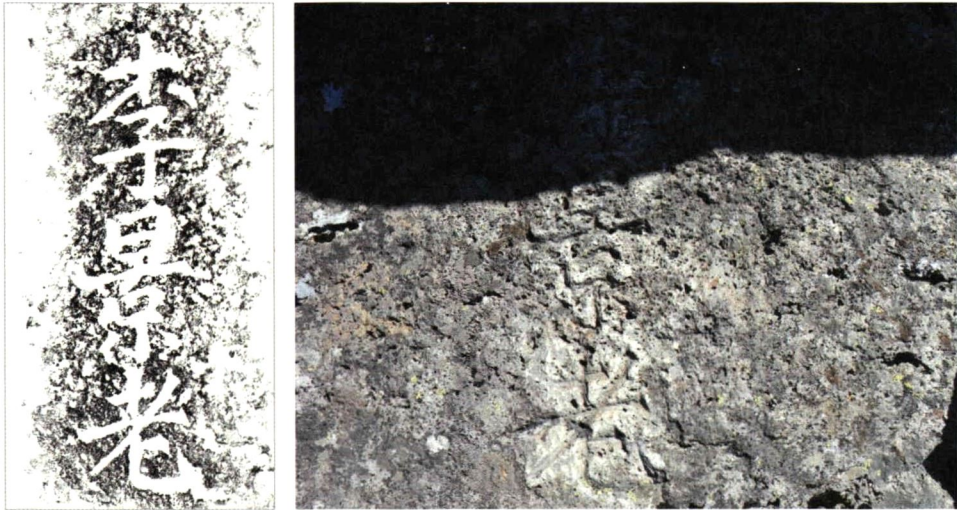
아도 그는 탐학하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와중에 떠들썩하게 유람을 다닌 것이다. 그가 이런 탐학과 탐욕, 그리고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 해까지 임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극성이었던 사실과 연관시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79년(정조 3년), 1월 29일 「일성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파직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다.

제주 전목사 조우석은 파직하고 은진현감 신영은 의금부에 잡아들어 조치 하였다. 이조 참판 서호수가 아뢰기를,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은 사체(事體)가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근래에 외읍(外邑)에서 봉진(封進)할 때 잘 가려서 봉입(捧入)하지도 않고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주목에서 봉진한 무술년(1778, 정조2) 조(條)에 흑우(黑牛)를 가정(加定)했던 것을 살펴보면 체구가 작아 송아지만하고 비쩍 말랐으며, 홍주(洪州), 청산(靑山) 등 다섯 고을에서 나누어 기른 것도 전혀 쓸 만한 것이 없어 가까스로 이미 예조에 논보(論報)하여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전후로 신칙하였는데도 이처럼 태만하게 봉행하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희생이 수척한 책임은 나누어 기른 각 고을에 있고, 체구가 작은 책임은 봉진한 고을과 도회관(都會官)에게 있습니다. 나누어 기른 해당 다섯 고을의 수령을 우선 엄하게 추고하여 앞으로 잘 하는지 관찰하고, 봉진관인 제주 목사와 도회관인 은진 현감은 반드시 특별한 처분을 내린 뒤에야 차후를 징계할 수 있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여, “봉진관은 파직하고 도회관은 의금부에 잡아들어 처리함이 가하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이 보인다.

罷濟州前牧使趙禹錫職 拿處恩津縣監申燾 吏曹參判徐浩修啓言 祀享犧牲事體 何等重大 而近來外邑封進之際 既不擇擇 喂養之方 亦不致意 雖以日前濟州牧使所進戊戌條 加定黑牛觀之 體小如眷 瘠瘠且甚 洪州靑山等五邑分 養者 一無可取 故纔已論報春曹竝爲退送 而前後申飭之下 奉行之 若是慢 忽誠極駭然 瘠瘠之責 在於分養各邑 體小之責在於封進邑及都會官 當該分養五邑守令 姑先從重推考 以觀來頭 至於封進官濟州牧使及都會官恩津縣監 則必承別般處分然後 可懲來後 故敢達矣 從之封進官罷職都會官拿處可也

흥미로운 사실은 제주흑우가 종묘의 제사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제주에서 올려진 흑우는 일단 도회관(주로 영암군수)에 의해 관리되다가 조정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봉진관인 제주목사와 도회관이 종종 처벌받는 일들이 기록에 보인다. 제주흑우는 제주마, 제주감귤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이었다. 정조 8년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의 기근때 백성을 위로하면서 다른 공물의 진상은 연기해주지만 흑우, 감귤, 말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흑우와 감귤은 제사에 바치는 더없이 중요한 물건이고 또, 공마는 군정에 속한 것이니 만큼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14 이경로



李景老 탁본 13cm x 43cm(글자 11cm x 15cm)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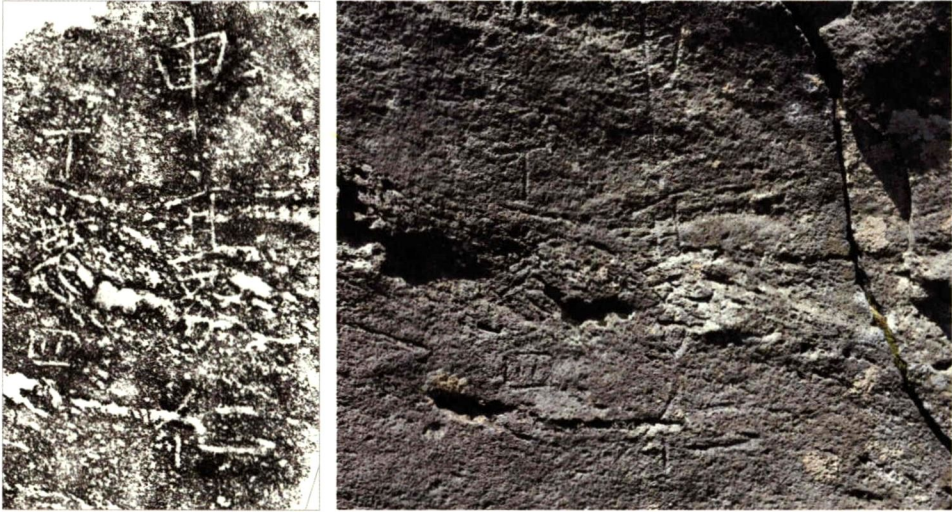
승정원일기를 보면 같은 이름의 유배인이 보인다. 1754년 2월 5일 기록에는 이경로(李景老)를 제주목 대정현에 기한을 정함 없이 정배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의금부의 말로써 상달하길 "현재 잡혀있는 죄인 거제전부사 이재형을 영남 웅천현에 3년 정배하도록 하고 이경로를 제주목 대정현에 기한 없이 정배 시킬 것. ... (하략) ...

以義禁府言達曰 時囚罪人巨濟前府使李再馨 嶺南熊川縣徒三年定配 李景老 濟州牧大靜縣勿限年定配

1759년 12월에 신원되었으며 1763년 6월 삼척영장(三陟營將)과 평산부사(平山府使)로 임명되는 기록이 보인다.

1.5 • 신호인



申豪仁 丁亥四 탁본 6cm x 17cm(글자 6cm x 6cm)

인물

제주 유생들의 시취 내용과 시문 등이 수록되어 있는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무과 입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승정원일기 1789년(정조 13) 5월 4일(庚申)의 기록을 보면 병조에서 신호인(申豪仁)을 명월만호로 삼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병비(兵批)로 .. (중략) ... 신호인을 명월만호로 삼고 .. (중략) ... 아울러 단자와 같이 부쳐 올림
 兵批 判書李文源進 參判柳誼差祭 參議申應顯入直 參知洪秉聖病 左副承旨申耆進 以沈
 豐之爲知事 安春君爲都總管 具廣爲副總管 李喜永爲僉知 李寬徵爲忠州營將 申豪仁爲明
 月萬戶 金商鎮爲甕津別將 同知單朴昌潤 僉知二單趙光鉉 李益懋 副護軍林鵬翰 申匡堯
 副司直李亨元 成德朝·李秉鼎 南鶴聞 曹遠振·李書九 柳甲基 副司正朴禹圭並單付

해설

정해사(丁亥四)는 1767년 4월이므로 1789년에 신호인이 명월만호(明月萬戶)로 임명되기 21년 전에 한라산을 오른것으로 보인다.

16 김희 일행



金會 朴萬淳 洪大成 탁본 37cm x 32cm(글자 12cm, 10cm x 10cm, 8cm x 8cm)

해설

미상인 인물들이다. 홍대성(洪大成)은 승정원일기 1760년(영조 36) 6월 21일(癸巳) 기사에 잠깐 보이는데 확신할 수 없다.

17

• 김종보 일행



(金載俞 丁八日) 金鍾輔 夫士簡 李膺良 洪範植 張文明 辛未

탁본 75cm x 23cm(글자 6cm x 6cm, 4cm x 4cm)

인물① 김중보(金鍾輔)

제주사람으로 조선 순조 때의 무신이다. 1784년 무과 급제했으며 1805년 8월에서 1808년 3월까지 명월만호를 지냈다. 1810년 전주중군, 1827년 함경도병마우후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인물② 부사간(夫士簡)

1800년(정조 24) 3월 24일 기록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시험관이 제주에서 늦게 도착한 한량들을 위해 시험에 특별히 응시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내용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인물③ 이응량(李膺良)

역시 자세하지 않은 인물인데 1816년(순조 16) 9월 5일(辛亥) 승정원일기 기록에 보인다. 제주한량이었다는 그는 1815년 별시에 참석하지 못해 다음 해에 다시 정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병조를 통해 청원하여 왕의 윤허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에 보인다.

인물④ 홍범식(洪範植)

1815년(순조 15) 10월 12일 승정원일기에 보면 제주한량으로 나오는 동명의 인물이 보인다.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고 왕의 무탈함을 기리는 별시에서 제주인들 중에 무과초시를 통과한 한량들에 한해 전시에 직부하는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인물⑤ 장문명(張文明)

장문명은 미상이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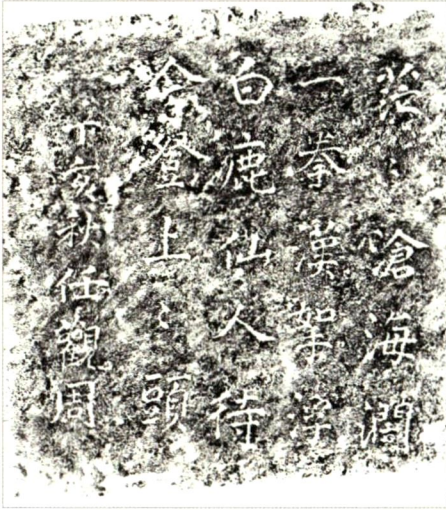
위 5인의 일행은 등정한 신미(辛未)년(1811)을 전후해서 무과에 급제한 한량들이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같이 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일은 이 당시 제주인들의 중앙 진출이 타 시기에 비해 빈번하고 인원도 많다는 사실이다.

1810년(순조 10) 6월 24일 승정원일기에 보면, 제주절충 김종식과 가선 김사원이 각각 일천 백석과 일천 석을 내어 배를 빌려서 바다를 건너 남해지역의 기민들을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종보의 동생이 김종식과 김종집인데 모두 무과 급제한 인물들로서 첨사와 명월만호 등을 지냈다.

김재유(金載俞)

김재유는 김종보 일행 마애명 오른쪽에 조그맣게 새겨져 있다. 김종보 일행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각을 한 서체나 마모된 정도로 보아서 시대가 먼저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적 미상이다.

18 임관주



茫茫滄海濶 一拳漢拏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上頭 丁亥 秋 任觀周

탁본 56cm x 58cm(글자 7cm x 7cm)

인물

임관주(任觀周, 1732년~?)는 본관은 풍천이고 자는 숙빈(叔賓)이다. 1756년(영조 32) 정시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67년(영조 43) 정언 재임 중 언론의 중요성, 「어제유곤록(御製裕昆錄)」의 불합리한 서술, 재상의 잦은 교체, 제술(製述) 시험 때 성균관 유생을 모독한 도승지 송형중(宋瑩中)의 파직, 서울과 지방 관원들의 비리 적발, 무장들의 권위 존중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조목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하여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제주도에 와서 창천촌에 유배지를 정하고 독서에 열중하였다. 유배된 지 두 달이 지나자 대신들이 바른 말을 하는 관리를 섬에 계속 둘 수 없다 하여 특별히 석방되었다. 1782년(정조 6) 시폐(時弊)를 상소하자 대사헌 김이소(金履素)의 탄핵을 받아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1784년(정조 8)에 남해현에서 풀려났다. 1801년(순조 1) 복관(復官)되었다.

해설

그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두 달 만에 해배되었다. 해배 되자마자 그의 적거지에서 멀지 않은 안덕계곡의 상류인 창천을 찾았다. 그의 시에는 유배에서 풀린 흥가분한 심정이 늦가

을 정취와 어울려 청신한 맛이 있다. 특히 머리맡에서 들던 시냇물이라는 대목은 고조기의 <산장야우(山莊夜雨)>라는 시와 풍격이 흡사하다. 창천은 바다가 융기하여 생겨난 하천으로 제주도의 하천 중 특이한 곳이다. 그는 장마철에 흐르는 평음의 물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비로소 사립문 나서는 날에야	始出荊門日
먼저 배갯머리에서 들던 시내에 들렀네.	先尋枕下川
세 구비마다 늘어선 푸른 바위	蒼巖三曲立
늦가을 단풍 곁, 아담한 폭포	短瀑晚楓邊

창천을 둘러보고 발걸음을 산방산으로 돌린다. 안덕계곡에서 산방산은 지척이다. 산방산의 생김새와 천연적으로 형성된 산방굴사의 경치에 놀라고 다시 거기서 바라보는 바다풍경에 다시 한 번 놀란듯하다.

들로된 신선의 굴	石作神仙窟
산방산에서 새는 물 공중에서 떨어지네.	方山漏滴空
남쪽하늘 푸른 바닷가 고장	南天蒼海州
오(吳) 초(楚)지방이 한눈에 들어온다네.	吳楚一望中

이어 중문 천제연으로 가서 <추인(芻人)>라는 칠언절구로 천제연에서 벌어지던 활쏘기의 장관을 묘사한다.

천지연이 열려 큰 폭포 흐르고	天池淵開大瀑流
층석들이 옮겨와 절벽에 깊은 못이 되었네.	移來叢石壁深湫
공중에선 화살 진 허수아비 (줄타고)걸어가니	空中負箭芻人步
가장 기이한 볼거리는 이곳 활쏘기이네.	第一奇觀此射侯

이어 그는 내쳐 한라산에까지 올라 시를 읊는다. 같은 유배객이었던 정이환(1767년(丁亥))은 그해 4월에 한라산에 올라서 시를 지었고, 임관주 역시 같은 해 가을(丁亥 秋)에 한라산에 올라 같은 처지였던 정이환의 시를 차운하였으며 시의 기상이나 풍격이 흡사하다.

망망한 창해 드넓은데	茫茫滄海濶
한라 봉우리 떠 있구나.	一峯漢拏浮
백록을 탄 신선 기다리는데	白鹿仙人待
난 오늘에야 정상에 올랐네.	今登上上頭

시를 읊는 기세가 대단하다. 바른 말, 직언하기를 좋아해 두 번씩이나 유배형에 처해졌던 만큼 시 역시 거침이 없다. 첫 구의 바다풍경의 수평과 두 번째 구의 수직이 아무런 장식이나 수식 없이 교차할 뿐이다. 백록담에 관한 전설을 교묘하게 틀어 백록담 신선이 자신을 만나기를 기다린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주로 부임했던 소위 목민관이라는 이들과 유배인들의 시는 태생부터 다른 듯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한라산과 백록담의 절경에 고작 상투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에 그치는데 비해 유배인들의 시는 힘차고 기상이 남 다르다. 추사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시나 문장은 쇠가 담금질해야 강해지듯 고통을 거쳐야 빼어난 글이 나오는 것이다.

한라산에 이어 그는 제주목으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그 즈음 가까운 용연에 들리고 여기에도 제영을 한다.

백록담에서 흘러내리는 물	白鹿潭流水
못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네.	爲淵大海潄
양쪽물가에는 모두 푸른 절벽인데	兩涯皆翠壁
돌아갈 나그네 쪽배 찾아보네.	歸客片舟尋

마지막 구의 돌아갈 나그네 쪽배 찾아본다는 대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라든지 온통 푸른 벽이라는 표현은 매우 힘이 넘친다.

1.9 홍구서



洪九瑞 탁본 18cm x 36cm(글자 8cm x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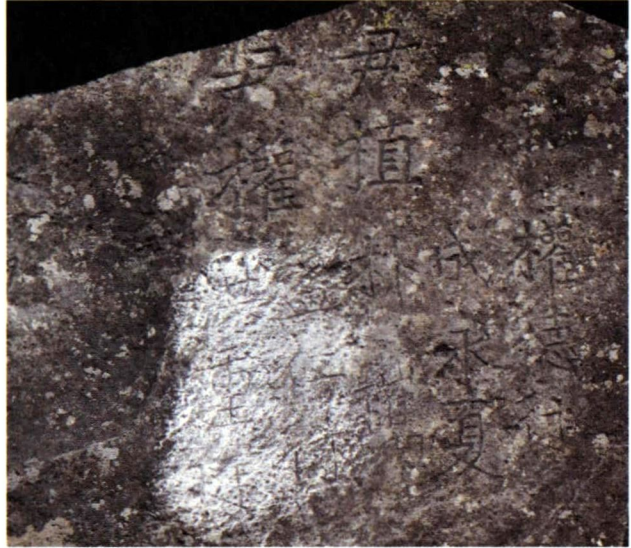
인물

홍구서(洪九瑞)는 1722년(경종 2)에 태어났으며 호는 사룡(士龍)이다. 40이 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였고 주서(注書), 통례(通禮), 정언(正言), 지평(持平), 장령(掌令) 등을 두루 거쳤으며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인 홍태두(洪泰斗)를 따라 제주에 왔다. 추정해보면 제주로 왔던 시기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인 34세쯤이 될 것이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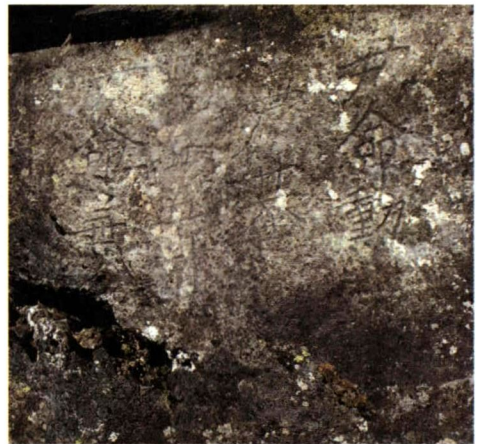
승정원일기를 보면 그는 주로 언관과 헌관에 관련된 직책을 중심으로 관료생활을 하였다. 주서, 통례, 정언, 지평, 장령 등을 두루 지냈는데, 아직 관직을 맡지 않았던 시기에 부친을 따라 제주에 왔다가 산에 올라 제명하게 된 것이다.

20. 윤식 일행



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璠 孟仁行 洪重健

탁본 37cm x 47cm(글자 10cm x 10cm, 7cm x 7cm)



尹命勳 尹基 乙丑 五月 尹命兼

탁본 39cm x 24cm(글자 8cm x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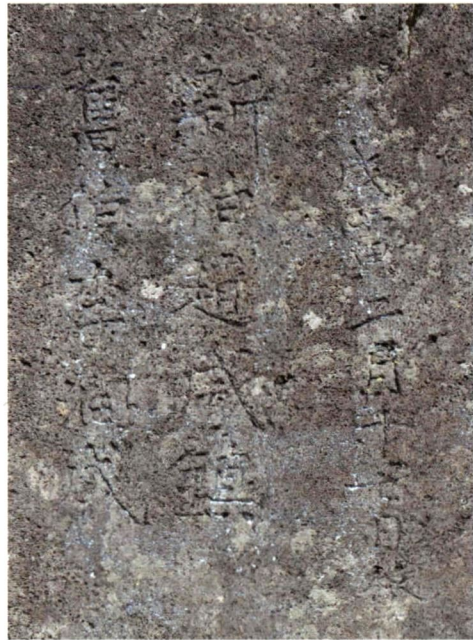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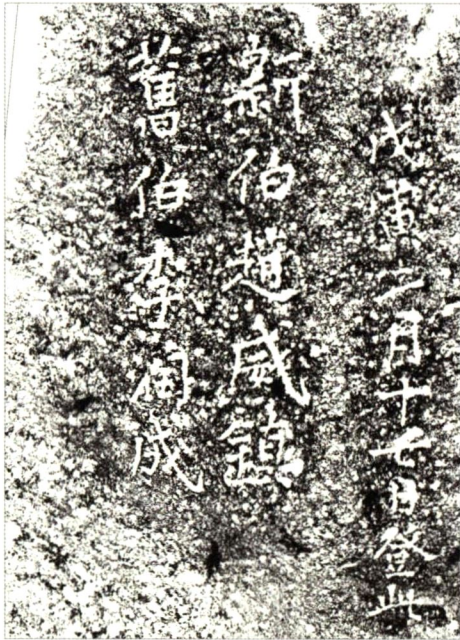
인물

윤식(尹植, 1678~?)은 본관 파평(坡平), 자는 사고(士圃)이다. 1678년(숙종 4) 윤집성(尹集成)의 아들로 태어났다. 1702년(숙종 28) 별시 문과에서 병과 6위로 급제했다. 강원도 횡성 현감, 장례원판결사 등을 거쳐 1744년(영조 20) 9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가 다음 해 9월에 파직되어 떠났다. 재임 중 제주도의 유향품관들로 하여금 조정에 진상하는 공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자 매질하여 내쫓고 계속 항의하는 사람들은 상부에 보고해 유배시켰다. 1745년 9월 조정에 부패한 청굴(靑窟)을 진상한 죄로 제주목사직에서 파면되었다. 이후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종이품 한성부우윤에 올랐다.

해설

윤식 일행과 윤명훈 일행이 제명된 게 근처이기는 한데 동행인임을 확증할 수는 없지만 윤식목사의 도입시기가 1744년에서 1745년, 즉 을축(乙丑)년이므로 제명에는 윤명훈일행의 이름 가운데에 을축 5월이라 돼있어서 윤식목사 일행과 동행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식목사와 동행한 윤군(尹權), 권덕행(權德行), 성영하(成永夏), 박휴(朴樞), 맹인행(孟仁行), 홍준건(洪重健)막료들로 보이는데 그 중 성영하는 이후 무관으로 등용되어 경덕궁 호위장이 된 인물로 보인다. 맹인행(孟仁行)과 홍준건(洪重健)은 윤식 목사일행과는 글씨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동행한 인물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1 • 목사 조위진 일행



戊寅 二月 十七日 登此 新伯 趙威鎮 舊伯 李潤成

탁본 34cm x 52cm(글자 8cm x 8cm)

인물① 이윤성

이윤성(李潤成, 1719~?)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36년 병조판서 박문수의 천거로 남행 선전관이 되었고, 1756년 제주목사가 되어 수입된 호마의 방목에 힘썼다. 이듬해 제주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전라도의 상진곡(常賑穀)을 들여와 도민을 구제하였다.

인물② 조위진

조위진(趙威鎭, 생몰년 미상)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57년 11월에 이윤성의 후임으로 도입하고 1759년 5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왕조실록에 영조가 부임하는 이윤성에게 다음과 같이 각별한 당부를 내린다. '너는 제주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루의 굶주림이 있으면, 이는 네가 나로 하여금 하루를 굶게 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제주는 토질이 화산토가 되어 가뭄이 생기고, 일년에 두세번 태풍이 통과하는 곳으로 재해

가 자주 발생한다. 숙종때는 정변이 빈번하여 많은 정객이 유배되었는데, 조정이 바뀌면 유배객이 요직에 오르는데, 경연석에서 제주 실정을 임금에게 잘 전달 되었다. 숙종은 그에 따라 전라, 경남지역의 군량을 제주에 구휼미로 보내거나 하여 제주의 어물, 미역으로 갚는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자주 해난사고가 일어나자 영조 이후는 공첩장을 1년에 150장씩 목사에게 보내 제주토호들로부터 양곡을 내는 조치를 부가적으로 시행하였음이 승정원 일기에 보인다. 그래서 육지부보다 제주에 공첩이 특히 많은 원인이 되었다.

해설

1758년 무인(戊寅)년 신임 목사[新伯]와 임지를 떠나는 목사[舊伯]가 나란히 백록담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 새겨놓은 특이한 방식이다. 이전 목사인 홍태두도 산에 올랐으므로 전 후 두 목사 재임때 판관인 안세윤이 신구 목사와 더불어서 산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인 2월 17일(戊寅 二月 十七日)이라고 구체적 날짜까지 밝힌 점이 특이하다.



{ 백록담 북벽 }

백록담의 북벽은 멀리 조선시대 임금인 계신 서울과 제주목관아를 마주 대하는 곳으로서,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을 때 가장 신성스럽고 임금을 향한 존경의 표시를 취하는 곳이다. 마치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백록담 북벽의 병풍 바위는 옛 지도상에 구룡암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 01 김정
- 02 이익
- 03 최익현
- 04 정우식 일행
- 05 김세완
- 06 민복기
- 07 손경오 일행
- 08 김규환

01 • 김정



金淨 탁본 14cm x 42cm(글자 14cm x 14cm)

인물

김정(金淨, 1486~1521)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원충(元冲), 호는 충암(冲菴) 기묘사화로 제주로 유배되어 성안 가락천 동북쪽 금강사에서 지냈다. 이때 제주의 이속적(異俗的)인 문화를 소개하는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지었고, 1521년 10월 사사(賜死)되었다.

해설

「제주풍토록」을 보면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어서 한라산의 웅대한 자연경관에서 답답한 마음을 씻어내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아쉬워한다. 김정이 한라산에 과연 올랐는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시문과 인용문 등에서 그에대한 의문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한라산 정상에 올라 사방을 돌아보면 죄 바다인데 굽어 바라보면 남극노인성 (남극노인성은 크기가 마치 밝은 별 같고 남쪽하늘 끝자리에 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데 만약 나오면 덕치와 장수의 상서로움이 나타난다고 알려진다. 이 별은 오직 한라산과 중원의 남악 즉 형산에서만 이 별이 보임)이 보이고, 멀리 월출산이나 무등산 등 여러 산들이 보이는 것이 가히 불우한 가슴 속을 씻어 내릴만한데, 이는 마치 이태백이 노래한 대로대 봉이 날아오르자 구름이 드리우고, 큰 자라가 물속으로 뛰어다니 파도가 일렁인다.

라는 것과 같다. 오직 이런 표현만이 이 경승에 걸맞지만 나는 갇힌 죄수라 형편이 그러지를 못하였다.

然若登漢挈絕頂 四顧滄溟 俯觀南極老人 老人星 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現則仁壽之祥 唯登漢挈及中原南嶽則可見此星 指點月出無等諸山 可盪奇胸 如太白 所云雲垂大鵬翻 波動巨龜沒者 唯此可以當之 惜吾羈囚 勢不能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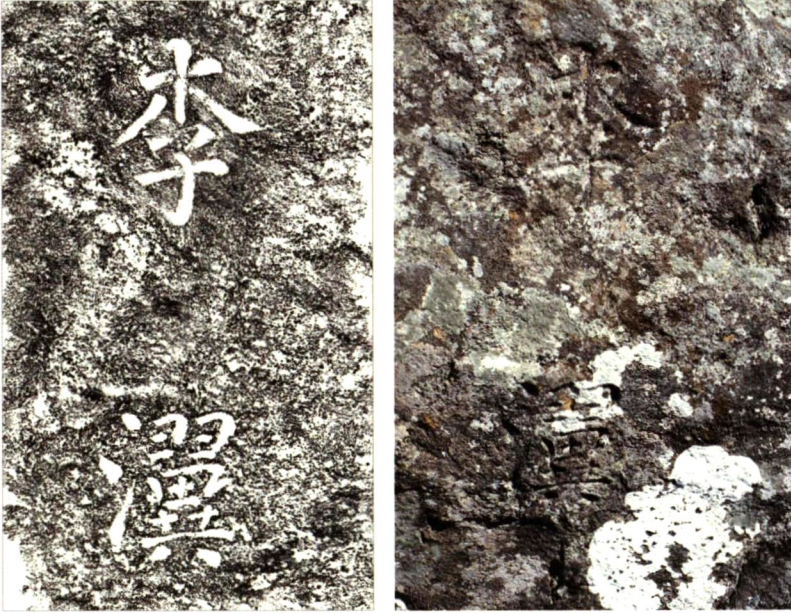
그러나 그 자신이 이운(李耘) 목사와 함께 오미자를 따라 한라산에 올라 다녔으며, 더욱이 「간옹유고」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라산에 올랐으며 이익이 그것을 매우 부러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애명은 원칙적으로 직접 답사한 기념으로 길이 남기고자 새기는 것이므로 김정은 당시 목사인 이운의 배려로 올라 제명을 남기게 되었고, 이익은 평소 한라산에 오르는 것이 소원이었으므로 인조반정 직후에 동반하여 마애명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김정은 한라산에 오른 증거들을 숨기기 위해 한라산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삼산(三山)이라는 미묘한 표현을 사용한다. 「충암집」 3권에 삼산가(三山歌) 19운(韻)의 내용을 보면 한라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표현들이 보인다. 또한 김정은 한라산 기우제문, 장울악 기우제문 등을 본인이 직접 썼는데, 이것 역시 그가 한라산에 직접 오르고 제명하였다는 판단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 김정의 마애명은 1521년 한라산에 올라 새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가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한라산 마애명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이다.

02. 이익



李灑 탁본 12cm x 42cm(글자 12cm x 12cm)

인물

이익(李灑, 1579~1624)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이며 자는 형여(洞如), 호는 옥포(玉浦) 또는 간옹(良翁)이다. 1618년(광해군 10)에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비를 반대하다가 제주로 유배되어 전적 고흥진(高弘進) 참봉 김진용(金晉鎔) 등의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해배되자 인목대비의 모친인 부부인 노씨와 더불어 상경하였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고향에 돌아가 그 해에 죽었다. 이익의 아들 이인제(李仁濟)는 어머니(헌마공신 김만일의 딸)와 함께 남아 제주 경주 이씨 중 한 계파의 입도조(入島祖)가 되었다.

해설

간옹 이익이 지은 「간옹유고」에 보면 한라산에 관한 시와 함께 그 사연을 적은 서문, 즉 병서[遊漢羅山四首并序]에 당시 유배인의 신분이었던 김정이나 이익이 직접 한라산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가늠할만한 내용이 자세하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신 총암공(金淨)께서 위리안치 중에 가끔 한라산에 올라서 말하길 “국법 때문에 이 산중에 오래 머물 수 없고 또한 단지 한 달에 한번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한 번 이 섬에 들어와서 몇 해 동안 한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것은 공이 받은 죄가 우

리에 비해 가볍지 않았을 터인데도 오히려 수시로 산중에 가서 울적한 심사를 달랠 수 있었건만, 죄가 더 가벼운 우리들은 오히려 국법이 두려워 감히 문밖을 나가보지 못하는 것은 시절이 예와 지금이 다르고 형세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先正忠菴公在園中時時往此山而曰國法之故不得長在山中但一月一出云云而吾輩一入累年不得跬步之出公之得禍不下今日猶得時往山中暢敘幽鬱而吾輩猶縮首不敢出者時有古今之異而勢有所不敢也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충암 김정은 유배인의 신분이었는 데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산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옹 이익은 김정의 사례를 통해 한라산에 오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정하고 한라산에 오르는 일종의 모험을 감행한다.

이에 뜻이 맞는 두 세 사람과 함께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서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저녁에야 돌아왔다. 혹시 이후에 우리를 본 자가 있더라도 역시 이 일을 너그러이 봐달라고 사정할 수 있을 뿐이다.

與同志二三子冒曉而往越一夜而昏返焉後或有見之者亦將寬恕云爾

이 대목에서 간옹은 그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밤에 집을 나서서 새벽을 넘어 하루 종일을 걸어 한라산을 올랐으며 그 감상을 다음과 같은 칠언시로 남겼다. 시기는 1619년도이다.

영주 제일봉에 우뚝 서서 보니	獨立瀛洲第一峯
하늘과 바다 아득해 형언하기 어렵구나.	觀天觀海渺難容
황홀하게 강토를 이리저리 구경해보노라니	恍遊聖域瞻前後
태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다는 말을 이제야 믿겠네.	方信登東小魯封

그는 다음날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산에서 하룻밤까지 자는 일까지 대담하게 저지른 것인데, 이것은 국법을 염려하던 그의 평소의 언행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간옹은 유배인이었지만 실록과 기록을 보면 목사 이괄(李适)이 데리고 온 막료들이 모두 무관이었기 때문에 계(啓)를 올려서 간옹을 교관(敎官)으로 쓰도록 하여 윤희를 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어 제주인인 고흥진과 김진용 등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유배인이 산에 올랐다는 말이 나지 않게 관원의 신분으로 오른 것이니 죄 될 것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괄이 그런 조치를 한 것은 이익의 숙부가 임진왜란 공신인 오위부총관 이수일(李守一)이며, 사촌이 유명한 이완(李莞) 대장이기 때문에 이괄이 장계를 올린 것이다.

번잡한 속세를 피해 문을 열고 나서서	出門避塵囂
한라산 바라보니 면모가 새롭구나.	望山新面目
돌아가는 구름도 역시 알겠지	歸雲亦有知
내 종적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使我藏踪跡

03 최익현



崔益鉉 탁본 10cm x 40cm(글자 10cm x 10cm)

인물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이다.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동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수감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지방유림의 사상과 학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광무 9년 을사조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 유배 중 단식사했다.

해설

최익현은 1873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리자 평소 원했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한다. 제주 유생 이기온과 십 여 명과 동반하여 남문을 나와 방선문을 거쳐 한라산에 오른다. 이 일정을 「유한라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익현의 제명은 방선문에 이기온의 이름과 함께 제명되어 있으며 백록담 북쪽 안쪽 사면에도 그의 이름이 제명되어 있다. 그의 제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찾지를 못하고 있던 중, 이번 조사에 의해 새로이 발견되었다.



오른쪽의 김정과 이익의 마애명과 조금 떨어져서 왼쪽에 최익현의 마애명이 있다.
두 바위는 비록 시대를 달리했지만 유학의 정맥이라는 입장에서 최익현 자신과
김정, 이익 두 사람을 같은 연장선에 놓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공간 배치이다.

TIP

【탐사이야기 I】



백록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는 백록담 가장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섯 명의 조사원이 백록담 못가에 위치한 조정철(趙貞喆) 마애명의 쪼개진 나머지 바위 부분을 의식하여 살살이 뒤편까지 시작했다. 그렇게 동벽까지 뒤편까지 갔지만 별 소득이 없어서 기운들이 빠지고 있었다. 결국 새로운 마애명을 찾는 일은 중단하기로 하고, 세 명은 동벽의 기존 조사된 마애명부터 차근차근 글자를 판독해나가는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고 두명은 동벽부터 북벽까지를 뒤편까지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혼자 북벽을 뒤편하던 연구원이 큰 목소리로 최익현(崔益鉉)의 제명을 찾아냈음을 알렸다. 순식간에 답사분위기는 달아올랐고 각자 하던 일들을 내팽개쳐 두고 북벽으로 모여들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최익현이라는 세 글자를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역사가 눈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눈의 호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낮익은 한자 하나가 눈에 빨려오듯 들어왔다. 이(李)자였다. 그 밑으로 희미하게 다시 익(翼)자가 드러났다. 이익(李翼)이라니, 매표사 간옹이익이었다. 제주 유학의 중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배객, 「간옹유고」의 주인공, 말로만 듣던 그 이익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익자를 더듬다가 무심코 눈길의 옆으로 움직였는데 거기에도 낯설지 않은 외자 이름이 거의 똑같은 크기로 새겨져 있었다. 김정(金淨). 역사기록으로만 만나던 인물들의 자취를 세 번씩이나, 거의 같은 시간에 친견케 된 호사를 누리게 된 것이다.



백록담 북벽에서 동벽까지 차근차근 진행되는 조사장면

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양을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蘇州)·항주(杭州)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內陸)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만 하고 작은 것은 달걀만 하는 등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孟子)》에 ‘바다를 본 자는 기타의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泰山)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하였는데 성현의 역량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또 동파(東坡 소식(蘇軾))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어거하고 / 憑虛御風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 / 羽化登仙

는 시구가 적벽(赤壁)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회옹(晦翁) 주자를 가리킴이 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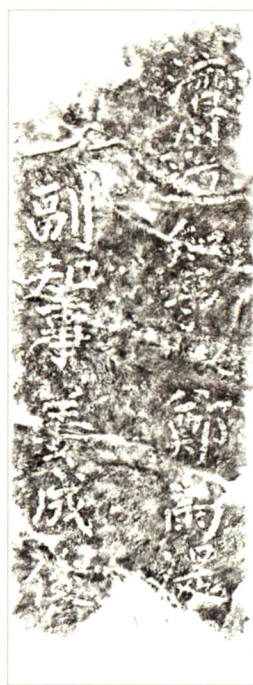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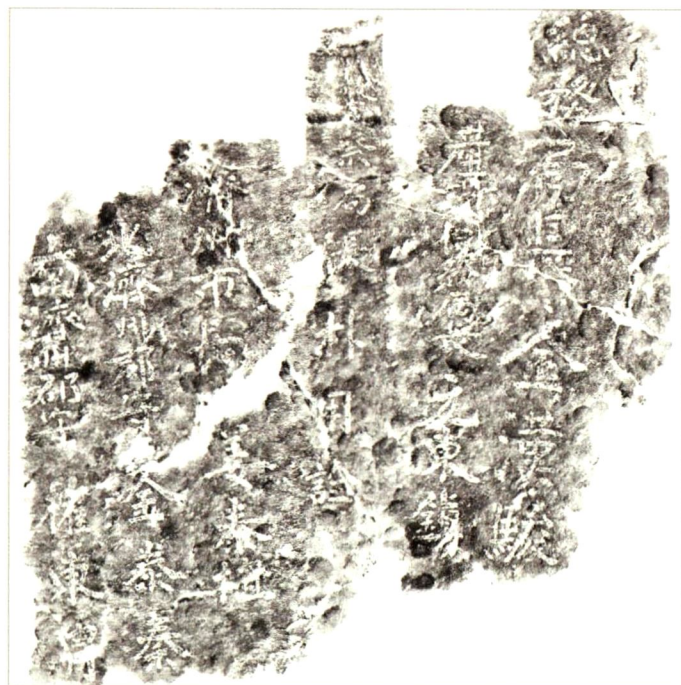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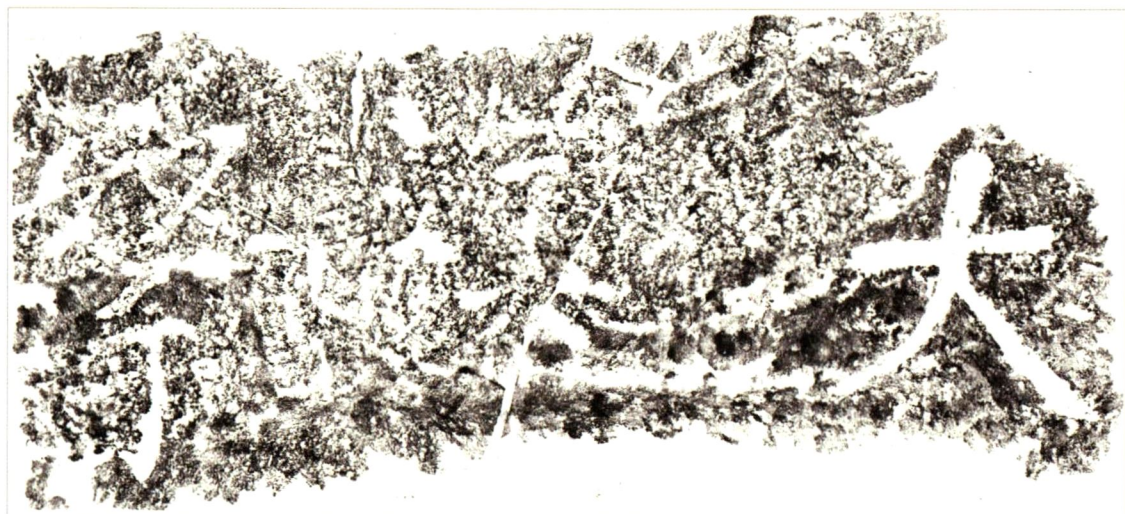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 / 朗吟飛下祝融峯

라는 시구를 외며 다시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종자들이 이미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놓았다. 곧 밥을 나누어 주고 물도 돌렸는데 물맛이 맑고도 달기에 나는 일행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맛은 금강 옥액(金漿玉液) 신선이 먹는 선약(仙藥)이 아니냐?” 하였다.

북쪽으로 1리 지점에 혈망봉(穴望峯)에 전인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해가 기울어 시간이 없으므로 가 보지를 못하고 산허리에서 옆으로 걸어 동쪽으로 석벽(石壁)을 넘는데 벼랑에 개미처럼 붙어서 5리쯤 내려갔다. 그리고 산남(山南)으로부터 서지(西趾)로 돌아들다가 안개 속에서 우러러보니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마치 대나무를 쪼개고 오이를 깎은 듯이 하늘에 치솟고 있는데, 기기괴괴하고 형형색색한 것이 모두 석가여래가 가사(袈裟)와 장삼(長衫)을 입은 모습이었다.

俄爾黑霧一抹 疾馳晦冥 自西而東 匝繞山面 心竊怪以爲既至此 不見眞面 政所謂九仞於一簣 得不爲島人所笑乎 信心行數百步 當北邊凹缺處俯瞰 上峰至此忽然中坳 洿下成坎 卽所謂白鹿潭也 周可里餘 止面淡淡 半水半氷 水旱無盈縮 淺處可揭 深處可厲 清明潔淨 不涉一毫塵埃氣 隱若有仙人種子 四圍山角 高低等均 直天府城郭 懸壁而下 循潭而南 頽坐少憩 一行並漸盡無餘力 向西最高者 是爲絕頂 乃寸進 脅息而登 從者才三人 平鋪寬曠 不甚眩視 上逼象緯 下俯人境 左顧扶桑 右接西洋 南指蘓杭 北控內陸 點點島嶼 大如雲片 小如鷄卵 驚恠萬狀 觀於海者難爲水 登泰山小天下 聖賢力量 可以想像 而亦使蘓子當日 有先於此 則所謂憑虛御風羽化登仙之句 其肯施之赤壁而止哉 因誦晦翁詩朗吟飛下祝融峰之句 還至潭邊 從者已炊米虔誠 因賦飯行水 水味清甘 余顧謂衆曰 此非金漿玉液耶 向北里餘 謂有穴望峯 及前人刻名 而日仄未暇 自山腰 橫步而東踰石壁 攀崖蟻附 下五里 由山南 轉向西趾 霧中仰見圍潭石壁 竹破瓜削 勢摩九霄 奇奇怪怪 形形色色 盡是釋迦如來 著袈裟長衫形

04 정우식 일행



大漢拏 / 登山記念 / 濟州道知事 鄭雨湜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駿 産業局長 元東鉉 警察局長 朴用詮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東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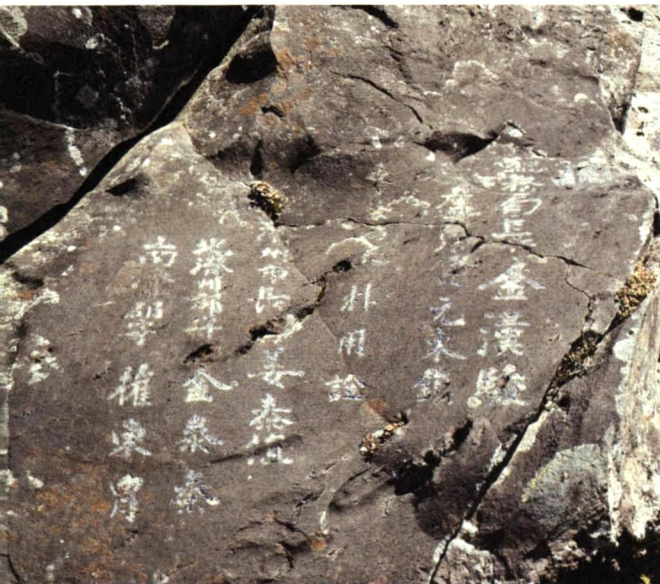
탁본 115cm x 139cm(글자 15cm x 15cm, 10cm x 10cm)

인물

정우식(鄭雨湜)은 제 14대 제주도지사. 1966년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제주도를 '동양의 하와이'로 개발하겠다고 관광 붐을 조성하면서 제주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966년 6월 20일 제주도의 개발에 관심이 컸던 박정희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우식 도지사에게 당장 33만 도민에게 급수할 수 있고, 축산과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라산 계곡의 물을 막아 수자원으로 이용하는 어승생 수원지 개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메모지에 직접 그려주기까지 하였다.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동계 정운의 후손으로서 1969년에 자신의 헌금으로 동계선생유허비 옆에 송죽도서관(松竹圖書館)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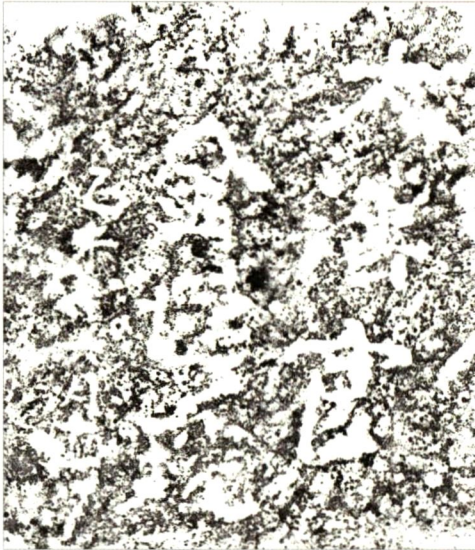
해설

정우식 도지사 일행의 한라산 등산기념 글이다. 동행한 수행 관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다. 새겨진 연도는 없으나, 동행인을 가늠해 볼때 1966년으로 추정된다.



한라산 백록담 북벽 햇볕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정우식 도지사 일행의 이름자들. 자칫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크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05 김세완



大法官 金世玩

乙未 六月 十一 탁본 37cm x 44cm(글자 13cm x 13cm, 5cm x 5cm)

인물

김세완(金世玩, 1894~1973)은 1914년 평양고보 교원양성소, 1919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했다. 1925년 관·검사 특별고시에 합격했고, 1926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52년 제주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을미년이던 1955년인데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한라산에 올라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 대법관이 되었는데, 대법관이라고 미리 제명한 것이 특이하다.



해발1,950m의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백록담 분화구내의 바위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마애명을 찾고 있노라면 숨이 턱밑에 차고 올라와 숨쉬기도 버거울 정도로 힘겨워진다. 그러나 영산 한라산을 지키며 서 있는 백록담의 바위 사이 사이에서 옛 선인들의 발자취인 마애명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그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지는 감동 그 자체이다.



06 • 민복기



漢拏靈峯探勝

檀紀 四二八八年 八月 十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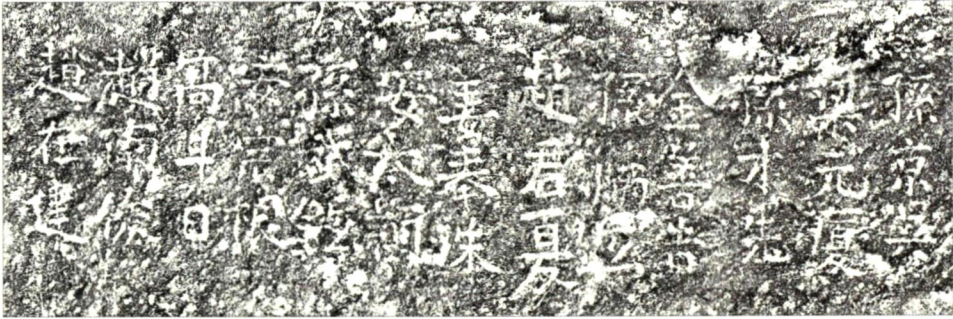
海務廳長 閔復基 탁본 30cm x 95cm(글자 11cm x 11cm, 5cm x 5cm)

해설

민복기(閔復基)가 1955년 해무청장(海務廳長) 재임시절 한라산을 오른것을 기념하여 새겼다. 민복기(閔復基, 1913~2007)는 191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창씨개명하여 일본명은 이와모토 후쿠노리(岩本復基)이다. 부친은 친일파로 중추원 부의장이었던 민병석(閔丙奭)이다. 1937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6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되어 독립운동가를 재판하였으며 친일 행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 1947~1949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가 1950년 법무부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되었으며, 1953년 외자구매청차장으로 전임하였다. 1955년 잠시 해무청장(海務廳長)을 지내다가 대검찰청 검찰총장에 기용되었다. 1956년 변호사 개업 후 1961년 대법원판사가 되었다. 1963년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1968년 대법원장이 되었고 재직시 인혁당사건을 처리하였다.



07 • 손경오 일행



丙戌 孫京吳 梁元廈 孫才善 金善浩 孫炳鉉 趙君夏
姜奉秀 安大宜 孫武鉉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탁본 67cm x 28cm(글자 5cm x 5cm)

해설

병술(丙戌)년 손경오(孫京吳)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13명의 인원이 한라산을 오른 듯 하다. 꽤 많은 인원이 올랐는데 앞서 소개한 백록담 동벽 마애명과 북벽 마애명들 사이에 새겨져 있다. 글씨체나 새겨진 상태로 보아 계모임이거나 단체 야유회를 기념하기 위해 새겨놓은 듯 보인다. 제주인들로 추정되지만 인물들에 대한 행적은 미상이다.

08 김규환



金圭煥 탁본 184cm x 66cm(글자 66cm x 66cm)

해설

김규환(金圭煥)이라는 인물은 알려진 바가 없다. 백록담 못 서측 능선에 홀로 떨어져서 새겨져 있으며, 네모난 바위에 이름 석자만 깊고 크게 새겨져 있다. 마멸된 정도로 보아 최근에 새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명의 인물 중에 제주와 관련된 인물을 찾아보면 1909년에 결성된 독립운동단체인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과 관련된 인물인 김규환이 물망에 오른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회원 중 신백우·고순흙·김사용·오상근(吳祥根)·백광흙·이수영(李遂榮)·김명식(金明植)·김두희(金杜熙) 등은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와 노동문제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 이들 중 고순흙과 김명식이 제주인이라는 사실이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전면

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 탁본 54cm x 96cm(글자 8cm x 8cm)

후면

檄文

永遠히 빛나라라

濟州道警察局長辛相默氏는

四.三事件으로 八年間 封鎖되었든 漢拏山寶庫를

甲午年九月二十一日開放하였으니 오즉 英雄的 處事가

안이리요. 다만 全道는 寄與된 自由와 福音에 感謝할지이다.

檀紀四二八八年九月二十一日

神選部隊長 許昌洵 記

東和林業社長 李光哲 設立 탁본 25cm x 72cm(글자 8cm x 8cm)

해설

한라산 백록담 정상 북쪽 능선에 세워진 비석으로서, 제주 4·3사건이 진행 중인 1948년 10월 17일에 해안으로부터 5km 이상 벗어난 지역으로 통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통행금지는 한라산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입산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듬해인 1955년 9월 21일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를 세웠다.



백록담 정상 북측 능선에 세워진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가 조그맣게 보이고 있다.





2-2

신선이 숨어 있는 곳, 탐라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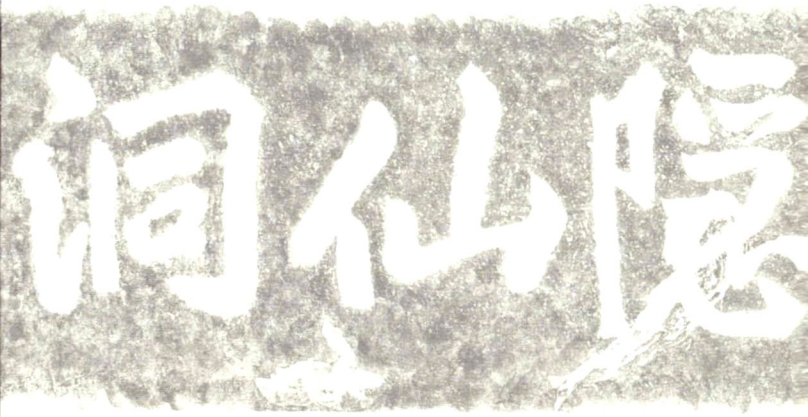
제주시 3대 하천의 하나인 한천의 상류로서 한라산 북면 가운데에 위치해 동·서로 나누어진 계곡이다. 동쪽 계곡에는 이끼폭포 등이 있어 그 신비함과 함께 장엄함을 간직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용진각대피소, 장구목과 삼각봉, 개미목 동쪽으로 흐르는 동탐라골의 물과 삼각봉 아래쪽에서 발원하여 개미목의 서쪽으로 흐르는 서탐라골의 물이 능화오름의 동북쪽에서 합쳐진다. 계곡으로 흐르는 한천은 한라산의 북면에서 시작되어 급경사를 이루며 하류로 이어져 하천을 이룬다. 높이가 무려 50m에 가까운 이끼폭포를 비롯하여 중간에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 탐라계곡 }

- 01 은선동
- 02 목사 조우석 일행
- 03 최치경
- 04 장한규 일행



01 • 은선동



隱仙洞 탁본 116cm x 40cm(글자 34cm x 40cm)



해설

전체크기 가로 116cm, 세로 40cm의 우에서 좌로 큼직한 행서 글씨체로 호방하게 쓰여졌다. 신선들이 숨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한라산 탐라계곡의 풍경이 빼어나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은선동이 새겨진 탐라계곡에 들어서면 마치 신선이 숨어 있다 나옴 직한 신비감이 스며든다. 누가 새겼는지는 알수가 없다.

02. 목사 조우석 일행



牧使 趙禹錫 判官 申義恒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義經 金秀男 卞恒遠 劉永勳 李明秀 金菊逸
 笙文命新 琴金致元 丁酉九月日 탁본 162cm x 65cm(글자 9cm x 9cm)

해설

백록담 동벽에 새겨진 조우석(趙禹錫) 목사 일행과 동일하다. 제주시 용연에서도 조우석 목사 일행의 마애명이 발견되고 있다.

03 • 최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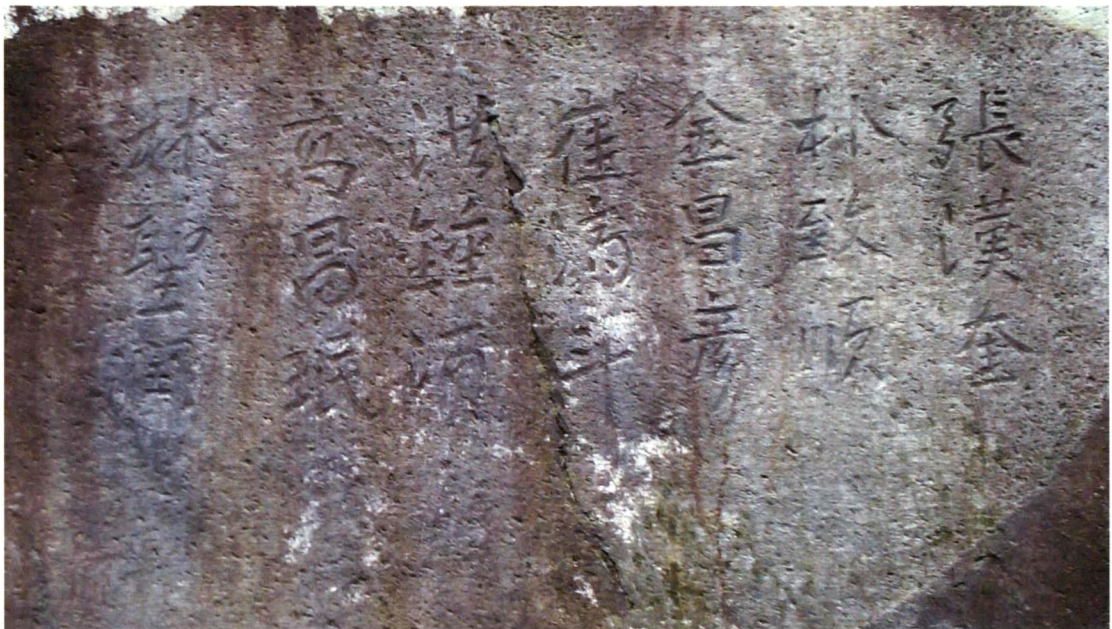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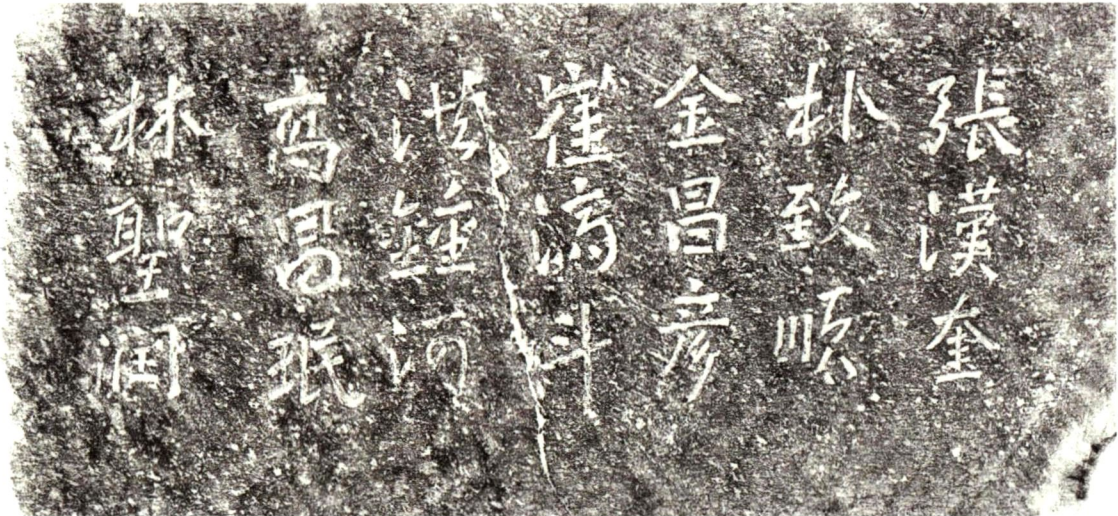


居士 崔致敬 탁본 6cm x 32cm(글자 6cm x 6cm)

해설

최치경(崔致敬)은 행적미상이다. 거사(居士)란 숨어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신을 거사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학식이 있었던 본주(本州)의 인물쯤으로 추정된다.

04 장한규 일행



張漢奎 朴致順 金昌彦 崔濟斗 洪鍾河 高昌珉 林聖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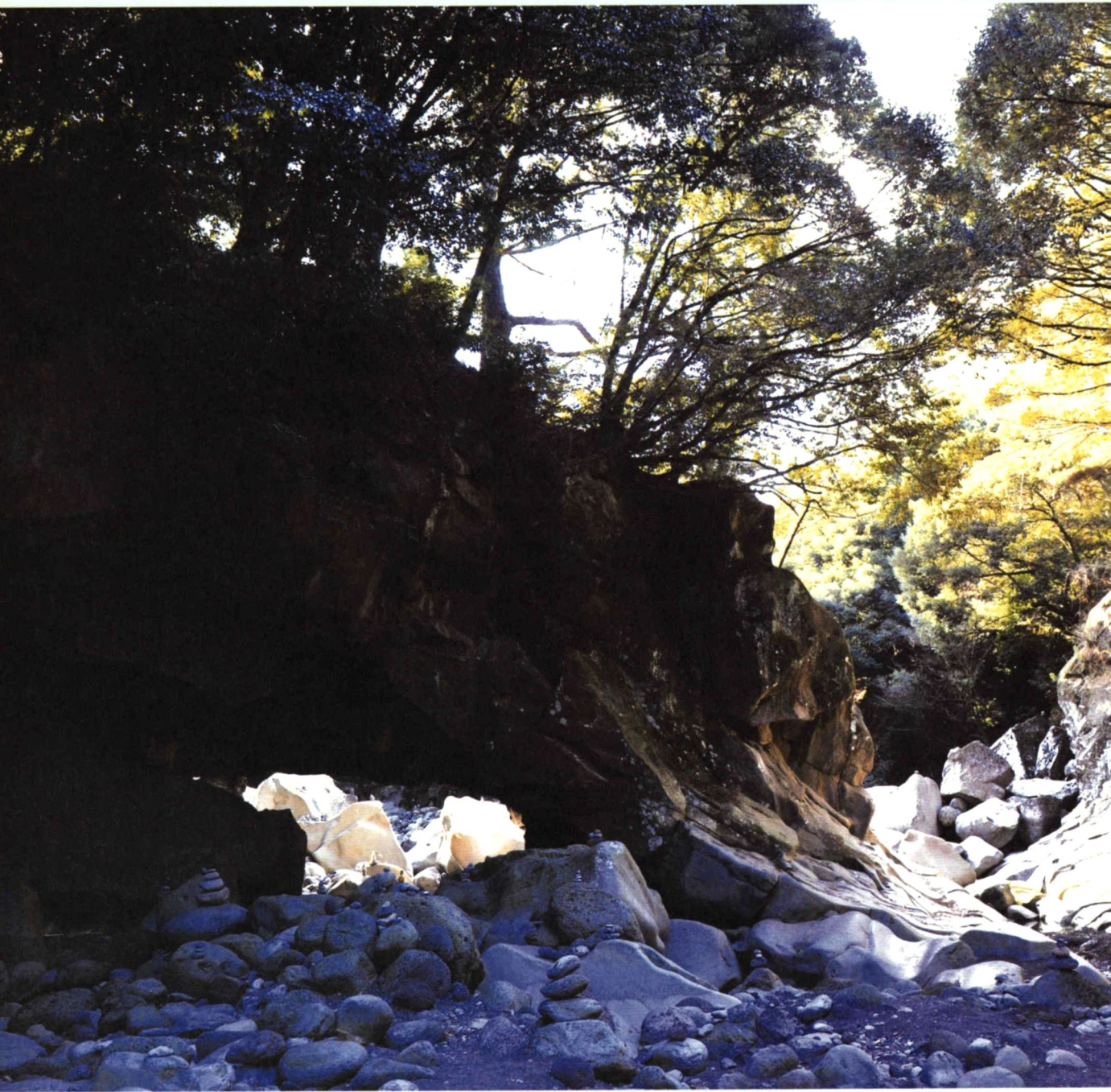
탁본 64cm x 23cm(글자 7cm x 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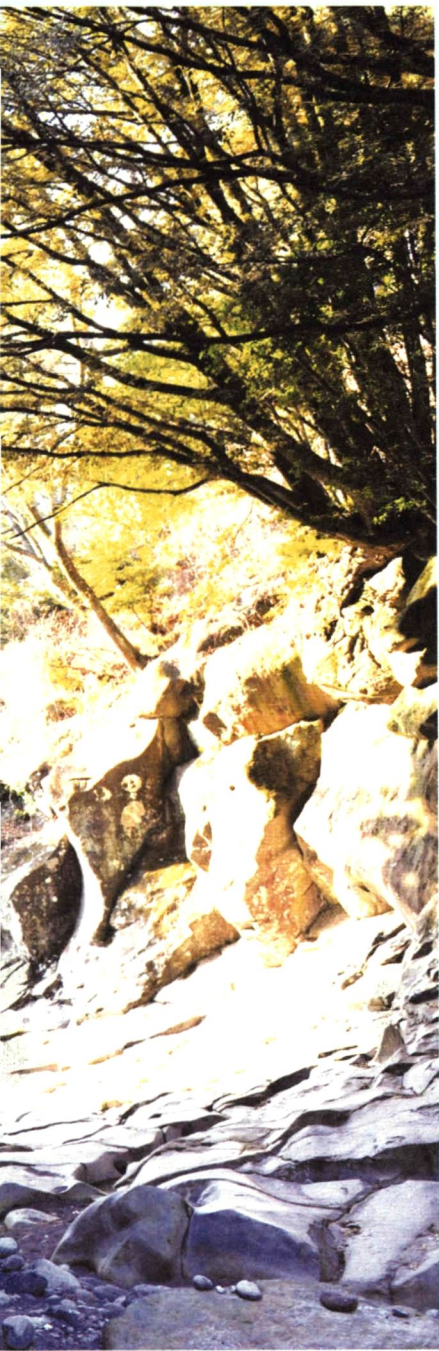
인물

장한규(張漢奎, 1880~1942) 일제강점기의 의원. 호는 수정(壽亭)이고 애월읍 애월리 출생이다. 제주사람으로는 서울로 올라가 처음으로 현대의학을 수학하였다. 1910년 8월에 상경, 현대의학의 선구자 지식영(池錫永)이 운영하는 한성의학강습소(漢城醫學講習所)에 입학하여 1912년 3월 수료하니 제주의생 제1호가 되었다. 1914년 5월 23일 제주면 삼도리에 의생 면허를 얻어 인화의원(仁和醫院)을 개설 운영하였다. 의생양성소를 설립, 후진 양성에 힘쓰고 동시에 제주도의생회(濟州島醫生會)를 처음으로 창립, 초대회장이 되었다. 또 관립 자혜의원의 협조를 얻어 비로소 예방주사와 종두를 놓기 시작했다. 서예, 시, 문학 등에 남다른 식견도 있었으며 금강산을 답사한 기행문도 남겼다. 오늘날 애월읍 지역 출신들과 장씨 가문에서 의료계 출신이 다수 배출된 것은 장한규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동생 장혁규(張赫奎)도 한의사이고 혁규의 아들 장익준(張益俊, 1886~1931)도 1914년에 의생 시험에 합격하여 애월읍 구엄리에 수보의원(壽保醫院)을 개업 운영한 바 있다.

해설

장한규를 제외한 6명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중 박치순(朴致順)이라는 인물은 애월읍 꼭지리 출신으로 칠성골에 살았으며 1947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회 회장을 지내고 제주유도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며, 김창언(金昌彦)이라는 인물은 제주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면서 1919년 5월 서울에서 김창규가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러 내도했을 때, 독립희생회라는 비밀조직을 만들고 독립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임시정부로 보냈다가 구속된 인물과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하기에 동일인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제두(崔濟斗)는 제주시 출신이며 한의사이다. 홍종하(洪鍾河)는 행적 미상인 인물이며, 고창민(高昌珉)은 청년운동을 했던 기독교인이다. 임성윤(林聖潤)은 애월읍 하가리 출신이며 관덕정이며 관덕정 앞에서 사법서사를 하며 기독교 장로로 활동하였다.





2-3

신선을 만나러 가는 곳, 방선문

제주 방선문(訪仙門)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 '신선이 사는 영산, 즉 한라산으로 오르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명소로서 영주 12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려진 경승지이다.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계가 잘 조화된 경관지여서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며, 지금도 이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종천길 39-1(오라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4일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은 15,353㎡에 달하며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 방선문 복면 }

방선문은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인 한천 상류에 위치한 계곡이다. 방선문 복면은 이 방선문 계곡의 중간 지점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킨다. 한라산 북쪽 기슭의 물이 여기로 다 흘러들어온다. 앞뒤가 트였고 위에는 지붕이 덮여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큰 대문을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앞뒤가 트여 있는 빈 공간은 장정 십여 명이 앉아 놀 수 있을 정도로 넓다.

- | | |
|--------------|--------------|
| 01 목사 심원택 일행 | 02 임귀춘 일행 |
| 03 판관 이의겸 | 04 박종민 |
| 05 최운숙 일행 | 06 목사 안경운 일행 |
| 07 목사 김몽규 일행 | 08 박창봉 |
| 09 김봉길 일행 | 10 목사 박성협 일행 |
| 11 목사 한정운 | 12 곽평호 |
| 13 목사 홍중정 | 14 이명준 |
| 15 홍태두 일행 | 16 윤구연 일행 |
| 17 윤부연 일행 | 18 박진문 일행 |
| 19 판관 강인호 | 20 목사 송구호 일행 |
| 21 임태유 | 22 최익현 일행 |
- 인물미상 : 고창두, 홍평규



윤제홍 <방선문(訪仙門)>

1829, 지본수묵, 개인소장

방선문의 빼어난 절경과 흐드러지던 철쭉을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관료, 시인, 묵객들이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는 제명, 거기다 풍류가 곁들여진 시까지 제명한 흔적들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방선문의 절경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서 윤제홍의 그림은 더욱 이채롭다고 하겠다. 방선문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그림 상단에 있는 화제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원문번역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김익수 역

내가 영악(瀛岳: 한라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정(竹亭: 고다시, 죽성마을)의 촌집에서 자고 등영구(登瀛邱: '들령기'의 한문표기)라 하는 곳을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들 가운데서 바라보니 다만 풀무더기에서 발두둑 틈으로 언뜻 보이기에 말에서 내려 굽어보았다. 큰 골짜기에 땅바닥에 물과 돌이 꾸불꾸불 휘돌아 들어가, 사람의 정신이 눈이 휘둥그레져 어질어질했다. 지팡이 잡고 비탈을 따라 부지런히 물가로 내려가 널린 돌을 밟으며 몇 리를 갔더니, 갑자기 무지개가 가로 꽃힌 듯이 보이는데, 대략 마치 화성(華城: 수원)의 장안문(長安門)과 팔달문(八達門)과 같이 높이가 4, 5丈(丈)이고 두께는 수백 자(尺)나 되며, 이어진 것이 일궁(一弓) 거리쯤이었다. 뒤쪽은 모두가 갈아놓은 솥돌이나 항아리 모양으로 비춰볼 수 있겠다. 크고 작은 우물웅덩이 사이에 시렁들이 어지럽지 않게 비늘처럼 봉합된 곳에 먹물을 발라 붓글을 찍어 새겨놓은 듯한데 어그러져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 이름이 방선문(訪仙門)이었다. 방(訪)은 오히려 선(仙)과 먼 것 같아, 나는 고쳐서 입선문(入仙門)이라 말하겠다. 건너편 뛰어난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이름 지어 능소(凌霄)라고 하였다. 방선문의 맨 한가운데 돌기둥(石柱)이 푸르듯 시커먼 색인데 높이가 방선문 높이만큼 하기에 나는 이름 지어 경천주(擎天柱: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라고 하였다. 금상(琴床), 명주(茗廚), 시담(詩榻), 경상(經床), 생학대(笙鶴台), 백운계(白雲溪), 연주담(蓮舟潭)

이라고 말할 만한데, 뒤에 호사자들이 혹 그렇게 돌에 새길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산중에 간혹 석문(石門)이 있긴 하지만, 남북으로 산의 물이 통과하면서 해와 달이 밝게 비치어 마치 수정궁(水精宮)에 들어간 듯한 것을 거의 옛 사람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방선문 꼭대기의 풀 무더기는 모두 봄 동백이었는데, 꽃필 때 와서 구경하면 당연히 비단 걸친 천중(天衆:하늘 위의 대중)들이 향기 나는 저자에 들어간 듯 하리라.

내가 유람한 곳으로 구경 다닌 것이 이 영주(瀛洲)만이 아니라, 구경할 만한 곳이 몇 백 곳이었는지 모른다. 다만 수묵(水墨)으로 그려 뒷사람들에게 밟아보지 못한 자취를 알리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두 눈이 침침하고 손 떨림이 더욱 심해져 생각은 가졌지만 이루지 못한지가 오래되었다.

기축(己丑) 여름 내가 옛 마을에서 어릴 적 사귀었던 전은(田隱) 이사종(李士宗)의 아들 정열(正烈)이 마침 풍담(楓潭)초당을 찾아와 거듭 나의 그림을 얻어다가 집에 간직하고 자손에게 남겨주어 세상에 내 그림을 보배로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돌이켜보면 어찌 후세에 전하여 세상에서 좋은 감정으로 특별히 중히 여길 만하겠는가 마는, 네 폭을 작성하여 주는데, 전은(田隱)이 보고나면 얻으려는 것으로는 반드시 섭섭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학산초인(鶴山樵人) 윤제홍(尹濟弘)
경도(景道) 66세 옹(翁)이 씀

윤제홍은 63세 때인 1825년에 경차관으로 제주에 갔다가 한라산과 방선문을 찾았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간 후, 과거를 회상하며 이 그림을 그렸다. 그의 화제에는 방선문 등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죽성촌(고다시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방선문으로 향하는데 말에서 내린 이후부터 방선문으로 들어가는 들머리의 풍경과 들어가면서 보이는 경관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몇 리를 걸어 드디어 어렵게 방선문의 절경과 마주한다.

“무지개다리가 가로 꽃혔는데 그 크기가 대략 화성 장안문과 팔달문의 높이와 같은데 높이가 대략 너 다섯 길이고 두께가 수 백 척이나 된다.”

虹蜺橫插 大略如華城之長安八達高 幾四五丈 厚爲數百尺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방선문을 감상하고 난 뒤 방선문이라는 이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찾는다는 의미의 방(訪)이라는 글자가 오히려 신선으로부터 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방(訪)은 인간이 직접 신선의 세계[仙界]를 찾아간다는 주관적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입(入)은 신선의 세계[仙界] 입구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선계가 이미 자연에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입선문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연을 그리며 천하절경들을 두루 유람했던 화가의 시점에서 인간의 행위보다 자연의 존재를 우선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덧붙여 그는 이런 절경에 금상(琴床), 명주(茗廚), 시탑(詩榻), 경상(經床), 생학대(笙鶴台), 백운계(白雲溪), 연주담(蓮舟潭)이라고 여러 이름들을 제안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자기처럼 느껴 그렇게 제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점도 재미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가 방선문을 찾았던 시기에는 ‘들렁기’ 가운데에 그 높이와 나란한 돌기둥이 있었으며, 그는 여기에도 자신이 직접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이라는 의미의 ‘경천주(擎天柱)’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이 이름 역시 들렁기 바위를 하늘 즉 궁륭(穹窿)으로 상징하고 그 밑에 받치고 있는 돌기둥을 경천주라고 한 것이다. 땅의 기운을 상징하던 경천주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유실되어 찾을 길이 없다.

01

• 목사 심원택 일행



牧使 沈遠澤 軍官 朴永漢 沈相俊 朴章浩 丁亥 四月 二十日
又西 沈樂中

인물

심원택(沈遠澤, 생몰년 미상)은 1886년 6월 도입하였다가 1888년 떠났다. 1887년(고종 24) 8월 17일 '전북을 떠던 일본 배 6척이 제주 모슬포에 정박하여 약탈을 행하다'는 기사에 따르면 가파도에 일본어선이 하륙하여 마을에서 닭, 돼지 등을 약탈하던 중에 주민인 이만송을 살해하고, 김성만, 이홍복 등을 상해했다. 또한 기찰장 문재욱을 협박하여 화해문서를 강권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장계로 조정과 일본공사의 담판 등 처리할 일을 보고하였다.

심락중(沈樂中, 생몰년 미상)은 행적 미상이다. 조선 후기 학자이면서 선공감역 등을 지내다가 모함을 받아 홍천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은거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며 후진을 교도하던 유신환(兪莘煥)이 쓴 「봉서집(鳳棲集)」에 그에게 주는 편지가 보인다. 우서(又西)는 그의 호로 보인다.

해설

방선문에는 부임한 다음해인 1887년(정해) 4월에 갔으며 동행한 막료 박영한(朴永漢)은 금위영 초관을 지낸 인물이며, 박장호는 미상이다.

02. 임귀춘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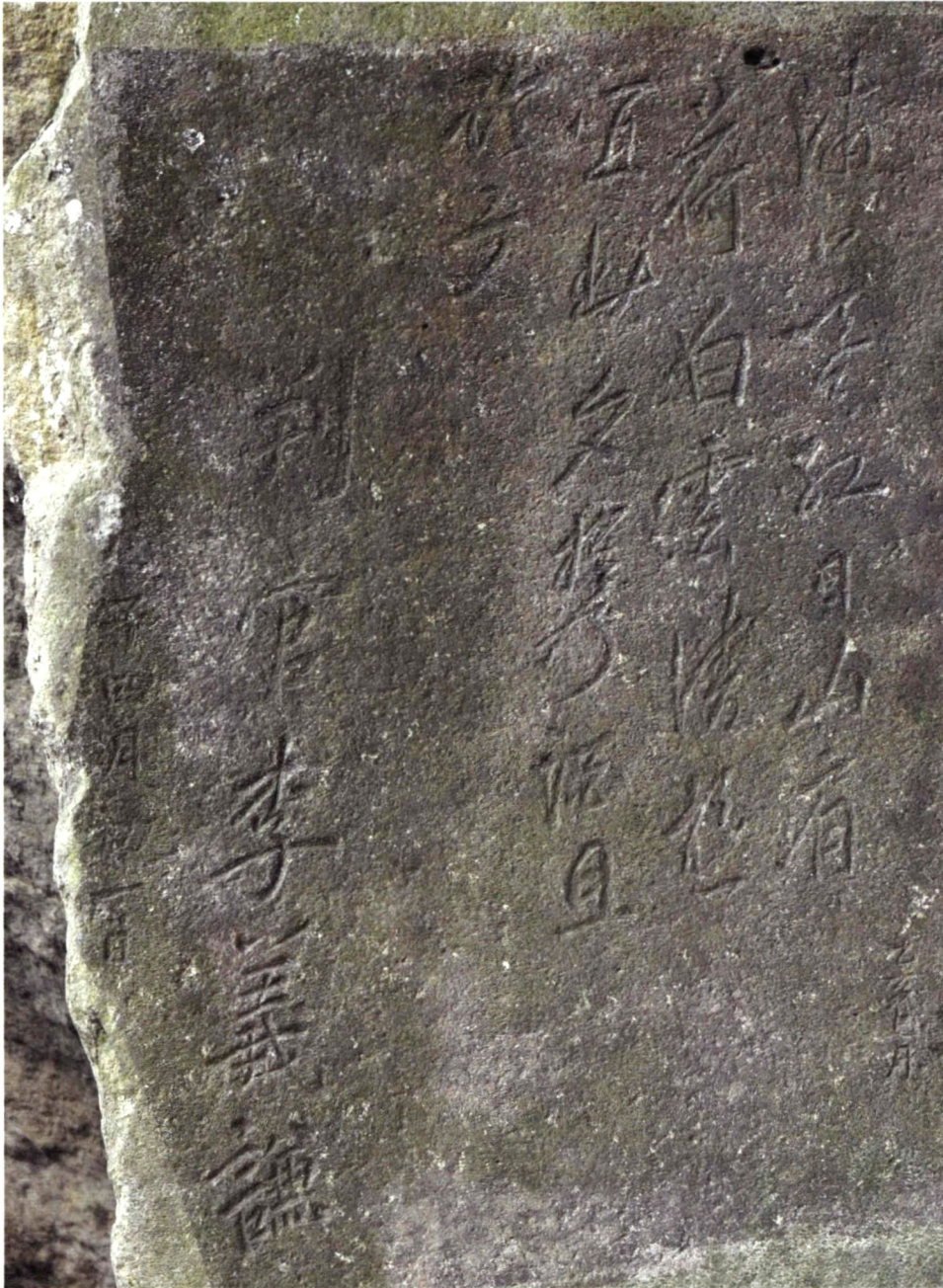


林貴春 丁志升 南得遠

해설

위의 인물들은 안경운(安慶運)목사의 수행군관들로서 제주로 오기 이전에 훈련도감 감관, 선전관 등을 지냈다는 내용이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보인다. 방선문에는 안경운 목사와 동 떨어진 위치에 제명되어 있는데 비해 용연의 마애명에는 안경운 목사의 수행군관들로 같이 제명되어 있다.

03 판관 이의겸



浦口吞紅日 山肩荷白雲 清遊宜此夕 携酒且論文
判官 李義謙 戊子四月初一日

인물

이의겸(李義謙)은 순조 때 제주판관이다. 1827년 도입 당시 목사 이행교가 탐음우광(貪淫愚狂)하다 하여 탄핵하여 파직되었다.

해설

제영은 도입한 다음 해 1828년 4월 1일(戊子四月初一日)에 하였다. 행초로 쓰여 있는데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 해는 포구로 떨어지고	浦口吞紅日
산허리엔 흰 구름 걸쳐있네.	山肩荷白雲
이런 저녁엔 청아하게 놀기에 마땅하니	清遊宜此夕
술 가지고 가 문장이나 논해보세.	携酒且論文

포구와 산허리, 홍과 백, 해와 구름이 절묘하게 대비되면서 저녁 무렵 방선문의 풍경이 탁월하게 묘사되었다. 방선문에 제영된 여타의 다른 시들이 개(開)와 래(來), 즉 회운(灰韻)으로 차운하여 단지 계곡의 풍경만을 묘사한데 비해 이 시는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산 위쪽과 바다 쪽을 동시에 조망하는 시점이 이색적이며 묘사된 풍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워 매우 빼어나다. 전과 결구에서도 맑게 노니는 선비의 풍모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 시의 주인공인 판관 이의겸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목사 이행교(李行教)로부터 탐음우광(貪淫愚狂)하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았으니 ‘글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동양의 전통적 인식에 해석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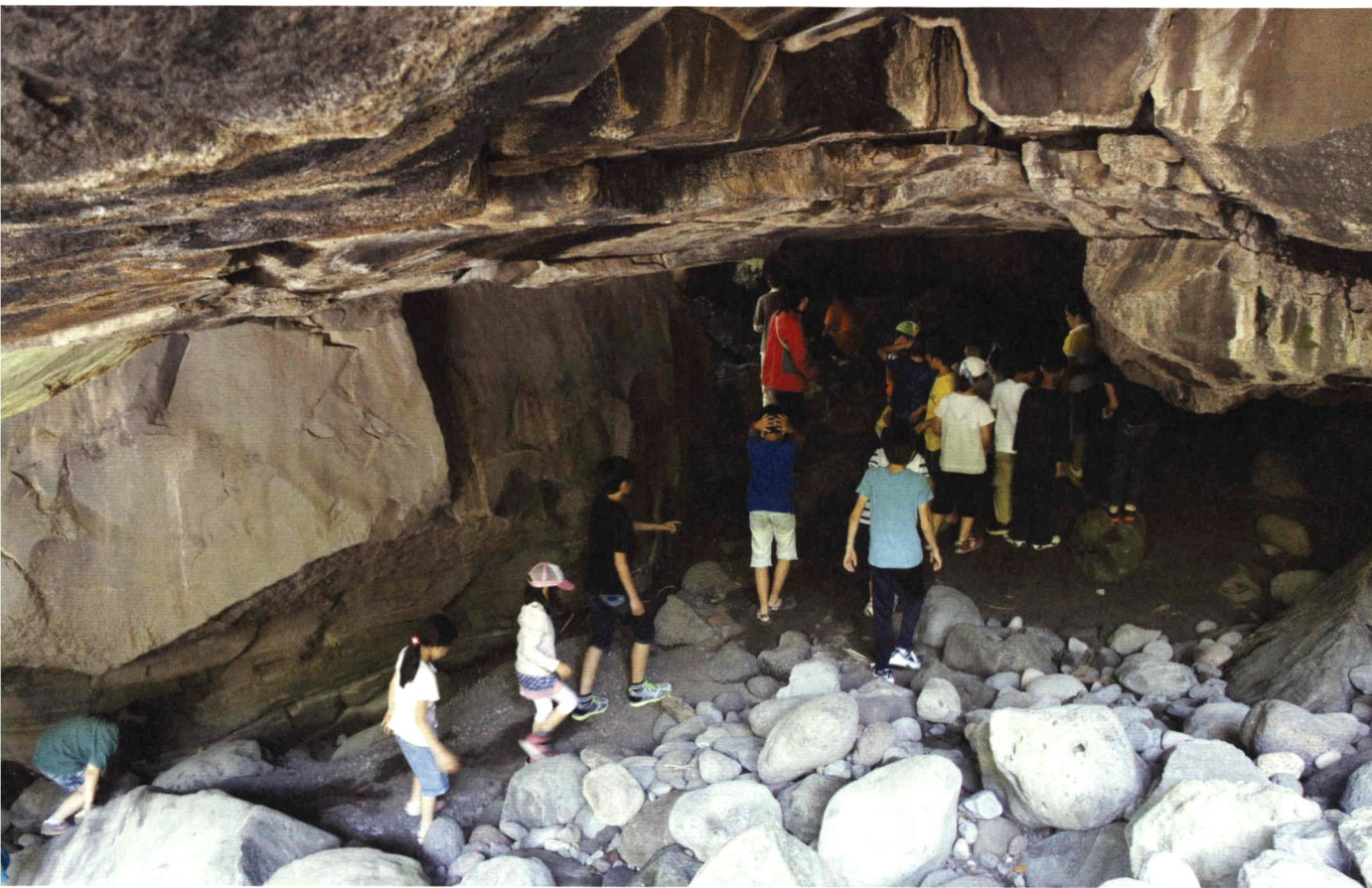
04 • 박종민



朴宗珉 乙亥巳月

해설

박종민(朴宗珉)은 행적미상이다. 사월(巳月)이란 사(巳)의 달이란 뜻으로, 월건(月建)의 지(地支), 곧 음력(陰曆) 4월을 음양가(陰陽家)에서 일컫는 말이다. 순조 때의 제주로 부임한 박종주 목사, 당시 정의현감인 박종림 등의 일가불이가 아닌지 의심된다.



아치형으로 둘러쳐져 있는 방선문의 굴 내부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05. 최운속 일행



審藥 張鳳徵
 倭學 劉廷禧 /
 崔雲翻 金時鎮 韓樂增 金載西 /
 鄭致福 /
 丁卯初夏 韓百增與舍弟同來此 /
 韓衡鎮 /
 洪明瑞

해설

장봉징(張鳳徵)을 제외한 여기에 제명된 인물들과 일행 여부는 모두 미상이다. 올랐던 시기는 정묘 초하(丁卯初夏)라는 표현으로 보아 1747년 음력 4월경으로 짐작된다. 이 당시 제주목사가 한억증이었다. 따라서 위쪽의 '정묘년 초여름에 한백증(韓百增)이 집안동생과 더불어 이곳에 함께 오다(韓百增與舍弟同來此 丁卯初夏)' 라고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행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글씨체와 돌림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백증(韓百增) 한락증(韓樂增)은 형제관계로 보이고, 당시 제주목사였던 한억증의 형제들로 짐작된다.

좌측의 홍명서(洪明瑞)라고 제명된 인물은 위 인물들과 관련 여부는 미상이다. 마찬가지로 정치복(鄭致福)이라는 인물 역시 관련 여부가 미상이다.

심약(審藥)이란 조선시대 동반 종구품(從九品) 외관직(外官職)이었는데 궁중에 바치는 약재(藥材)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하던 잡직(雜職)이었다. 장봉징이라는 인물은 승정원 일기 1744년(영조 20)년 9월 12일 기사에 의원으로 보인다. 그 후 2년 뒤 심약의 자격으로 제주에 와서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인물들은 미상이다. 왜학(倭學)이란 역관 중 하나이며, 외교상 통역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를 말한다. 통영과 제주에는 한학훈도(漢學訓導), 왜학훈도(倭學訓導)를 각 1명씩 배치하여 표류한 중국과 일본선원을 심문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밖에 감영(監營), 통영(統營), 수영(水營) 등에도 군사상의 목적으로 파견되었던 군사적 직함을 말한다. 심약과 왜학은 1895년 을미개혁으로 폐지되었다.

06 • 목사 안경운 일행



防禦使 安慶運 子 致範

해설

방어사(防禦使) 안경운(安慶運, 1683~?)은 영조 때의 제주 목사이다. 1740에 도입하고 1943년 3월에 사직(司直)으로 제수되어 떠났다. 1741년 태풍과 홍작으로 전세를 면해주었으며, 진휼곡 5천석으로 기민 구휼에 힘썼다. 1743년 운주당을 중수하였다.

주로 구휼에 관련된 일들로 기록에 보인다. 제명은 막료들의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과 아들 치범(致範)의 이름만 새겨놓았다. 이 당시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인 소빙기(대략 1450~1850년)였으므로 유독 기민과 구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아울러 도서지역 구휼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나리포에 관한 언급도 종종 보인다.

【나리포창(羅里鋪倉)】

무려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1670년(현종 11·경술년)과 1671년(현종 12·신해년)에 연이어 발생한 경신대기근 등을 통해 17·18세기 조선이 맞닥뜨린 대재앙의 원인은 바로 소빙기 현상에 동반한 기후변화 때문이었다. 이것은 비단 조선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비극이었다.

이런 여파로 인해 조선 숙종대에서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특히 제주에도 극심한 재앙이 찾아들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기근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면서 각종 기록에 제주도민에 대한 구휼의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숙종은 나리포를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게끔 하였다. 진휼청에서 공주와 연기(燕岐)의 접경지역에 나리포를 설치하여 선박을 많이 두어 인근지방에서 곡물을 매입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런 제주에 대한 숙종의 특별한 배려에 감동한 제주도민들은 숙종이 서거하자 스스로 자원해서 숙종의 산역(山役)에 참여하였다. 이런 제주도민들의 반응에 그의 아들인 영조, 그리고 영조의 손자인 정조에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1722년(경종 2)부터는 곡물이 풍족하지 못한 제주도민을 위하여 보다 가까운 전라도 임피(臨陂)로 창고를 옮기고, 별장(別將)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고 특히 영조는 제주도민의 진휼에 힘을 써서 곡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특산물인 갯[涼臺], 어물과 미역[魚藪] 등을 충청도와 전라도의 각 고을에 분정하게 하였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별장의 부정과 탐학이 빈번하여 군산첨사(群山僉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으나, 폐단이 여전하여 전라감사가 직접 관장하게 하였다. 1786년(정조 10) 제주도를 내왕하는 선박의 해난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칠산도(七山島) 근해의 해로가 매우 험난하여 나주 제민창(濟民倉)으로 합병하여 운영하다가 1794년 강진으로 옮겼다.

07 • 목사 김몽규 일행



瀛洲伯 金夢燧 子 肅基 郁基 軍官 辛一東 鄭彦佐 金得基
鄭東羽 崔倬 李宗芳 洪慎健 審藥 李禧大 甲戌 首夏

인물

김몽규(金夢燧, 생몰년 미상)은 영조 때의 제주목사 [瀛洲伯]이다. 1752년 12월 도입하고 1754년 10월 임금탄신일에 축하전문에 미흡한 일로 파직되었다. 제주 옹중석(翁仲石), 즉 '돌하르방' 을 동서남문 밖에 세우고 1753에 운주당과 관덕정을 증창하였다.

해설

당시 제주관관은 박창봉(朴昌鳳)인데 둘 다 각각 갑술년(甲戌年, 1754년) 수하(首夏)와 초하(初夏)라고 동일 시기이므로 목사와 동행한 것으로 보이나 둘다 문관이므로 각각 따로 자필로 써서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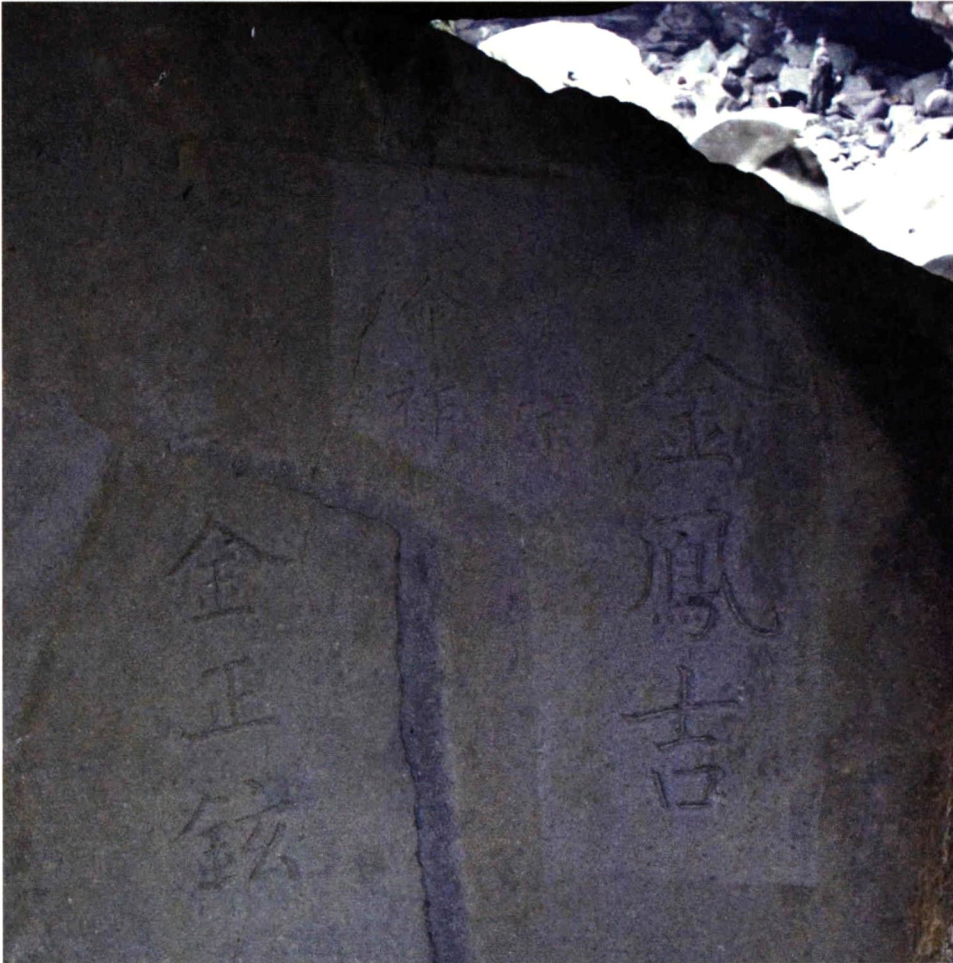


判官 朴昌鳳 甲戌初夏

해설

박창봉(朴昌鳳 1712~?) 1752년에 제주관관으로 도임하고 공마(貢馬) 분실사건으로 1754년 9월 중앙으로 압송되어 떠났다.

09 김봉길 일행



金鳳吉 成漢宗 崔命祚 金正鉉

해설

김봉길(金鳳吉, 생몰년 미상)은 1788년 제주관관으로 도임하였다가 1790년 8월에 떠났다. 성한종(成漢宗), 최명조(崔命祚), 김정현(金正鉉) 등은 미상이다.

10. 목사 박성협 일행



耽羅伯 朴聖浹 軍官 朴聖漢 趙益祥 李聖儒 姜遇周
 金載赫 韓相五 審藥 梁慶柔 甲午初夏 十月 過此

해설

박성협(朴聖浹, 1721~1774)은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73년 3월 양세현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774년 5월 현직 재임 중에 사망하였다. 무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재임때 부역을 덜어주고 빈민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을 권장하였다.

일가불이를 군관이나 막료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군관(軍官) 박성한(朴聖漢)은 박성협 목사의 일가불이로 보인다. 방선문에 올라간 때는 갑오년(1774년) '초하(初夏)' 이므로 방선문에 진달래꽃들이 가장 좋을 때이다.

11

• 목사 한정운



次壁上韻

亂石沉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祇空來
韓鼎運

해설

한정운(韓鼎運, 1741년~?)은 조선 순조 때 제주목사이다. 1807년 3월에 도입하고 1809년 1월에 떠났다. 1807년 공신정(拱辰亭)을 증건하고 1808년 봄에 동문에 있는 연상루(延祥樓)를 중수하였다. 연상루 중수상량문은 오점(吳靄)과 진사였던 김양수(金亮洙)가 각각 지었다. 제영된 시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암벽의 운에 따라 次壁上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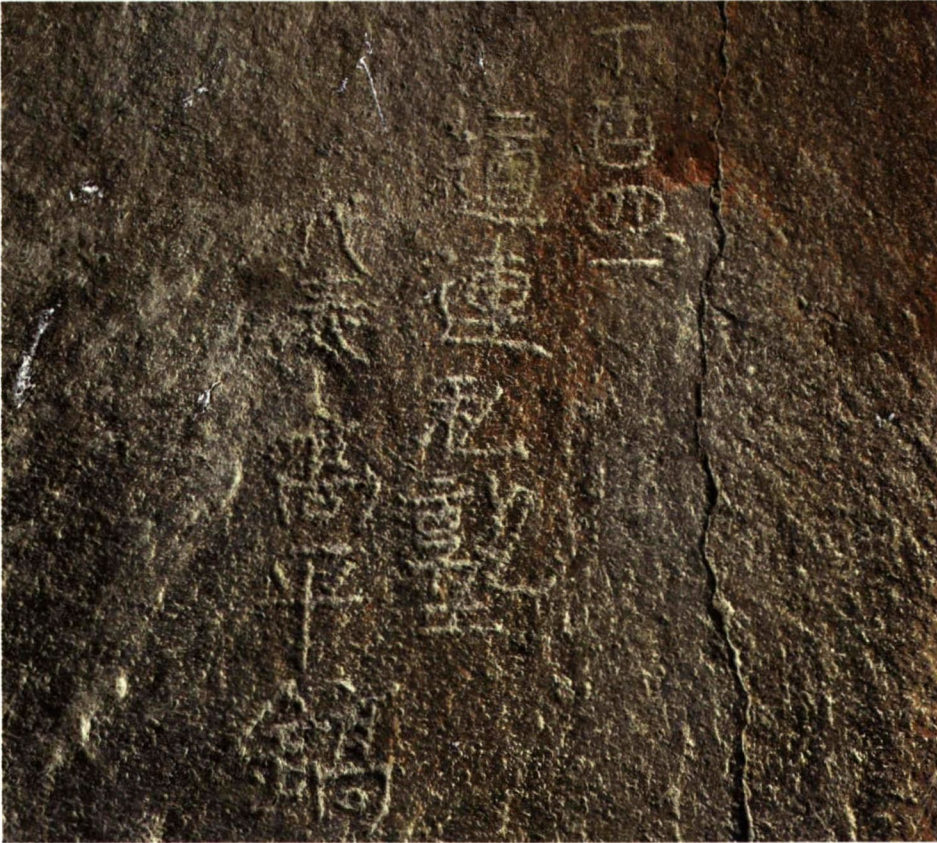
널려진 바위들은 구름 속에 잠겼고	亂石沈雲合
그윽한 꽃들은 해를 향해 피어있네.	幽花向日開
어디에도 신선은 보질 않으니	仙人不可見
그저 우리들의 헛걸음이었던가?	我輩祇空來

평성(平聲) 회(灰)로 압운(押韻)하였는데, 그 이유가 벽 위에 있는 운(韻)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가장 먼저 회운(灰韻)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가 궁금해진다. 방선문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홍중징의 운을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와 승구의 표현은 다른 시들과 풍격이 비슷하지만 전구와 결구의 재미있는 표현, 즉 신선이 방선문에 실재한다는 전제를 하고, 자신들의 이번 방문이 허탕이라고 농치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다. 그의 마애명이 또다른 산방산 암벽에도 남아있다.

〈암벽의 운에 따라 次壁上韻〉

시든풀, 절간은 적막하고	衰草山門寂
푸른숲, 석실은 텅비었네	蒼林石室空
생황과 학의 메아리 소리	似聞笙鶴響
바다 구름사이에서 들리는 듯.	來自海雲中

12. 고평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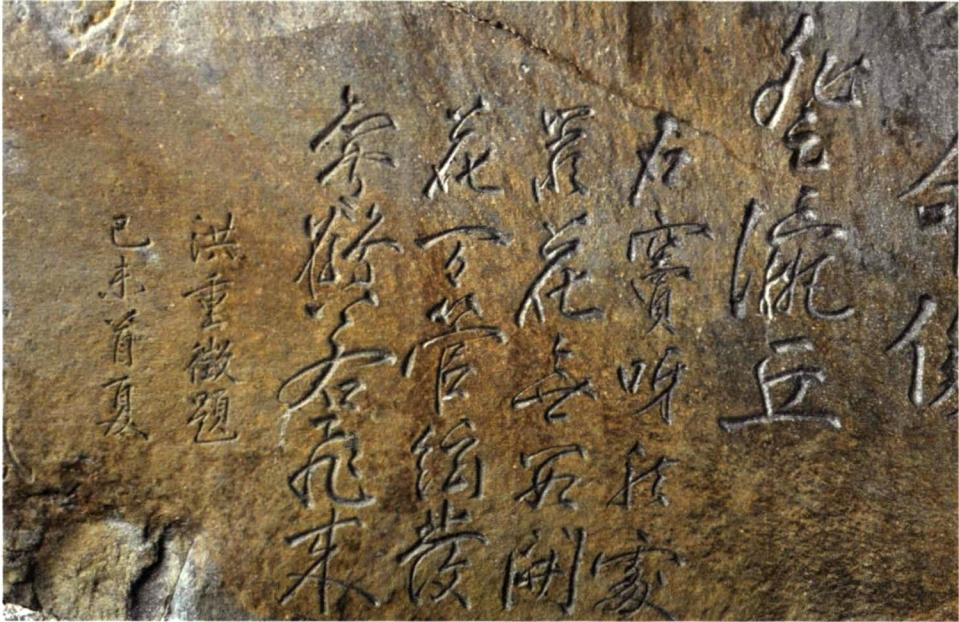


丁酉四一 道連私塾 代表 高平鎬

해설

도련(道連)은 지금의 삼양의 맨촌이고 정유(丁酉)라면 1927년이고 월일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제강점기 무렵의 방식이다. 대략 1890년대 부터 일제 강점기 초반까지 제주에 사립 학교 설립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도련사숙(道連私塾)은 도련사숙의 대표(代表) 고평호(高平鎬)에 의해 새겨진 듯 하나 미상이다. 아마 도련사숙은 이 당시의 시설로 보여진다.

1.3 • 목사 홍중징



登瀛丘

石寶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 洪重徵題
己未首夏

해설

1739년(己未年) 제주목사 홍중징(洪重徵, 1693~1772)의 시이다. 홍중징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38년 10월에 도입하고 1739년에 9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흉년에 나리포미를 들여와 구휼하였고 유생들을 예우하여 향교에 청금생안(靑衿生案)을 마련하여 토목·역사 등을 면제해 주었다. 문장에 능했고 만년에는 주역을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다. 용연에도 초서로 된 '취병담(翠屏潭)'이라는 제명이 있다. 방선문에 있는 대부분의 시가 이 시의 운인 <開, 來>의 회운(灰韻)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등영구(登瀛丘)〉

돌구멍 입 크게 벌린 이곳엔
바위사이로 꽃들 흐드러졌네.
꽃속에서 음악소리 막 울리자
학이 울며 날아드는 것 같구나.

石寶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鳴鶴若飛來

【화운/차운】

한시(漢詩)에서 차운(次韻) 또는 화운(和韻)은 대상이 되는 시의 운(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이다. 그 내부 범주에는 상대가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시중에 넣어 시를 짓는 것, 또는 화운(和韻)의 일종으로 남이 지은 시의 운자를 그대로 달되 선후의 순서까지도 원작과 같이 짓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① **의운(依韻)** : 압운하려는 운이 창화하려는 작품의 운자와 동일한 운부(韻部)에 있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원자(原字)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 ② **용운(用韻)** : 원시에 있는 운자를 사용하지만, 순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 ③ **차운(次韻)** : 보운(步韻)이라고도 부른다. 화답(和答詩) 형식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경우로서, 화운하려는 작품의 원운과 원자와 동일해야 할뿐만 아니라 순차(順次)까지도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운은 여기에 속한다.

남조(南朝)시대에는 차운하여 시를 짓는 관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차운시는 일반적으로 제목에 창작의 경위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제목이 길어지거나, 또는 서문이 붙는다. 율시가 지배했던 당시(唐詩)보다는, 문인간의 사상적 교류를 중시했던 송대에 이러한 방식이 대대적으로 유행하였다. 동기면에서 대개 기념적 의미를 지닌 것이 많다. 소식(蘇軾, 1037~1101)은 도연명의 시에 모두 화답한 화도시(和陶詩)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황정건 역시 대량의 화답시를 썼는데, 이는 당시 문인들의 일반적 풍조였다.

한편 주어진 글자의 제한을 받는 화운 및 차운시는 문자적 재미를 느끼게는 하지만,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토로에는 적합하지 않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남송의 엄우(嚴羽)는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정감의 소실을 우려하며 문자(文字)로써 시를 짓는 송시의 경향을 비판하기도 했다

출처 :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14 • 이명준



李命俊

해설

이명준(李命俊, 생몰년 미상)은 조선 정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86년 4월에 도임하고 1788년 3월에 신병으로 떠났다. 다산 정약용이 이명준을 칭찬하는 글이 기록에 보인다. 당시의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 특히 정의현의 기근이 극심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구휼해서 그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5 ● 홍태두 일행



乙亥初夏 防禦使 洪泰斗 軍官 李閔樞 崔濬文 判官 安世潤

해설

1755년(乙亥年) 초하(初夏)에 방어사(防禦使) 홍태두(洪泰斗) 일행의 마애명이다. 홍태두(洪泰斗, 생물년 미상)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54년 10월 김몽규의 후임으로 도입하고 1756년 윤 9월에 떠났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기민을 구휼하는데 힘썼으며 제주향교를 남문 밖 광양으로 이군하였다.

다른 곳에 박진문 일행의 제명이 보이는데 그 중 홍구서는 홍태두 목사의 아들이다. 따라서 이 두 일행은 같이 방선문에 오른 듯 보이며, 아마 공식적인 인물들과 구분하기 위해 아들의 일행들은 따로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방어사】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 서반 외관직으로 경기도(京畿道)·강원도(江原道)·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의 요지를 방어(防禦)하기 위하여 두었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從二品)의 다음 직위(職位)이다. 목사(牧使)·부사(府使)·변장(邊將)이 겸임하였다.

인조(仁祖) 때 경기도 1원, 전라도 1원, 강원도 1원, 함경도 1원, 평안도 2원을 두었다. 경기도는 파주목사(坡州牧使)·장덕부사(長德府使)·광주부윤(廣州府尹)·수원부사(水原府使) 중에서 겸하고, 전라도는 제주목사(濟州牧使)가 겸하였다. 강원도는 철원부사(鐵原府使)가 겸하고, 함경도는 길주목사(吉州牧使)·성진첨사(城津僉使) 중에서 겸하였으며, 평안도는 창성부사와 강계부사가 겸하였다. 정식 명칭은 수군방어사와 병마방어사였으나, 전원이 지방수령을 겸임했으므로 겸방어사(兼防禦使)라고도 했다. 병마방어사는 1566년(명종 21) 광주부사가 경기병마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고, 수군방어사는 1642년(인조 20) 선천부사가 평안수군방어사를 겸한 것이 처음이었다. 방어사는 별도로 군비를 갖추고 파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행정 체제에 무관을 보내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제주목사는 행정적 기능 외에 군사적인 기능 수행이 항상 강조되어, 반드시 군사적인 직책이 겸임되었다. 군사적인 명칭의 변화에 따라 제주목사는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주로 만호(萬戶)·안무사(按撫使)의 직책을 겸하였다. 또 1466년(세조 12)부터는 병마수군절제사라 하였고, 1638년(인조 16)에는 이를 고쳐 방어사(防禦使)라 했으며, 1642년(인조 20)에는 절제사(節制使), 1713년(숙종 39) 이후에는 다시 방어사란 직책이 겸임되었다. 이들은 명칭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본질적으로 군직(軍職)의 겸임이라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제주목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문·무관을 번갈아 임용하거나, 목사가 무관이면 부관격인 판관은 문관으로 임용함으로써 문·무의 조화를 이루어 행정을 담당해가도록 배려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무관 수령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즉, 왜구들이 주요 약탈 대상지역인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어서,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본래 목사의 품계는 정3품에서도 당하관에 해당하는 통훈대부·어모장군이다. 그러나 제주목사는 정3품에서도 당상관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절충장군으로 주로 임명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목사가 단지 제주목의 소관 업무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과 제주 지역에 해당하는 전라도관찰사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사보다 비중을 두고 임명하였던 것이다. 제주목사 명칭 앞에 ‘행(行)’ 자가 붙어 행제주목사(行濟州牧使)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제주목사를 비롯한 수령의 임기는 고려 시대의 경우 3년이 원칙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왕대에 따라 임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즉, 조선 개국 초에는 30개월이었다가, 1423년(세종 5) 7월에 구임법(久任法)이 실시되면서 그 후 수령의 임기는 60개월(1,800일)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상관 수령 및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는 지역의 수령 임기는 30개월(900일)이었다. 따라서 제주목사나 정의현감·대정현감의 임기는 30개월이었다. 한편, 조선 시대에는 관리 임용에 엄격하게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제주 출신이 제주목사로 임명될 수 없었다. 제주목사 재임자 중에 제주 출신이 없는 것은 그러한 연유이며, 제주판관이 나 정의현감·대정현감의 경우는 예외적인 몇 사례가 있을 뿐이다.



16 • 윤구연 일행



瀛州伯尹九淵

軍官 閔震 柳敏章 梁泰重 柳獻徵 張紀龍

인물

윤구연(尹九淵, 생몰년 미상)은 조선 영조 때 제주목사이다. 1751년 도입해서 1752년 12월에 떠났다. 재임 중 백성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물어서 요역을 덜어주고 이속들의 토색질을 금지하게끔 하였다.

해설

윤구연 목사의 제명과 곁에 있는 윤부연 일행들의 제명은 관련 있어 보인다. 돌립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윤부연 일행의 방선문을 찾았던 간지(干支)로 판단해보면 임신년(1752)인데 이 당시 제주목사가 윤구연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수행원들과 따로 제명한 듯 보인다.

17

• 윤부연 일행



湖西過客 尹溥淵 李有實 壬申 孟春 漢陽過客 丁天樞

해설

전부 미상의 인물들이다. 과객(過客)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제주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던 인물들로 보인다.

18 • 박진문 일행



朴振文 權燮 洪九瑞 朴萬和 安根

해설

박진문(朴振文, 생몰년 미상)은 영조 1년 을사(1725년) 7월 25일 승정원일기 기사에 유봉휘(柳鳳輝) 등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는 충청도 유학 박치룡(朴致龍) 등의 연명 상소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홍태두 목사의 막료의 자격으로 제주로 들어왔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홍구서(洪九瑞)는 1722년(경종 2)에 태어났으며 호는 사룡(士龍)이다. 40세가 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였고 통례, 지평, 정언, 장령 등을 두루 거쳤으며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홍태두를 따라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 시기를 추정해보면 제주로 왔던 시기는 과거에 급제하기 전인 34세쯤이 될 것이다. 1755년 제주향교를 남문 밖 광양 땅으로 이건하였는데 이때 상량문을 지은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나머지 권섭(權燮), 박만화(朴萬和), 안근(安根) 등은 행적 미상이지만 박진문과 함께 그의 방선문을 찾은 것으로 보아 막료들이거나 내륙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인물들로 추정된다.

19

• 판관 강인호



判官 康仁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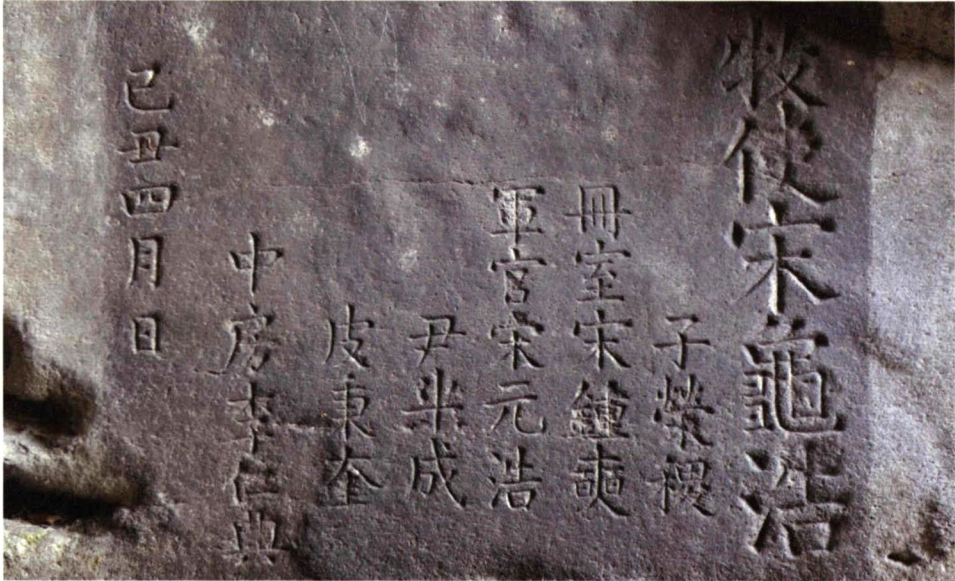
인물

강인호(康仁鎬, 1863~1899)는 고종 때 제주판관이다. 제주인으로서 무과에 급제하고 제주판관을 두 번 지냈으며 정의군수를 지냈다. 당시 목사로는 송구호, 이병휘였다. 승정원일기의 1889년(고종 26)년 9월 2일의 기록에 제주판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보인다.

해설

당시 제주목사였던 송구호 일행의 제명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올랐으리라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목사의 일행과 동행한 판관인 경우 같이 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나 따로 제명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20 • 목사 송구호 일행



牧使 宋龜浩 子 榮稷 冊室 宋鐘奭 軍官 宋元浩 尹斗成
皮秉奎 中房 李仁典 己丑 四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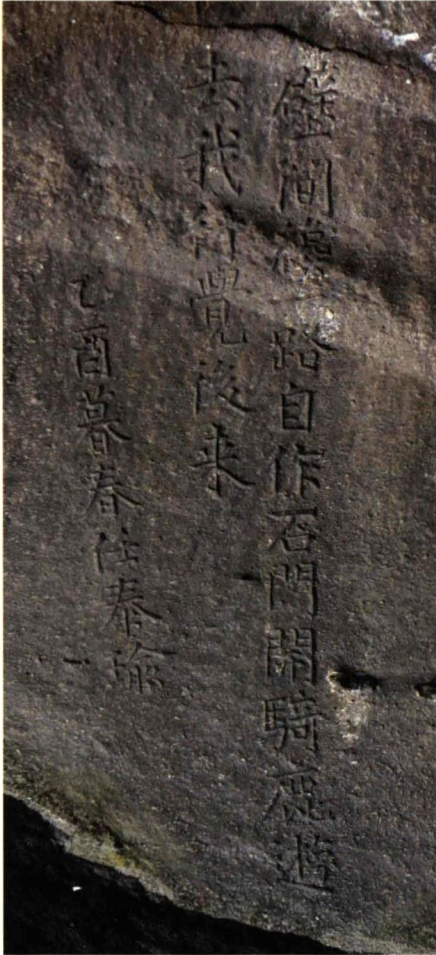
인물

송구호(宋龜浩, 생몰년 미상)는 1889년(기축)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88년 7월에 도임하고 1890년 4월에 떠났다.

해설

1889년(己丑) 4월 송구호목사가 아들과 수행원 등을 대동하고 방선문을 찾아 마에명을 남겼다. 군관(軍官) 피병규(皮秉奎)라는 인물은 실록에 보인다. 제주를 떠난 뒤 함흥감사 이원일의 비장이 되었고, 함흥지역 민란과 관련된 함흥안핵사의 공초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송원호(宋元浩)는 목사의 일가붙이로 보인다. 특이하게 이 경우는 책실(冊室)과 군관(軍官) 그리고 중방(中房)을 구분해서 제명하고 있다. 책실이란 관아의 문서를 보관하거나 수령의 자제들이 공부하던 공간을 말하는데 전하여 부임하는 수령의 자식이나 친인척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도 책실의 경우 일가붙이로 보이는 송종석(宋鐘奭)이라는 인물이다. 군관이란 공식적인 수행원이라기보다는 목사 개인의 친인척이나 막료집단이다. 표현은 막빈, 비장, 좌막, 좌료 등으로 불리거나 일의 성격에 따라 농막, 병료 등 다양하게 불린다. 중방이란 지방관아에서 수령의 개인적인 시중이나 외유 등의 일을 담당했던 지방관아의 아전을 말한다.

21 임태유



壁間纒一路 自作石門開
 騎鹿遊仙去 我行覺後來
 乙酉 暮春 任泰瑜

인물

임태유(任泰瑜)는 행적 미상이다

해설

암벽 사이 겨우 한가닥 길에
 돌문이 절로 일어나 열려있네
 사슴타고 노닐던 신선은 떠났으니
 내 이번 발걸음 늦었음을 알겠네.

壁間纒一路
 自作石門開
 騎鹿遊仙去
 我行覺後來

이 시 역시 홍중징의 시에 차운하였다. 전구와 결구는 한정운의 시와 분위기가 매우 유사하다.

22. 최익현 일행



叅判 崔益鉉 李基璫 來 乙亥

인물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조선 고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위정척사파의 거두이기도 하다.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庵)이다.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동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하면서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해 11월에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로 삼사의 탄핵을 받아 의금부에 수감되고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지방유림의 사상과 학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광무 9년 을사조약에 반대,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대마도 유배 중 단식사했다.

해설

최익현은 제주 유배 중, 1873년 유배에서 풀리자 평소 원했던 한라산을 등반하기로 한다. 제주 훈장 이기온(李基璫)과 십 여명을 동반하여 남문을 나와 방선문을 들러 산에 오른다. 이 일정을 유한라산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최익현의 제명은 방선문에는 이기온의 이름과 함께 제명되어 있으며 백록담 북쪽 안쪽 사면에도 그의 이름이 제명되어 있다. 1875년(乙亥)이라고 간지가 적혀 있으나, 백록담의 제명에는 최익현(崔益鉉) 석자만 새겨져 있으며, 방선문의 서체와 백록담의 서체는 차이가 있다.

인물 미상



吳昌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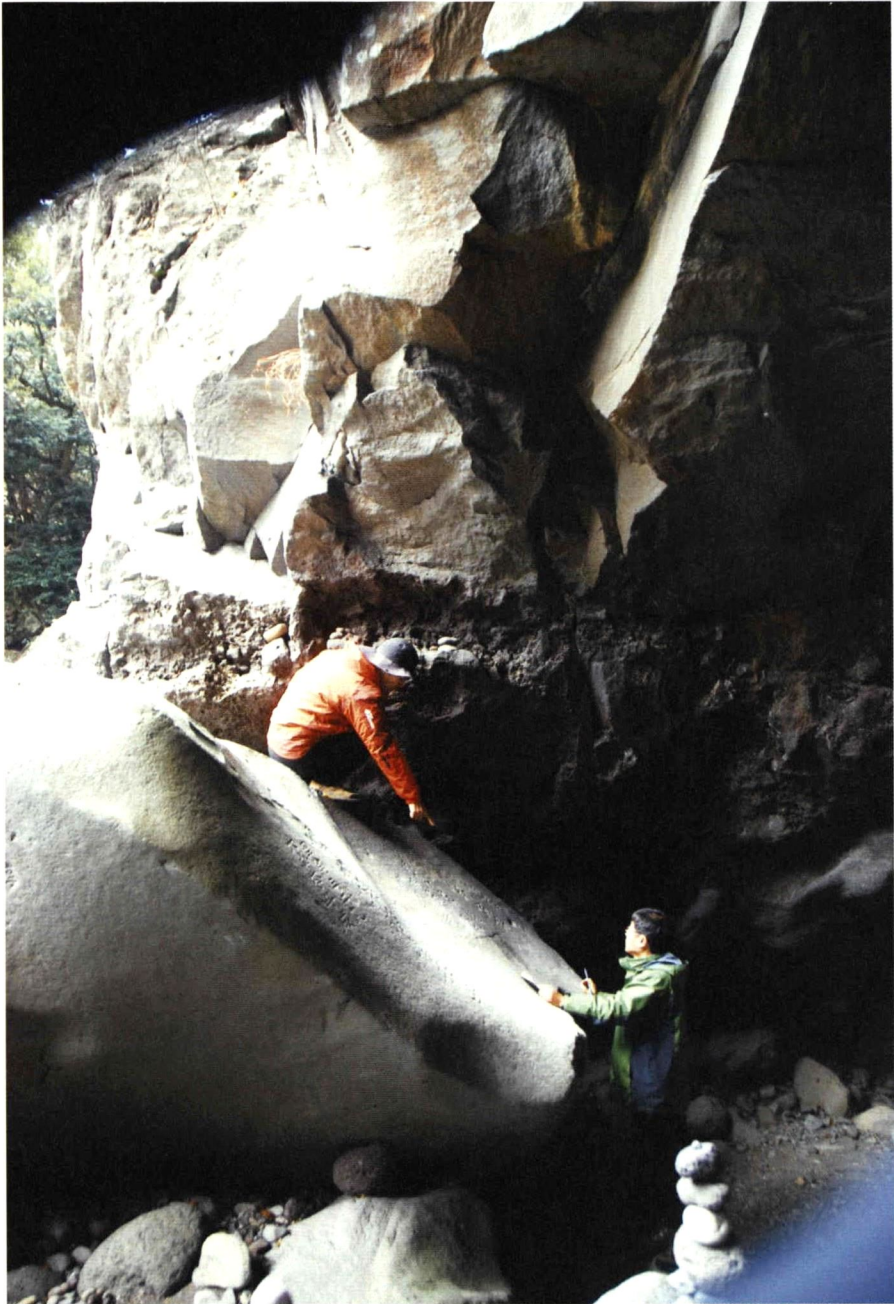
오창두(吳昌斗)는 행적 미상이다.



洪平圭

鄭東源

홍평규(洪平圭)와 정동원(鄭東源)은
행적 미상이다.



방선문의 북면과 굴내부의 마애명 조사는 하루 중 햇볕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글자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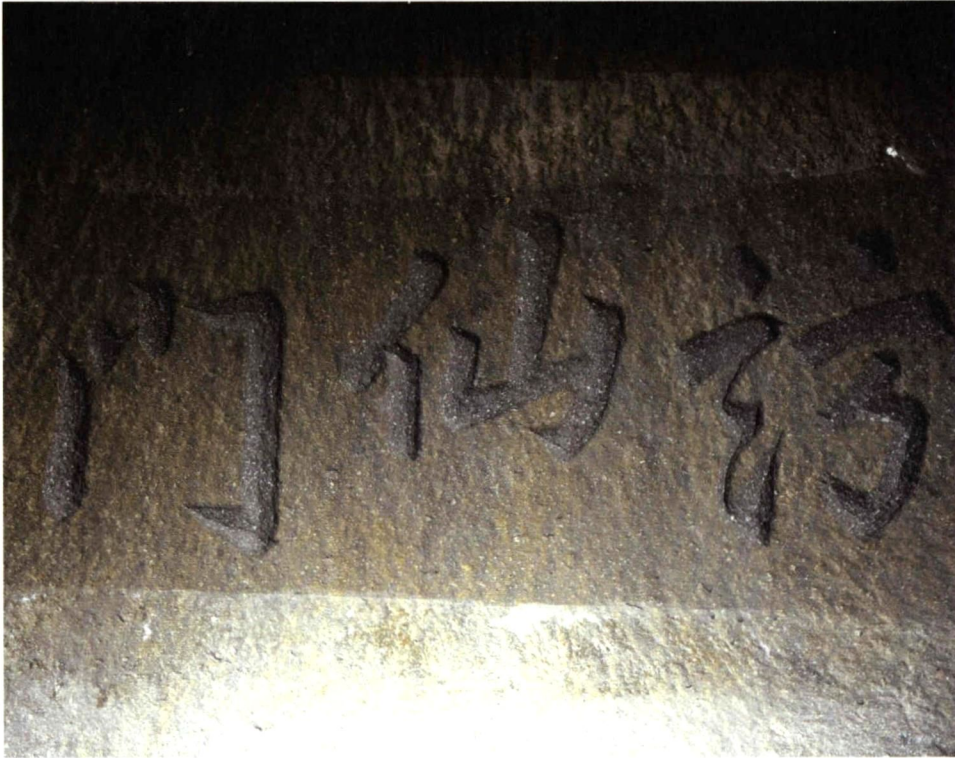


{ 방선문 굴내부 }

방선문 복면을 따라 들어오면 왼쪽에 뿔 뿔러있는 커다란 굴이 아치형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굴 내부로 들어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차지 하고 있다. 마치 신선이 머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굴 내부는 아늑하고 신비로운 곳이다. 현재 굴 내부에도 이곳을 찾았던 조선시대 선인들의 이름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 01 방선문
 - 02 윤득규 일행
 - 03 김형수
 - 04 목사 박선양 일행
 - 05 목사 홍규 일행
 - 06 목사 조희순
 - 07 목사 강면규
 - 08 목사 목인배 일행
 - 09 판관 고경준
 - 10 고기하
- 인물미상 : 김수석 등 4건

01 • 방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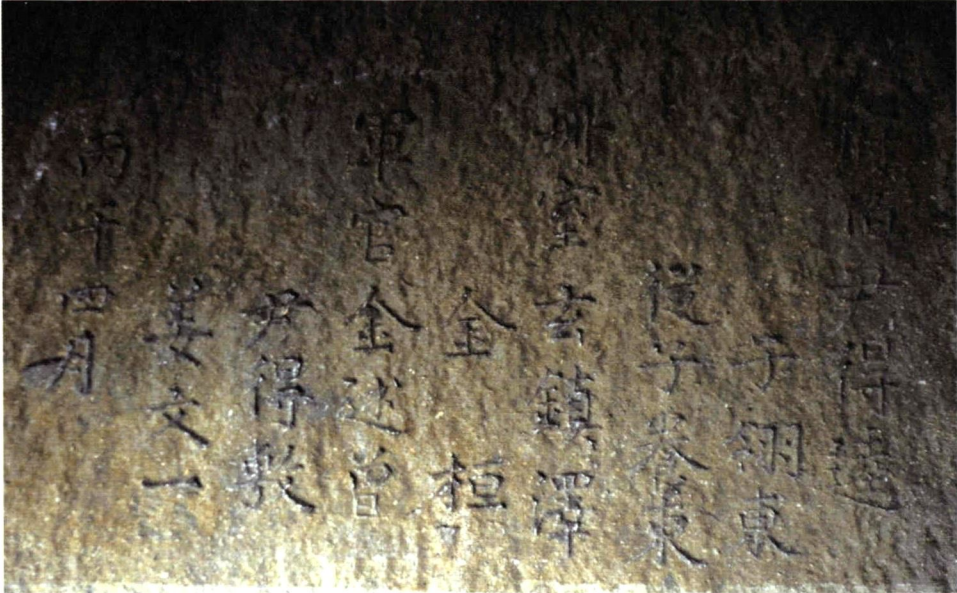


訪仙門

해설

방선문(訪仙門)은 신선이 사는 곳을 방문하는 입구라는 뜻이다. 방선문이라는 장소를 알리는 현판처럼 굴 천장에 커다랗게 새겨져 있어, 이 일대가 방선문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마애명이다. 방선문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당(唐) 시인이었던 백거이(白居易)라는 사람이 장한가(長恨歌)에 보면 방선(訪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시 구절을 인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방선문' 이라고 큰 글씨로 우측 천장에 새겨져 있는데, 이 또한 언제 누가 새겨놓았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02. 윤득규 일행



府伯 尹得達
 子 翎東
 從子 養東
 冊室 玄鎮澤 金桓
 軍官 金述曾 尹得敷 姜文一
 丙午四月

인물

윤득규(尹得達, 생몰년 미상)는 정조 때 제주목사이다. 1785년 5월 도입하고 1786년 4월 진상품 청굴이 부패된 일로 파직되어 떠났다. 부임하던 해에 조정의 지시에 의하여 횡장(橫牆)을 허물어서 마로(馬路)를 통하게 하였다.

해설

파직되어 떠나는 시기(1785년(丙午))와 방선문을 찾은 시기가 같다. 파직되어 떠나기 전에 들른 듯하다. 위 인물들 중 현진택(玄鎮澤)은 문정공(文靖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원하는 유생들의 명단에 생원(生員)으로 그의 이름이 보인다. 아들과 일가붙이, 책실, 군관들을 대동했다.

03 김형수



斷石非神斧 渾淪肇判開 白雲千萬歲 仙俗幾多來
乙酉 春 金衡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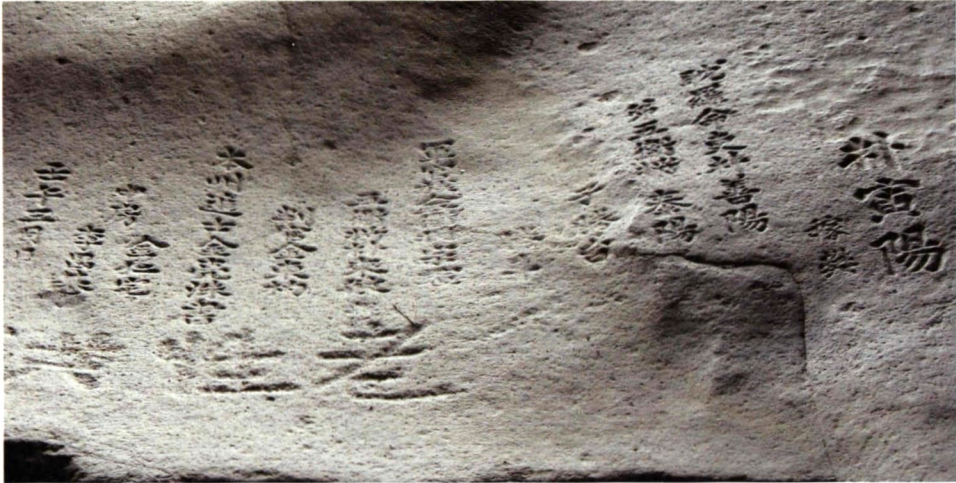
해설

돌들 깎아내린것은 신의 도끼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애초에 쪼개 열렸으리.
흰 구름만 천년만년 떠있던 사이
신선과 속인들 얼마나 들락거렸던가.

斷石非神斧
渾淪肇判開
白雲千萬歲
仙俗幾多來

을유(乙酉)년 봄 김형수(金衡秀, 생몰년 미상)의 시이다. 김형수는 방선문에 시까지 적어 놓은 것으로 보아 학식이 상당했던 인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홍중정의 운에 차운하였다. 마멸된 상태가 아주 심한 편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돼서가 아니라 아마 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에 폭우로 급류에 자주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특이하게 시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전서(篆書)의 느낌으로 적어두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04 • 목사 박선양 일행



朴寅陽
 稼樊
 耽羅命吏 朴善陽
 弟 五衛將 泰陽
 子 勝台
 勝斗
 軍官 族 金□□ 宗□
 五衛將 朴來敏
 判官 金東杓
 本州進士 金亮洙 書
 中房 金仁宅
 李昌基
 壬午三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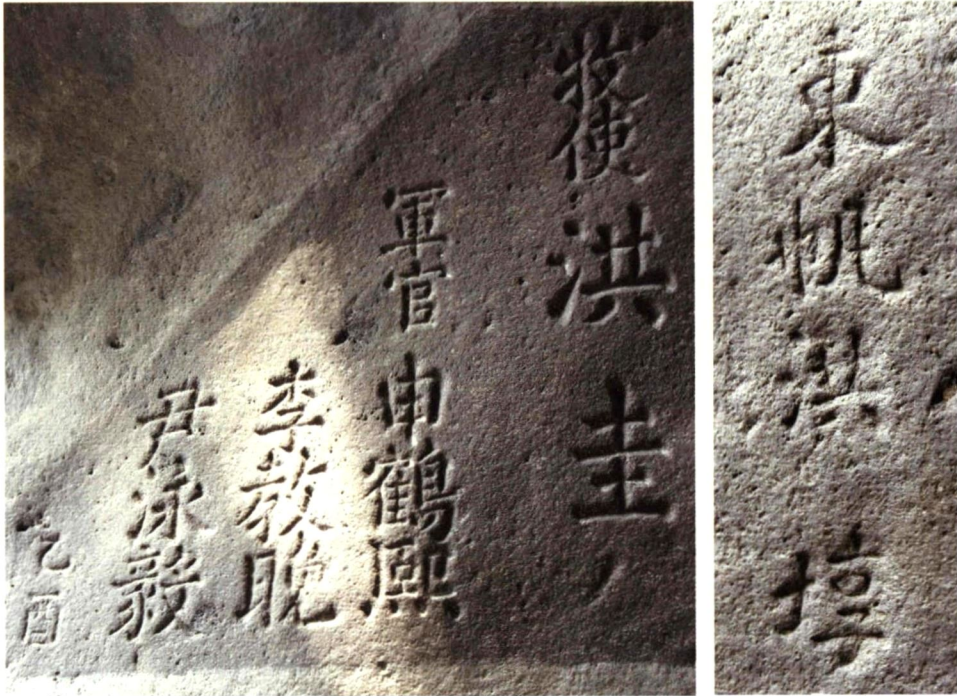
인물

박선양(朴善陽, 생몰년 미상)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81년 5월에 도임하고 1883년 5월에 떠났다. 1882년 관덕정을 중수하고 명월진을 개수하였다.

해설

자신의 형과 동생 그리고 아들들까지 대동하고 군관(軍官)과 오위장(五衛將), 판관(判官), 중방(中房)까지 대동하였다. 임오(壬午)년이면 1882년이고 삼월(음력)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본주(本州), 즉 제주인으로서 진사시에 붙은 김양수라는 인물이 참여했고, 글까지 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당시 김양수는 제주향교를 맡고 있었다. 「연상루중수기」에 보면 김양수와 박선양의 관계를 짐작케 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작은 현의 현감인 경우는 과거합격자 이외에도 자신의 막료나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을 그 자리로 추천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양수의 경우 그의 시집인 「난곡시집」이 전한다.

05 • 목사 홍규 일행



牧使 洪圭 軍官 申鶴熙 李教晚 尹泳毅 乙酉 / 東帆 洪埈

인물① 홍규

홍규(洪圭, 생몰년 미상)는 고종 때 제주목사이다. 1884년 12월에 부임하여 1886년 5월에 떠났다. 당시 제주판관은 제주인이었던 고경준이었다. 1884년 연희각을 중수하였으며 1885년 태풍으로 인한 흉작을 구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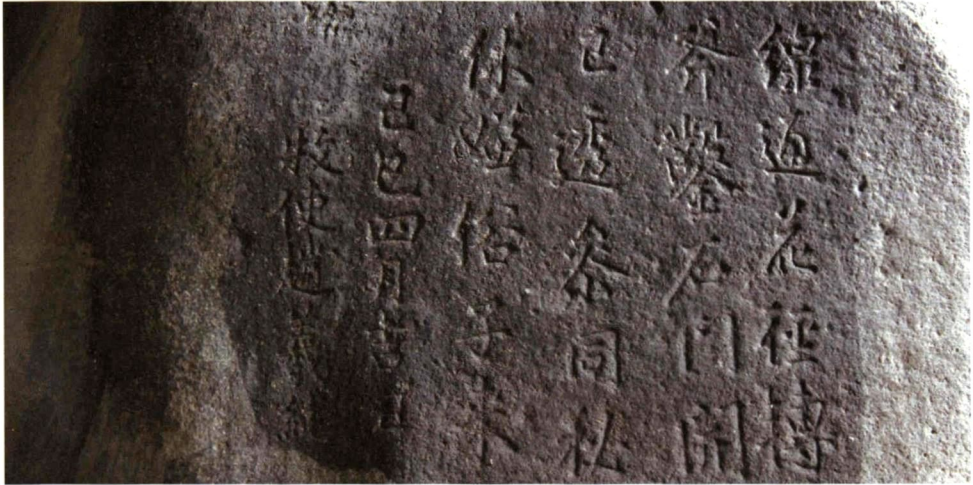
해설

방선문에 간 해가 을유(乙酉)년이므로 1885년이 된다.

인물② 홍준

홍준(洪埈)은 미상인 인물이나, 제주목사였던 홍규의 제명 곁에 있어서 그의 일가붙이로 추정된다. 동범(東帆)은 그의 호로 보인다.

06 • 목사 조희순



線通花徑轉 斧鑿石門開 已透參同秘 休嫌俗子來
 己巳 四月 吉日 牧使 趙義純

인물

조희순(趙義純, 1874~?)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68년 도입하고 1872년 5월에 떠났다. 도입 한 해 삼읍과 여러 진의 군기를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1870년 조정으로부터 쌀 2000 석과 내탕금 2000냥을 요청하여 기민들을 진휼하였으며, 남은 돈으로 서책을 매입하고 향교를 중수하였다. 임기 중에 서원철폐령에 따라서 도내의 모든 서원들을 철폐하였다.

해설

1869년(己巳年) 4월 길일(吉日) 목사 조희순(趙義純)의 시이다. 제명이 아니라 제영인 경우 보통 학식이 높은 유배인들이나 문관출신의 목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희순은 무관출신인 면서도 제영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오솔길 통해 꽃길 구비 돌아가니	線通花徑轉
도끼로 쪼갠 듯한 돌문이 열렸구나.	斧鑿石門開
이미 참동계의 비경 드러났으니	已透參同秘
속인이 찾아움을 싫어 않으니.	休嫌俗子來

참동(參同)이란 동한(東漢) 때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참동계(參同契)를 말한다. 역(易)의 이치를 근간으로 해서 유교(儒教)와 도교(道敎)를 종합한 책이다. 여기서 참동비(參同秘)는 참동계에 적혀있는 비경을 이른다. 즉, 신세계이다.

07 • 목사 강면규



牧使 姜冕奎 堂侄 鎬 軍官 李始愚 李啓奕 庚申 閏三月
晦日 題

해설

강면규(姜冕奎, 생물년 미상)는 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당질(堂侄)과 군관(軍官)들을 대동하여 1860년(경신) 윤3월에 방선문을 찾았다. 1860년 3월에 도입하고 1861년 6월에 전최(殿最) 실격으로 파직되었다.

【전최(殿最)】

관찰사(觀察使)가 수령(守令)의 치적(治績)을 조사하여 보고하던 일. 포폄(褒貶)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경관(京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대개 지방관의 경우를 일컬었다. 지방관이란 백성을 직접 대하는 관원으로서 그 잘잘못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임명과 감독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나쁜 지방관은 파면 했던 것이다.

고려 우왕(禑王) 때는 전야(田野)의 개간, 호구(戶口)의 증가, 부역의 균등, 사송(詞訟)의 간결, 도적의 근절 등 5가지 면에서 지방관의 성적을 판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이미 지방관의 고과법(考課法)을 제정하여 실적을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과 여기에 세밀한 등급을 붙여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기준은 다소 달라졌으나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찰사가 지방관의 실적을 몰래 조사하여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제주의 경우 고종 때 제주목사였던 양헌수(梁憲洙)가 당시 제주판관이었던 제주판관 백기호가 탐학하였다는 사실을 전라감영으로 올렸고 당시 전라감사였던 정건조(鄭健朝)가 전최(殿最) 즉 근무성적평정을 최하 등급을 주었으며, 이에 불복한 백기호(白基虎)가 증빙서류를 갖 추고 관아에 와서 항의하였던 사실이 승정원일기 기록에 보인다.

08 • 목사 목인배 일행



牧使睦仁培 子裕錫 甲寅年 四月 日

인물

목인배(睦仁培, 1794~?)는 조선 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본관은 사천(泗川), 호는 가은(嘉隱), 자는 치익(稚益)이다. 1829년(순조 29) 정시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1853년(철종 4) 12월 제주목사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제주성 남문 밖에 있던 사직단을 개축했다. 이듬해 가을에는 제주향교 안에 계성사(啓聖祠)를 창건하고 직접 상량문을 지었는데 이 상량문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한 젊은 인재들이 학문에 힘쓰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문과에 3명, 무과에 9명을 급제시켰다. 1855년(철종 6) 8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이후 정삼품 대사간에 올랐다. 아들 유석(裕錫)과 함께 1854년(갑인) 4월에 방선문을 찾았다.

0.9 판관 고경준



判官 高景俊

인물

고경준(高景俊, 1839~?)은 조선 고종 때의 제주판관이다. 제주인으로 1883년 성균관 전적으로 재임 중 도입하고 1885년 4월 사헌부 지평이 되어 떠났다. 문과 별시에서 을과로 급제하고, 문장력을 인정받아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고종 2년에 입시한 모든 관리들을 대상으로 「보작명(寶酌銘)」을 짓게 하여 제출하게 하였는데 거기서 최고 수작으로 뽑혀서 문장력을 중앙에 알리기도 하였다.

해설

당시 목사가 심현택, 홍규였는데 제명된 위치가 홍규의 제명 맞은편이어서 홍규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위치에 양응상의 시가 제영되어 있는데 그는 고경준의 제자이기도 하다. 양응상은 자신의 스승 고경준의 제명 뒤편에 제명한 것으로 보인다.

10. 고기하



州出身 高祈河 壬午 春

인물

고기하(高祈河)는 행적 미상이나, 출신(出身)이라는 것은 무과 초시에 입격하였으나 별다른 관직을 얻지 못했을 경우 이름 뒤에 붙이는 직역(職役)이다. 주(州)출신(出身)이라는 단어로 보아 제주인이다.

인물 미상



金洙錫 金沂鍾

김수석(金洙錫), 김기중(金沂鍾)은
행적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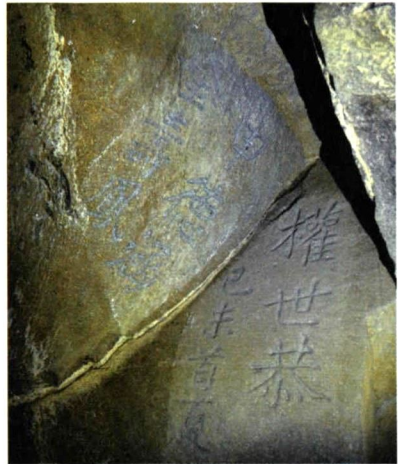
徐東源

서동원(徐東源)은 행적미상이다.



判韓學洙 韓翊相 戊申 端午

참관 한학수(判韓學洙), 한익상(韓翊相)은 갑신(戊申)년 단오(端午)날 오른
듯 한데, 행적미상이다.



權世恭 己未 首夏

申德涵 金壽鳳

권세공(權世恭)은 기미(己未)년 초여
름(首夏)에 새긴듯한데, 행적미상이다.
신덕함(申德涵)과 김수봉(金壽鳳)도
동행으로 보인다.





{ 방선문 남면 }

방선문 북면을 따라 굴내부를 지나면 남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한라산 방향으로 한천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방선문계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여기에도 많은 마애명이 새겨져 있다. 옛 선인들이 즐겨 찾고 정취를 느끼게 했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 01 관관 정동리 일행
 - 02 윤진오
 - 03 김영수 일행
 - 04 목사 이원조 일행
 - 05 목사 김윤
 - 06 황규현
 - 07 박래언 일행
 - 08 한창유
 - 09 목사 이현택 일행
 - 10 목사 이재호 일행
 - 11 박민현 일행
 - 12 이노영 일행
 - 13 이재관 일행
 - 14 관관 이필술 일행
 - 15 윤상화
 - 16 목사 정관휘
 - 17 양응상
 - 18 목사 홍종우
 - 19 남만리 일행
 - 20 김종운 일행
 - 21 영초
 - 22 강옥빈 일행
 - 23 목사 심현택
 - 24 이정섭
- 인물미상 : 양인보 일행

01 판관 정동리 일행



歲 丁未 八月初吉日 識 金時鎮 閔廷楫 散人 許運
判官 鄭東里 (雙溪石門) 巖開大禹斧 月老女媧天

인물

정동리(鄭東里, 생물년 미상)는 조선 숙종 때 정의현감과 영조 때 제주관관을 지냈다. 1709년 4월 정의현감으로 부임하고 1711년 9월에 떠났다. 1726년 9월 제주관관으로 재도임하고 1728년 6월에 떠났다.

해설

산인(散人)이란 벼슬을 하지 않고 한가(閑暇)로이 지내는 사람을 말하며 흔히 아호(雅號) 밑에 붙여 쓴다. 판관 정동리(鄭東里)의 제명 옆으로 친구 일행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승정원일기 등에서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보인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벼슬하지 않았던 이유로 산인이라고 제명한 듯하다. 정동리와 몇몇 인물들의 제명은 어지럽게 뒤섞여져 같은 일행으로 확실하기 어렵지만 글씨체나 마멸된 상태로 보아 같은 일행으로 추정된다.

세(歲) 정미(丁未) 팔월(八月) 초(初) 길일(吉日)에 가서 새겼(識) 다면, 1727년 8월인데 이는 방선문 일대의 마애명 중 확인 가능한 제명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라고 판단되는 1739년의 홍중징의 제명보다 12년이나 앞선다. 제명된 시들이 모두 홍중징의 운을 따르고 있지만 여기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가장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 또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일행과 날짜를 기록한 뒤 시를 남기고 있다는 가장 전형적인 제명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치 또한 석문 바로 위에 제명되어져 있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물길을 튼 것은 우임금의 도끼

岩開大禹斧

달 스러지니 드러나는 여와의 하늘.

月老女媧天

첫째 구의 대우(大禹)란 하(夏)의 비조로서 범람하는 강을 땅을 열어서 바다로 통하게 한 치수사업으로 유명하다. 여기서는 방선문이 마치 우임금이 돌을 깎고 산을 뚫어 길을 낸 듯, 방선문의 경치가 놀라울 정도로 기이하다는 문학적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구의 여와(女媧)는 중국 신화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신화의 주인공이다. '달이 기우니 드러나는 여와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방선문에 놀러갔는데 달이 지면서 날이 밝아지며 하늘이 새로 열리는 듯한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의 도끼와 여와의 하늘이라는 대(對)가 인상적이다.



【雙溪石門】

'들렁기' 남쪽은 제비꼬리 모양으로 두 갈래 시내가 내려오다가 석문(石門)에서 합쳐서 하나로 흐른다. 그래서 쌍계(雙溪)와 석문(石門)이라고 한 것이다.

이 글씨는 앞의 판관 정동리 일행들의 제명과 뒤섞여 있지만 위치나 마멸된 상태 그리고 행서에 가까운 필체로 판단하건대 앞 제명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방선문과 등영구】



방선문에 제영된 시에는 경승을 묘사하는 흔히 제비꼬리[燕尾]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계곡이 이 일대에서 제비꼬리처럼 양 갈래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쌍계석문(雙溪石門)이라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추론을 가능케 한다. 방선문이라는 이름이 과연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를 찾는 일종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래 제주사람들은 현재의 방선문을 제주말로 '들렁기' 또는 '들렁귀' 라고 부른다. 어원은 '들렁귀' 인데, 이 말이 '들렁기' 를 거쳐서 '들렁기' 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의미는 바위가 들린 석굴이란 뜻이며, 등영구(登瀛丘)는 위의 '들렁기' 의 의차(意借)와 음차(音借)인 것이다. 들려진 굴, 혹은 방문한다는 의미로 들르대[訪] - 신선이 사는 곳을 방문한다 혹은 들른다는 의미까지 고려할 때 - 의 음차로서 '들렁귀' 라고 불렀다고 가정한다면, 목사나 유배인들 같은 외지인들은 이 '들렁귀' 를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하나는 제주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등영구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고, 하나는 그 지형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곳의 지형이 계곡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석문이 있어서 쌍계석문이라고 이름 붙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음차한 등영구라는 단어에는 그 지형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단어이지만, 석문(石門)이라는 의미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말이다. 이는 문을 열고 들어갈 만한 어떤 별세계(別世界)를 전제한다. 한라산이라는 공간이 그 별세계가 될 수도 있고 신선들이 사는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정아래서 방선문에 제명된 숯한 도교적 이름들, 방선문, 환선대, 우선대 등등의 이름과 임관주 같은 유배객들이나 김영수 한창유 등의 시들에 투영된 신선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달해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02. 윤진오



尹進五

해설

윤진오(尹進五, 생몰년 미상)는 영·정조 때의 무신이다. 주로 무관직을 전전했으며 만호의 직책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며 목사 김영수와 시기가 겹친다. 용연의 제영에는 목사 김영수의 시를 차운해서 지은 것으로 보아 동행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03 • 김영수 일행



喚仙臺

別壑乾坤大 石門日月閑 莫云無特地 眞箇有神山
 花老已春色 岩蒼太古顏 憂然鳴鶴至 知是在仙間
 己亥 春 金永綬 子樂圓

해설

신선을 부르는 곳 환선대(喚仙臺)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마애명이다. 환선대 제명 옆에는 김영수(金永綬)의 제영이 새겨져 있다. 김영수(金永綬, 1716~1786)는 정조 때 제주목사이다. 1778년 12월 도입하고 1781년 2월에 떠났다. 1780년 각 목장의 우마가 분실되는 폐단을 시정할 목적으로 산장의 경계를 확장하였다. 운주당과 연무정을 중수하였으며 관덕정에 있는 탐라형승이라는 대자가 그의 글씨이다. 그의 제각 앞에 방선문의 환선대(喚仙臺) 글씨를 탁본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외딴 골짜기 드넓은 하늘과 땅	別壑乾坤大
돌문엔 세월이 한가히 흐르네.	石門日月閑
빠어난 곳 없다고들 말하지 마시게.	莫云無特地
진정 신령스런 산 여기 하나 있으니.	眞箇有神山

꽃 짙은 삼월의 아름다운 경치	花老蒼春色
바위는 실로 태고적 모습 그대로이네.	岩實太古顏
학이 소리 내 울면서 날아드니	憂然鳴鶴至
이제 선계에 있음을 알겠네.	知是在仙間

수련(首聯)의 출구(出句)와 대구(對句)는 ‘고요할 때에 하늘과 땅이 거대함을 알 것 같고, 한가할 때 세월은 무척 긴 것 같도다(靜裡乾坤大 閑中日月長)’ 라는 추구(推句)의 표현을 차용하였다. 여기서는 빠어난 경치 속에서의 고요하거나 한가함을 강조하고 있다. 알연(憂然)이라는 표현은 소식(蘇軾)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보인다. 여기서는 산(刪)운으로 지은 측기식 오언율시(五言律詩)이다. 차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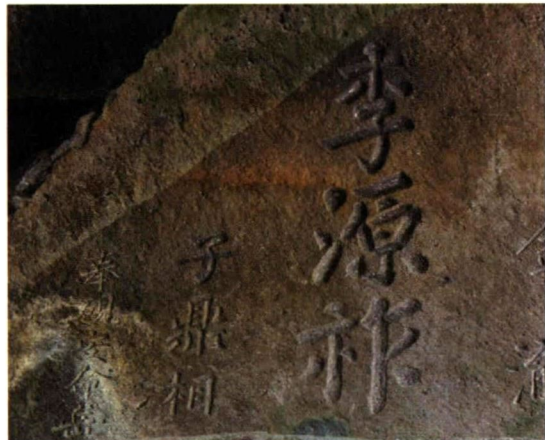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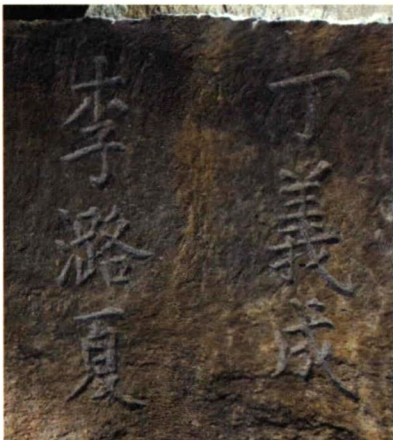
【박종오】

朴宗五

해설

박종오(朴宗五, 생몰년 미상)는 전라도 지역사람이며 유학(幼學)으로 상소한 내용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역시 목사 김영수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인물이다.

04 • 목사 이원조 일행



李源祚
子 鼎相
奉硯 安命岳
丁義成 李潞夏

인물

이원조(李源祚, 1792~1872)는 현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41년 3월에 도입하고 1843년 6월 사직하고 떠났다. 기민을 구휼하고 화북의 해신사를 중수하였다. 1842년 우도와 가파도에 입경을 허가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개간하여 사복시에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1843년에 동계 정운을 배항하는 송죽사를 세워서 재액을 김정희로 하여금 쓰게 하였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탐라지초본과 탐라계록과 그의 문집인 「응와집」이 남아있다.

해설

정상(鼎相)과 봉연(奉硯)은 이원조 목사의 아들로 보이고 안명악(安命岳)은 수행군관으로 보인다. 정의성(丁義成), 이로하(李潞夏) 등은 그의 「탐라록(耽羅錄)」에는 그들이 막료로 기록되고 있고, 이원조가 새겨진 바위 아래쪽 바위에 새겨져 있지만 동행인이다.

TIP

【이원조의 한라산 유람】

이원조는 1841년(현종 7) 강릉부사로 있다가 1841년 3월 제주목사로 도입하여 1843년(현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가 목사로 재임하던 1841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한라산 등산 기록이 「遊漢拏山記(유한라산기)」로 남아 있다. 기록을 보면 그의 일행은 제주목에서 출발하여 한천을 거쳐 백록담에 올랐으며, 한라산 서쪽 등산로인 영실로 하산한 내용을 담고 있다.

05 목사 김윤



牧使 金潤 甲子 首夏

해설

김윤(金潤, 생몰년 미상)은 영조 때 제주 목사이다. 1743년 3월 도임하고 1744년 9월에 떠났다. 목자고(牧子庫)를 설치하여 공마를 관리하게 하였으며 도내의 효자 등을 정려하고 효자 홍달한에 대해서는 행장을 지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어 도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갑자수하(甲子首夏)라고 했으니 1744년 4월에 오른 것이다.

06 • 황규현



黃奎鉉 金澈

해설

황규현(黃奎鉉)과 김철(金澈)은 모두 행적미상이다. 그런데 글씨체로 보아 김철(金澈)은 목사 김윤(金潤)의 일행으로 보여지나 황규현(黃奎鉉)은 일행이 아닌것으로 보인다. 황규현은 글씨체도 다르고 목사보다 이름을 다음에 새겼지만 위로 갔기 때문이다.

07 박래연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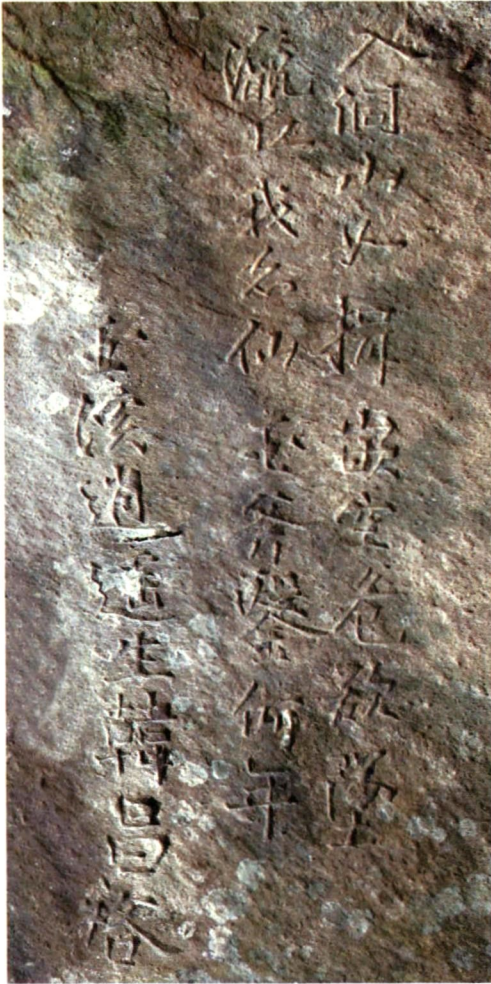


朴來彦 金教顯 金東轍
三同甲辰

해설

좌측 인물부터 나열하였다. 박래연(朴來彦), 김교현(金教顯), 김동철(金東轍), 삼동갑진(三同甲辰)은 좌에서 우로 새겨져 있다. 위 세 사람 역시 행적 미상이다. 뒤의 부분은 갑진년 생 세 명의 동갑들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08. 한창유



入洞山如揖 瀛丘我亦仙
 嵌空危欲墜 玉斧鑿何年
 玉溪逍遙生 韓昌裕

해설

골짜기로 들어서니 산이 절하는 듯
 방선문에서는 나 역시 신선이 된다네.
 깊은 굴은 높다랗게 무너질 듯한데
 옥부로 뚫은 지 몇 년이던가?

入洞山如揖
 瀛丘我亦仙
 嵌空危欲墜
 玉斧鑿何年

한창유(韓昌裕, 생몰년 미상)의 시이다. 같이 쓰여 있는 옥계소요생(玉溪逍遙生)이란 말은 '옥계에서 소요하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창유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출신임을 알게한다. 옥계계곡의 상류는 경승으로 이름난 곳이다.

09 • 목사 이현택 일행



牧伯 李顯宅
 判官 孫應虎
 旌義 盧尙熙
 軍官 金漢恂
 權啓東 韓永履 李顯謨
 侄 義達 韓永履 李顯謨

해설

이현택(李顯宅, 생몰년 미상)은 순조 때 제주목사이다. 1809년 1월에 도임하여 1811년 5월에 떠났다. 재임 중 운주당을 재건하고 1810년 삼남지방에 흉년이 들자 제주에 있던 별저미를 운반해서 호남 제읍을 구휼하였다.

10 • 목사 이재호 일행



瀛伯 李在護
弟 參奉 在國

해설

이재호(李在護, 생몰년 미상)는 고종 때 제주목사이다. 1901년 4월에 도임하여 1902년 6월에 떠났다. 이재수의 신축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천주교도들과 협의하여 사라봉 남쪽 황사평에 피해자를 안장하였다. 탐학이 심하여 도민들의 원성을 받았다.

11 • 박민현 일행



同遊

平壤後人 朴敏賢 賢成 丙午 居 清州
 韓山後人 李禎協 興南 癸酉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志 仲高 丁卯 居 京
 岑城後人 李級 德□ 戊辰 居 保寧
 高靈後人 申善煜 清霜 戊辰 居 潭陽
 韓山後人 李榮協 馨南 己巳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華 仲輝 □□ 居 京
 高靈後人 申汴 仲深 辛未 居 淳昌
 韓山後人 李明協 光南 辛未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燁 仲明 癸酉 居 京
 辛卯 仲春 書以識之

해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것도 제주인들이 아닌 외지인의 방선문을 찾아 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제명한 방식이 특이하게 본관, 이름, 호, 생년, 거주지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 문중에서 같은 항렬 사람들이 만나 제주에 유람을 와 제명을 하였다.

12. 이노영 일행



李魯榮 李甲鉉 丙子

해설

병자년(丙子年)을 1816년으로 보면 승정원일기에 유생(幼生)으로 나오는 이노영(李魯榮)과 진사(進士)였던 이갑현(李甲鉉)은 시기가 겹치는 인물들이다.

13. 이재관 일행



李在寬 李永俊

해설

행적미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재관(李在寬)과 이영준(李永俊)은 이재관이 재(在)자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혹시 이재호 목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아닐까 추정한다.

14 • 판관 이필술 일행



李必述 子斗南 金在浩 康緝 洪良燮 李尙□ □□□
 松□ 姜□ 松(林) 金□□ 松□ 洪□□ 乙酉□□

해설

이필술(李必述, 생몰년 미상)은 순조 때 제주판관이다. 1825년 도입하고 1827년 10월에 떠났다. 1825년 12월 제주경차관 윤제홍을 불러 북명하게 하고 제주 유생의 시권을 지참 상경하여 과차하였다. 김재호(金在浩)는 대정현감이며 강정(康緝)은 정의현감이다. 나머지 글자는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식별할 수 없다.

15. 적객 윤상화



謫客 尹相和 甲申 五月 日

해설

윤상화(尹相和, 생몰년 미상)은 조선 말기 관리이다. 1882년(고종 19) 부호군(副護軍)으로 임명되었고, 국사(國事)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 등으로부터 상소문의 내용이 무례하고, 언사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탄핵받았고, 결국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또한 그의 상소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 조중필(趙鍾弼)과 우부승지(右副承旨) 조중필(趙重弼) 등이 파직을 당하였다. 그는 국문(鞫問) 끝에 제주목(濟州牧)으로 유배되었고, 이후 유배지를 흑산도(黑山島)로 옮겼다. 갑신년이던 1884년인데 흑산도로 옮기기 전에 방선문을 찾은것으로 추정된다.

16 • 목사 정관휘



牧使 鄭觀輝

해설

정관휘(鄭觀輝, 생몰년 미상)는 순조 때의 제주목사이다. 1783년(정조 7) 통덕랑(通德郎)으로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785년(정조 9)에 지평(持平), 1795년(정조 19)에 비변사낭관(備邊司郎官), 1796년(정조 20) 장령(掌令)을 지냈다. 1799년(정조 23)에는 명월만호(明月萬戶)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승진하였다. 1802년 3월에 떠났다. 1801년 시노비안(寺奴婢案)을 혁파하였다.

17 양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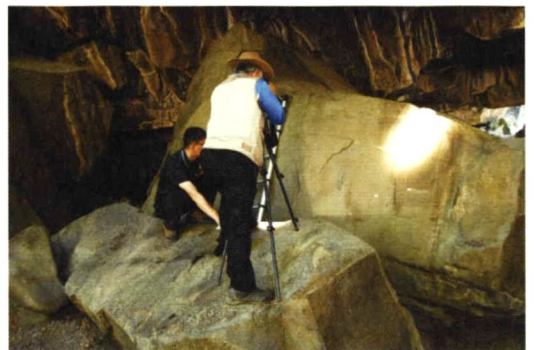
水從瀛海放 門對漢山開 仙去留花石 令人幾訪來
梁應祥

해설

양응상(梁應祥)은 행적이 분명치 않지만 노형동 사람으로 보이며 관관 고경준에게 수학한 인물이다. 시를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물은 영주바다 따라 흘러가고	水從瀛海放
돌문은 한라산 마주해 열렸네.	門對漢山開
신선은 갔지만 꽃과 바위 남아있어	仙去留花石
사람들 몇 번이나 찾아오게 했는고.	令人幾訪來

열핏보면 위의 한(漢)자(字)는 옥(沃)으로 보이는데 한(漢)자(字)가 획수가 많아서 새기기가 곤혹스럽고 떨어져 나갈 염려 때문에 간략하게 옥(沃)자(字) 비슷한 형태로 새긴 것이다.



방선문의 굴내부는 꼼꼼히 살펴 보아야 마애영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
육안으로 글자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촬영 후 판독을 시도하였다.

18 • 목사 홍종우



洪鍾宇

光武 甲辰 五月 日

해설

홍종우(洪鍾宇, 1854~?)는 고종 때 제주목사. 1903년 1월에 도입하고 1905년(고종 42) 4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면직되어 제주를 떠났다. 1894년(고종 31)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김옥균 암살의 공으로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1898년(고종 35) 황국협회에 가입하여 독립협회를 해체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독립협회가 해체된 뒤 수구파 내각의 의정부 총무국장에 임명되었다.

1903년(고종 40) 대한제국 정부는 제주민란의 사후 처리 문제로 인해 프랑스와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되자 프랑스에 유학하였던 홍종우를 제주목사로 임명하여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인 피살자 매장지 및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홍종우는 1903년 8월 제주성 남쪽 황사평의 민전을 양도받아 민란 때 피살된 천주교인들을 매장하게 하였다.

한편 제주목사 재임 중 제주목 관아의 망경루와 공신정을 중수하였으며, 소나무를 남벌하고 백성으로부터 1만 냥을 징수하여 뇌물로 사용하여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재임중 산지 금산물에 영은정(永恩亭)을 짓고, 제주도를 측량한 기록이 남아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보면 안산사람이고 어린시절 고금도로 흘러들어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상가리 고문서에는 홍종우 자신이 직접 '제주는 나의 병주(并州)'라고 밝히는 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병주(并州)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땅을 말하는데, 당나라의 가도(賈島)가 병주(并州)에 오래 살다가 떠날 때 시를 지으며 나온 말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홍종우가 불우했던 어린시절에 제주에서 살았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갑진년이라면 1904년인데, 사임 바로 전 해에 방선문을 찾았으며 산방산에도 그의 제명이 남아있다.

1.9 남만리 일행



南萬里
郡守 洪友淳
甲辰

인물

남만리(南萬里, 생몰년 미상)는 순종 때의 대정군수이다. 1902년 7월 도임하여 1906년 10월 떠났다. 4년 여 동안 윤석인, 홍종우, 조종환, 윤원구 등 네 명의 목사를 거쳤고, 일행인 홍우순은 당시 제주군수였다. 그는 을미사변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춘생문 사건 당시 친위대 소속 중대장이었다. 군부대신이었던 어윤중에게 진압되어 태형과 징역 3년을 받았다. 대정군수를 지냈으며, <선생록>을 찬술하고 「탐라지」를 편저하였다.

해설

산방산에도 그의 제명이 남아있다. 방선문과 산방굴사에는 남만리가 대정 군수였을 당시 목사였던 홍종우의 제명에 갑진년(1904년)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방선문과 산방산 두 곳을 함께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0. 김종운 일행



風詠錄

金鍾運 朴章鉉 玄商休 金性久 金應璜 俞晟煥
 文斗燦 朴景亮 洪淳坤 文圭三 金謙集 梁昊元 梁錫圭
 姜宗杓 金泰河 愼奎錫 金寅錫 金履珩 姜錫祚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閏五月 初五日 辛巳 春 金永權
 洪義杓 改修

해설

풍영록(風詠錄)이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 모여 풍류를 즐기며 시를 짓던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행적 미상이다. 개국(開國) 493년이면 1884년이다. 최초 풍영록 작성 57년 후 신사(辛巳, 1941년) 봄에 김영권(金永權)과 홍의표(洪義杓)가 고쳐서 풍영록을 작성하여 제명을 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조선건국연호를 사용하였다. 방선문의 또다른 마애명인 목사 심현택의 제명에도 개국493년이면서 갑신년(甲申年)으로 같은 시기이다. 간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같고 시기도 같다는 점에서 둘의 연관성 역시 의심해 볼 만 하다.

21 영초



洞穴螺旋入 溪流燕尾分 仙人難可見 萬古鎖烟雲 瀛樵

해설

영초(瀛樵)의 시인데 영초라는 인물은 미상이다. 하지만 '영주, 즉 제주의 나무꾼'이라는 뜻으로 보아 제주인물로 보인다.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동혈로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니고	洞穴螺旋入
계곡물은 제비꼬리처럼 나뉘었네.	溪流燕尾分
지금 신선 만나보기 어려운 것은	仙人難可見
태초부터 구름에 잠겨있었기 때문이지.	萬古鎖烟雲

연미(燕尾)란 방선문의 생김새만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계곡물이 방선문에서 둘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미동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비꼬리처럼 나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제명된 위치 역시 정확하게 물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지점에 제명되었다. 시를 제명할 정도, 그리고 행서에 가까운 필체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교양을 갖췄던 인물로 짐작된다.

22 강욱빈 일행



搜雲契

姜郁彬 韓禎裕 愼哉揆 金庸圭 金炳鎬 金啓柄
 姜斗勳 姜遇伯 吳圭瀛 李能白 金鍊百 李源弼 文斗南
 姜師鎬 朴南岳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閏五月初五日

해설

영초의 시 바로 위에 수운계(搜雲契) 강욱빈(姜郁彬) 일행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대부분은 행적 미상이지만 일행 중 강우백(姜遇伯), 한정유(韓禎裕), 김계병(金啓柄) 등의 행적만이 분명하다. 강우백은 하원사람인데, 월평으로 이사를 하였고 1898년 방성칠 난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천주교도였지만 신앙생활을 접고 반천주교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1901년에 발생하는 이재수 난의 주요 인물이 되며, 끝내는 서울로 압송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한정유는 거로출신이며, 매계 이한우와 교류했던 인물이다. 김계병은 조천리 출신으로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제명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이지만 강우백의 대인관계의 폭은 대체로 넓었던 모양이다. 또한 풍영록의 인물들 역시 갑신년 5월 5일로 같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찬가지로 이 제명 위에는 갑신년 5월 5일에 방선문을 찾은 목사 심현택의 제명이 있고, 간지를 표현하는 방식도 세 제명이 동일하다. 따라서 풍영록과 수운계와 목사 심현택은 같은 날 방선문을 찾았다는 것이다. 날짜와 제명된 위치 그리고 간지의 표현방식까지 같다는 점에서 모두 동행 했음을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재(哉)자(字)를 사용한 것은 재(哉)자(字)의 입구(口)가 새기기가 어렵고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것이다.

23 ● 목사 심현택



知州 沈賢澤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朴箕壽

인물

심현택(沈賢澤, 생몰년 미상)은 고종 때의 제주목사이다. 1883년 5월에 도임하고 1884년 12월에 떠났다. 재임 중 제주 유생들을 시취하는 일에 힘썼다.

해설

심현택 목사가 재임 중에 가장 힘썼던 부분은 이양선(異洋船)에 관한 일들과 제주 인재들을 선발하는 일이었다. 자연스럽게 제주 유생들의 신뢰를 받았으리라고 짐작되며, 같은 날 방선문을 찾은 풍영록의 인물들과 수운계의 인물들과 같이 동행했으리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옆에 제명된 박기수(朴箕壽)라는 인물은 미상이나 글씨체로 보아 수행군관 정도로 추정된다.

24 • 이정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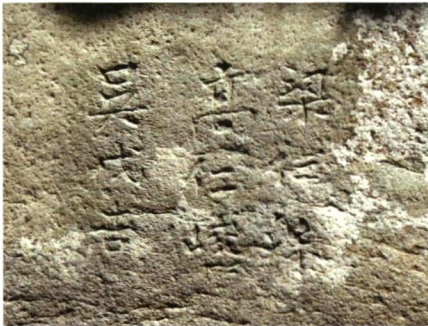


泰仁 李定燮 癸酉 秋

해설

이정섭(李定燮)이라는 인물은 미상이다. 태인(泰仁)은 출신 고향일 것이다. 특이하게도 방선문을 찾은 시기가 꽃이 피는 봄이 아니라 가을(秋)에 올랐다는 점이다.

인물 미상



梁仁保 高仁峻 吳戊吉

양인보(梁仁保), 고인준(高仁峻), 오무길(吳戊吉)은 행적 미상이다.



최근 방선문 굴내부의 마애명 바위들이 태풍 등으로 인하여 급류에 의한
바위슬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



李命俊

龍溪巨

石實明於家
巖崖上云石剛
花下草猶芳
余歸石在飛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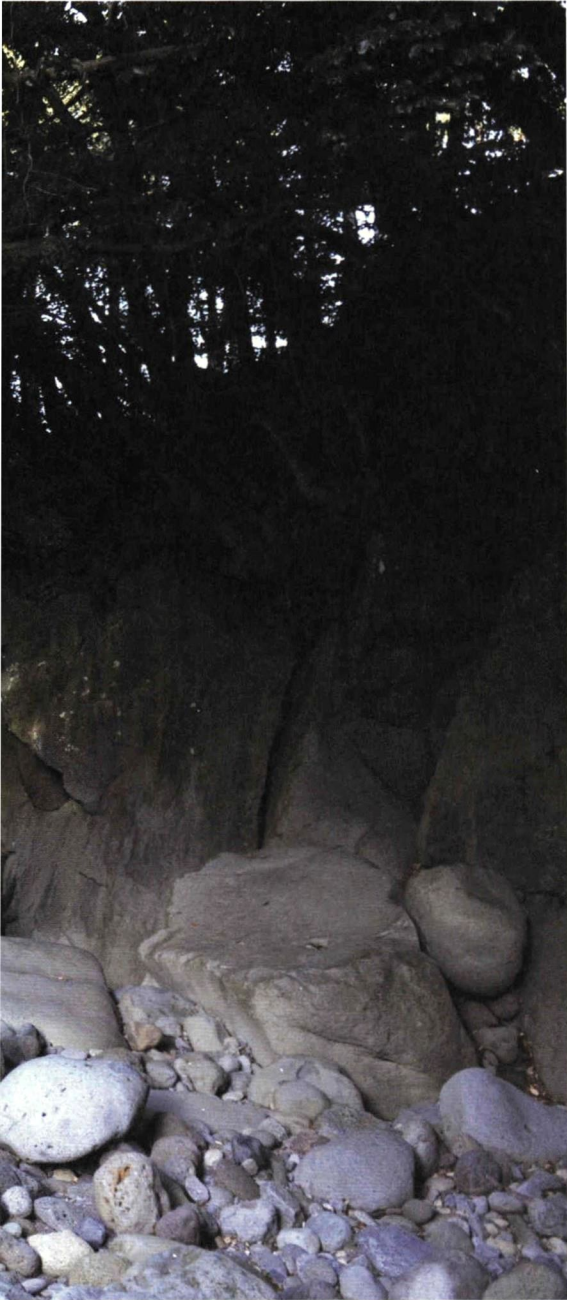
法堂微塵
己未年夏月

此使九龍橋



{ 방선문 남면 상류 }

신선을 만나러 가는 들렁귀인 방선문(訪仙門)으로 들어서서 신선을 부르는 환선대(喚仙臺)를 지나 남쪽 한라산 방향으로 70미터 정도 올라가면 드디어 신선을 만나는 곳 우선대(遇仙臺)에 다다르게 된다. 우선대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한라산에서 신선이 탐라계곡을 따라 한천 하류인 방선문 계곡으로 걸어 내려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신비감이 감도는 곳이다.



01 우선대

02 이근복

01 • 우선대



遇仙臺

해설

우선대(遇仙臺)는 방선문의 다른 마애글씨와 다르게 우에서 좌로 가로로 쓰여 있다. 신선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행서로 쓰였으며 다른 글자들에 비해 마멸이 아주 심하다. 이른 시기의 문제인지 풍화작용에 쉽게 노출된 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02. 이근복



李根福

淡□危□□ □山□□開 神仙何處在 臺靜白雲來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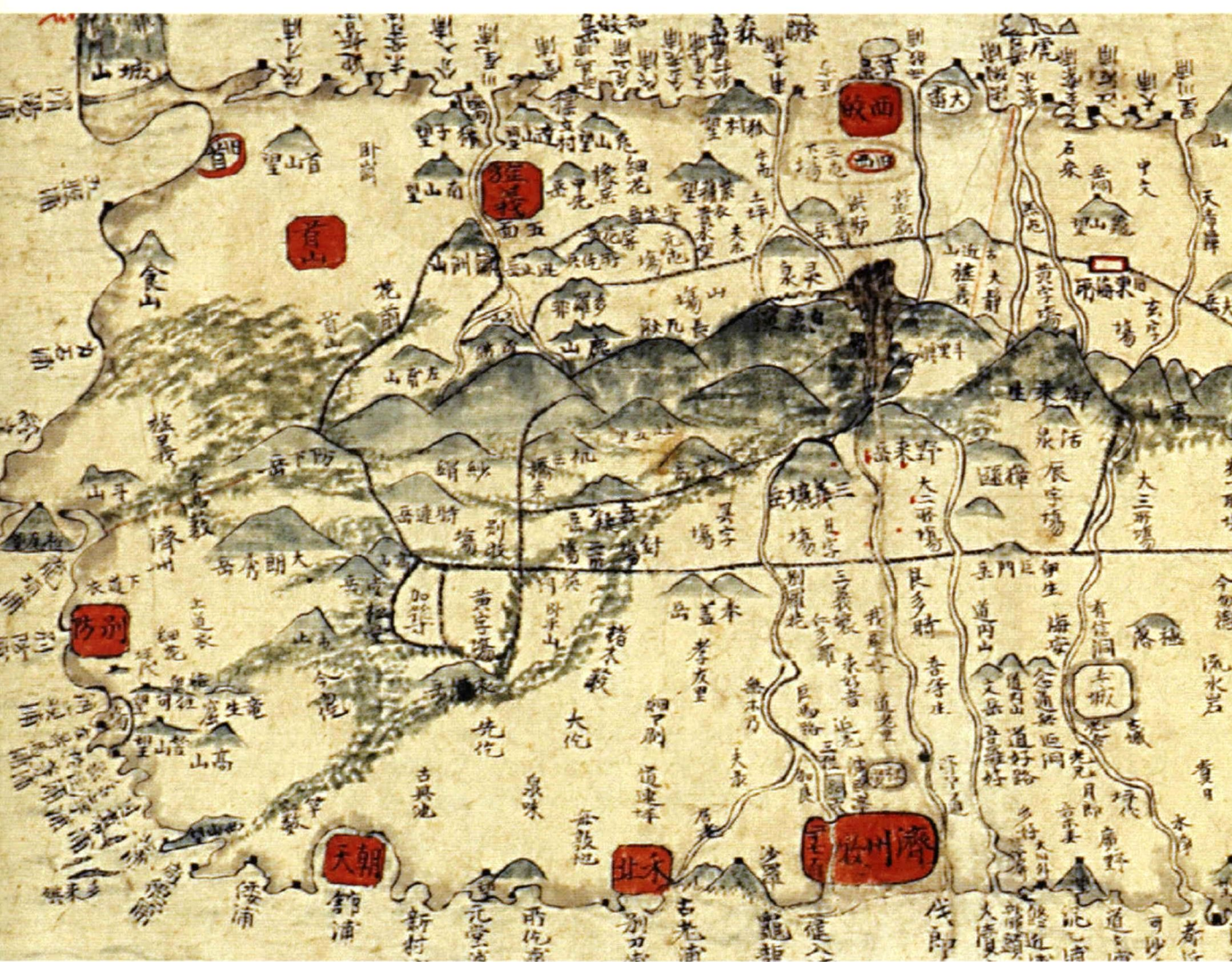
이근복(李根福)이라는 인물의 시인데, 행적미상이다. 시는 홍중징의 운을 따랐으나, 글자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하다. 특이한 점은 이근복이라는 이름자는 우에서 좌로 가로로 새겨져 있다.

【탐사이야기 Ⅱ】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의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 조사는 한라산 현지탐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발견된 마애명의 탁본조사 또한 기록치 않은 작업이었다.





조선시대 한라산 유람과 마애명

- 3-1. 김정과 이익의 한라산
- 3-2. 김치의 한라산
- 3-3.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 3-4.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
- 3-5.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 3-6. 최익현과 김희정의 한라산
- 3-7. 유산자들의 백록담 인식

③ 조선시대 한라산 유람과 마애명

한라산은 예로부터 영산(靈山)으로 신성시 되어 왔으며, 정상의 백록담도 태고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지리지 등에 나타난 한라산과 백록담에 대한 지리적 설명에도 그러한 면이 잘 부각된다. 이러한 한라산을 동경해 조선시대 제주도를 방문했던 시인묵객들과 관리들이 한라산을 올랐으며, 현장에서 돌이나 바위에 글자를 새겨 마애명(磨崖銘)으로 남기기도 했다. 특히 그 감흥을 ‘유산기(遊山記)’로 기록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 유산기들은 산을 유람하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유람자의 의지에 의해 작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산기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지식인들의 유산풍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후반에 급격히 성행하기 시작해 18세기에는 일반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글의 첫머리에는 유람목적과 동행인 등을 기록한 후 날짜별로 유람일정과 견문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주도의 한라산 유산기에는 한라산 등람인의 사회적 신분과 등람일정 및 등람목적이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부의 식생과 지형 그리고 출발지에서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인 백록담으로 연결된 등람로 주변의 마을과 사찰 및 국마장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산기록을 남긴 등람자들의 기록에는 한라산 등람의 최종 목적지인 백록담에 대한 경관의 모습과 정상을 오른 감회를 구구절절이 적고 있다. 수려한 한라산의 풍경과 신비로운 백록담의 장관에 그곳을 오른 이의 넘치는 감흥을 주체할 수 없음이 글의 곳곳에 피력되어 있다. 백록을 탄 신선이 머문다는 백록담에 올랐다는 감격을 곧 한시로 지어 남기거나 본인의 이름과 간지 등을 새겨 증표로 남기기도 하였다.

한라산을 오른 기록을 남긴 이들 중에서 백록담이나 방선문계곡에 마애명을 새겨 놓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물이 조관빈(趙觀彬, 1732)과 이원조(李源祚, 1841), 최익현(崔益鉉, 1875) 등이다. 그리고 김정(金淨, 1521)과 이익(李穡, 1619)은 유산기 형태의 기록은 아니지만 한라산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마애명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한라산 유산기록에서 마애명을 새긴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이가 김치(金緻, 1609)와 김희정(金羲正, 1895)이다. 반면에 윤제홍(尹濟弘, 1844)은 그의 그림속에서 백록담내에 마애명을 새기는 이의 모습을 그려 놓았는가 하면 새겨진 마애명까지 소개하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여정을 구체적으로 알게하는 기록으로는 김치와 조관빈, 이원조, 최익현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라는 제목의 유산기 4편이며,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1895) 같

은 개인 일기체 형식의 한라산 등람 기행문이다.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은 제주 풍물을 소개하는 기록이며, 이익은 「유한라사수(遊漢拏四首)」라는 짧은 글속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1844)와 같이 그림에 적혀진 한라산 등산 기록도 있다. 관련 인물과 기록명, 출전을 밝히면 표1과 같이 밝히며, 다음장부터 각 인물들이 한라산을 올랐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라산 유산기 및 유산 관련 사료

저자명	등람연도	기록명	출 전
金 淨	1521	「濟州風土錄」	『冲菴先生集』 권4
金 緞	1609	「遊漢拏山記」	『南澁日錄』(李增) 『耽羅志草本』(李源祚)
李 灑	1619	「遊漢拏四首」	『艮翁遺稿』
趙觀彬	1732	「遊漢拏山記」	『梅軒集』 권15
尹濟弘	1825	「漢拏山圖」	『學山九九翁』 화첩
李源祚	1841	「遊漢拏山記」	『耽羅錄』 권4
崔益鉉	1875	「遊漢拏山記」	『勉菴先生文集』
金羲正	1895	「漢拏山記」	『海隱文集』

3-1. 김정과 이익의 한라산

김정(金淨, 1486~1521)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조선조 연산군·중종 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충, 호는 충암이다. 제주 오현의 한분이다. 김정(金淨)은 조광조와 더불어 미신 타파, 향촌의 상호부조를 실행하기 위한 향약의 적극적 시행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이 되었다. 그 후, 감형되어 금산(錦山)으로 유배되었다가 1520년 제주읍성으로 유배된 다음, 1521년 35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았다.

제주도에 유배된 뒤, 조카로부터 제주도의 풍토와 물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답장으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지어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료는 1520년 8월부터 사사되던 1521년 10월까지의 제주도 체험기록으로, 제주도의 풍물을 최초로 기록한 사료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료에는 제주도 기후 및 지리적 환경, 풍물과 습속, 언어와 사회상, 토산물과 특산물 등 유배지 환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552년 김정(堂姪)인 김천우 등에 의해 「충암선생집(冲菴先生集)」이 간행되었으며,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은 「충암선생집(冲菴先生集)」 제4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주풍토록」에는 김정이 한라산을 오른 여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익이다. 이익(李瀾, 1579~1624)은 1619년 제주에 유배와 경주이씨의 입도조가 된 간옹(良翁), 이익(李瀾)이 한라산 정상에 올랐던 경험을 간단히 기록해 놓은 간옹유고 「良翁遺稿」에는 김정이 유배생활 중 한라산에 매달 한 번씩 올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1622년 정은(鄭蘊)의 동계집 『桐溪集』에도 김정이 매달 한 번씩 한라산을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李瀾, 「良翁遺稿」: “先正冲菴公 在園中 時時往此山而曰 國法之故不得長在山中 但一月一出云云 而吾輩一入累年 不得跬步之出 公之得禍不下 今日猶得時往山中 暢敘幽鬱 而吾輩猶縮首不敢出者 時有古今之異 而勢有所不敢也 豈吾輩之守正 有加於先正者哉 余夏間得病 死而甦 尤覺鬱鬱 而適受恩點 方在納續之類 雖家貧不能報答聖恩 而與昔者有間焉 猶不能唐突以駭瞻視 與同志二三子冒曉 而往越一夜而昏返焉 後或有見之者 亦將寬恕云爾 出門避塵巒 望山新面目 歸雲亦有知使我藏踪跡”; 鄭蘊, 「桐溪集」). 현재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북측 벽에 김정과 이익의 제명(題名)이 석벽(石壁)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제주에 입도한 시기가 확연히 다른 김정과 이익의 이름이 백록담에 나란히 새겨진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제명(題名)된 상태를 살펴보면 한라산을 오른 김정이 먼저 새기고, 1619년 이익이 한라산에 올라 김정의 제명을 발견하여 그 옆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백록담 내 나란히 새겨진 김정(좌측)과 이익(우측)의 마애명

3-2. 김치의 한라산

김치(金繼, 1577~1625)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안동, 자는 사정, 호는 남봉, 심곡이다. 1597년(선조 30) 문과에 급제하여 1609년(광해군 1) 3월 제주판관에 임명되어 입도했으며, 이듬해인 1610년 9월에 떠났다. 인조때 공백(功百)으로 안흥군(安興君)에 봉(封)해졌고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김치(金繼)는 임진왜란 진주중첩을 이룬 김시회(金時晦)의 아들(繼子)이다 주역에 밝아 심곡비결을 지었고, 인조반정의 날짜를 택일한 사람이다. 그의 아들은 김득신(金得臣)으로 택당 이식(澤堂 李植)이 당대 제일이라고 평한 시인(詩人)이다.

제주판관 재임 중에는 여러 가지 민폐를 개혁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 간행한 와유집 『臥遊錄』에 실린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제주판관 김치는 1609년 4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라산을 등람했음을 보여준다.

김치(金繼)는 ‘영주산(瀛洲山)’이라는 한라산의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는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도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옹생, 이효성, 정인수 등과 함께 한라산에 오르게 된다. 제주성에서 말을 타고 출발해 무수천 상류로 올라 대정현 지경의 산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서 노루악과 삼장동(삼형제오름)을 거쳐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했다. 포애악(불래오름)을 넘어 남쪽을 돌아 존자암에 도착하였다. 불래오름의 존자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승려 수정과 함께 영실기암 주변의 옛 존자암 자리를 찾아갔다. 존자암의 옛터를 살펴보고 난 후 수행굴을 지나 골짜기를 올라서 칠성대를 거쳐서 백록담 정상에 올랐다. 김치는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여러 섬들을 자세히 나열해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보았다는 노인성에 대해 수정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노인성을 관찰할 수 없음을 아쉬워했다. 대정현 지경인 서쪽으로 올랐지만 하산은 제주성 방면인 북쪽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해상(海上)의 신기루와 멀리 조그맣게 보이는 제주성(濟州城)을 구경했다.

김치는 일찍이 한라산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올라가 보려는 평생의 큰 뜻을 이뤄보기 위해 한라산 등람을 감행했다. 마침 1609년(광해군 1) 이른 봄에 이 조정량(吏曹正郎)으로 있을 때, 제주판관에 제수되어 제주로 가는 뱃길에서 멀리 제주도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인 한라산의 모습이 그리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은 듯이 보여 적잖이 실망했다고 솔직히 적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한라산을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자 등람하게 된다. 여기에 유산기에 나와 있는 그의 글을 소개해 본다.

길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아주 높지 않고 좌우로 긴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스스로 말하기를 세상에서 이른바 영주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가?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겨서 그런것인가. 어찌 숨겨진 명승지를 찾아 의혹을 깨뜨리지 않겠는가?

道上望見漢拏 則不甚峭峻 長山巨麓 橫鎮於一面而已 窃自語曰 世之所謂瀛洲者 卽此山
而居於三山之一 豈名實之不相符耶 抑人情之貴耳賤目而然耶 盍往探討 以破疑惑

또한 김치는 그의 유산기록에서 백록담에 오르고 난 후 근체시 한수를 지었고 또 돌을 쓸어
제명을 하여 명승을 다녀간 발자취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遊漢拏山記」: “仍賦近體一首 又掃
石題名 以記勝跡”). 그러나 김치의 마애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길 위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아주 높지 않고 좌우로 긴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는
김치의 한라산 모습이었지 않을까 여겨진다.

3-3. 조관빈의 유한라산기

조관빈(趙觀彬)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양주, 자는 국보, 호는 회헌이다. 1714년 증관문과(增廣文科)에서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1731년 대사헌(大司憲)으로 있으면서 소론의 영수인 이광좌(李光佐, 1674~1740)를 탄핵한건에 연루되어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다. 1731년 12월 27일 입도하였으며, 이듬해 2월 21일에 출륙허가가 내려져 6월 9일에 방환(放還)되었다. 1732년 4월 1일의 한라산 등람기록인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가 그의 문집인 『회헌집(悔軒集)』 제15권에 수록되어 있다.

조관빈(趙觀彬)이 산을 오른 여정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배적거지가 대정현에 있어서 아마도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한 듯하다. 대정현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 영실과 칠성대, 좌선암, 선작지왓을 지나 백록담 남벽을 올라 정상에 이르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상에서 멀리 바다에 뜬 여러 섬나라들을 관망했으며 백록담안의 식물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백록담 정상에서 흰 사슴(白鹿)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관빈은 그의 유산기에서 신선이 사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 왔음을 밝히고 일찍이 한번 그곳을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주목 대정현에 유배 왔다가 출륙령(出陸令)이 내려지자, 그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신선산인 한라산을 유람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드물게 유배인으로서 한라산을 오른 경우이다. 조관빈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한라산이 나지막하고 완만한 산으로 생각하여 과연 삼신산(三神山)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이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산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이미 신선의 산이라 불려지는 한라산이 탐라에 있다고 들었다. 일찍이 그곳을 한번 유람해 보는 게 소원이었지만 큰 바다가 그 곳 사이에 있고 험하고 또 멀었다. 늘 상 산에 끌리면서도 마치 하늘에 있는 듯 높아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余自少時 已聞漢拏在耽羅 以仙山稱 嘗有一遊之願 而大海間之 險且遠 居常引領 如在天上 非人人所可到也

조관빈은 대사헌 상소건으로 인하여 유배를 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백록담 내벽에 글이 새겨져 있다(「遊漢拏山記」: “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被謫登此絕頂”). 그의 유산기록에서는 1732년 출륙허가가 내려진 후 3월 28일에 한라산을 오르기로 여러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장차 산을 향해 가려하니 비 날씨와 건강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4월 초하루가 되어서 가마를 재촉해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하였다(「遊漢拏山記」: “四月以前 山寒不可登 余乃止 及有出陸之命 時暮春日暖 始以廿八日 約同行諸人 將向山去 自是夜雨 三日不止 停行 殊覺泄鬱 四月朔日曉 天色始霽 余乃不時促駕 到山下”). 제명된 내용 중 ‘壬子 三月’ 그의 조카 조영순(趙榮順)이 자기가 해배(解配)되어 등산할 때가 3월인데, 조관빈이 출륙령을 내려 한라산에 오르려 할 때를 기준으로 제명한 것이다.

3-4.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

윤제홍(尹濟弘, 1764~?)은 179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79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지두화(指頭畫)를 잘 그렸던 문인화가로서 본관은 파평이고 호는 학산이다. 1825년 제주에 경차관(敬差官)으로 부임해 온 인물로서 제주에서 한라산을 올랐던 기억을 더듬어 1844년에 한라산도 「漢拏山圖」라는 지두화(指頭畫)를 그렸으며, 그 「한라산도(漢拏山圖)」 내에 한라산 등람 과정까지 함께 기록해 놓았다. 글을 써 내려간 방식이 우상향에서 좌로 쓰다가 다시 좌하에서 오른쪽으로 기록하고 다시 밑으로 좌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청나라 화가들과 19세기 조선의 김정희 등이 사용한 방식이다. 이 그림은 자신의 화첩인 학산구구옹 「學山九九翁」에 수록되어 있는데, 한라산을 오른 기록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백록담 분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암벽의 형상과 백록담 못의 모습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

윤제홍(尹濟弘)은 제주경차관으로 제주에 입도하여 1825년(순조 25) 9월 16일 당일 일정으로 한라산 서쪽 등람로를 이용해 한라산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과 관련된 설화와 노인 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도 「漢拏山圖」에는 백록담 남북 정상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본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백록담 북쪽 봉우리를 십성대로 표시해 놓고 있으며, 백록담 내벽의 마애각(磨崖刻)에 대한 언급까지 세세하게 그림에 표현해 놓고 있다. 특히 분화구 내에 백록을 탄 신선의 모습을 그려 넣었으며, 해와 달을 관찰하는 장소인 '일관봉(日觀峯)과 월관봉(月觀峯)'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또한 백록담 분화구 그림에 보면 백록담 내벽에 마애각을 새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회현(晦軒)'과 '조씨제명(趙氏題名)'을 표시해 놓고 있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조관빈과 조영순의 마애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윤제홍 <한라산도>
1844, 「학산구구옹」, 개인소장



번역

한라산은 탐라국에 있다. 산 둘레는 400여리이고 높이는 거의 22리이다. 정상아래로 펼쳐진 봉우리들은 몇 천만인지 알지 못한다. 산 밖의 사면은 모두 큰 바다로 하늘과 맞물려 끝이 없다. 산에 들어온 자는 천동과 비, 바람, 우박의 신기한 것을 만나게 된다. 내가 산을 유람한 것은 9월 16일이다. 날씨가 쾌청하고 상쾌하여 달빛이 눈과 같이 희었다. 홀연히 한밤인 듯 어두워져 산 초입에 이르자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막아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온 산속을 휘감아 한 점의 봉우리도 보지 못하였다. 동반자들 모두가 말하길 가는 비가 오래 내리니 금방 천둥이 크게 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만 단지 근심이 되지 않아서 말하길 韓愈(唐의 관리, 시인)도 衡山(중국남방의 산, 5악중의 하나)의 구름을 흠어지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한라산의 구름을 풀어 견어내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오가 되어서 산허리에 이르렀다. 과연 바람이 서쪽 바다에서 일어나서 구름을 몰아 동쪽으로 달려가는데 바다구름이 획획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깃발이 펄럭펄럭하는 것 같고 모두 다 동쪽 바다 위에서 모여 진을 천여리에 걸쳐 친 듯해서 蘇東坡(宋의 관리, 시인)가 봉래방장이 나를 위해서 떠있네라 한 것과 같다. 무릇 산은 모두 정상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은 40리 둘레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본래 이름은 두무악이라 했는데, 방언에는 솔오름이라 하는데 이 것을 일러 頭無, 즉 머리가 없음을 이른 것이다. 가운데에 물이 있어 아주 맑고 알아서 마치 색깔이 복숭아꽃 같고 큰 가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약간의 돌들은 색은 검고 아주 가벼워 물 표면에 떠다닌다. 청음 김상한이 浮石, 즉 떠다니는 돌이라 말한 것이 바로 이 것이다. 예로부터 올챙이도 나지 않는데 물가에 소라껍질이 많은데 사람들은 간혹 본래 생겨난 것이라고도 하였다. 점필재 김종직이 이를 海島의 이름 난 貢物이라 여겼는데 이것이 공물로 올라오면 갈라서 먹었다 하는데 어디서 근거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날이 저녁이 되려 해서 산을 내려 오려고 하였는데 동해에 진을 친 구름이 다시 또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간다. 내가 산을 나와서 돌아보니 산 전체를 막은 모습이 처음과 같았다. 사람들 모두가 그걸 기이하다고 하였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가 저물게 되어서 바위 틈에서 잠 자게 되었다. 달 아래 한 신선이 白鹿을 타고 와서 이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는 기을연꽃이 있어서 그가 곧 呂仙(치료술이 뛰어난 도술가, 신선)임을 알았고 이 때문에 백록담이란 이름이 유래하였다. 노인성이 대정읍에 병방(남쪽방향)에서 나타나더니 정방(남서쪽)으로 떨어졌다. 크기가 마치 사람 얼굴만 하다. 그래서 수명을 보는 수관성이라 말한다.

원문

漢拏山在耽羅國 山周回四百餘里 高近二百里 峰巒環擁者 不知幾千萬 山外四面 皆大海與天無際 入山者 多逢雷雨風雹之異 余之遊 在九月既望 天氣晴爽 月白如雪 忽夜半 行到山門 則雲霧四塞 咫尺難分 封裹 全山 不見一點峯 同伴皆曰 細雨霏霏 不久將大霆 余獨不以爲憂 曰 韓文公能破衡山之雲 余何不解漢拏雲 午到山腰 果有風起西海 驅雲東走 海雲聲劃劃 如旗幟拂拂 都會東海上 結陣千餘里 東坡所謂 蓬萊方丈 爲我浮者也 凡山皆有上峰 而此山惟四十里云 故本名曰頭無岳 諺謂釜 曰頭無 中有水極清淺 色如桃花 大旱不縮 多小石 色黑甚輕 浮浮水面 清陰所謂浮石 則此也 自古無寸鯨 活師亦不產 然濱多辟螺殼 人或云 先天物 佔畢齋以爲海島名貢 貢口啣 上水邊 而剖食 未知何所據也 日將夕 欲下山 東海陣雲 亦自海環上山 余出山回顧 則封鎖全山如初 人皆異之 舊有人 值日沒 宿巖間 月下有一仙翁 騎白鹿來 飲于此肪 後有秋蓮 知其爲呂仙 由是名白鹿潭 見老人星現於大靜邑丙方 沒於丁方 大如人面 故曰 壽觀峯

3-5. 이원조의 유한라산기

이원조(李源祚, 1792~1871)는 본관은 성산이고 이형진(李亨鎭)의 아들이다. 그러나 백부 이규진(李奎鎭)의 밑으로 입양되었다. 자는 주현이고 호는 응와이다. 1809년(순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1812년(순조 12)에 관직에 나갔다. 1841년(헌종 7) 강릉부사로 있다가 제주목사로 승진하여 1841년 3월부터 1843년(헌종 9) 6월까지 재임하였다. 그의 저서인 탐라록 『耽羅錄』에는 목사로 부임한 후 5개월 후인 1841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한라산 등산 기록이 있다.

이원조는 가마를 타고 제주유생 김영락, 막료 이인관, 정의성, 이노하 등과 제주성을 출발하여 죽성촌(7다시마을)에서 1박을 한 후 열안지오름 기슭을 거쳐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 한라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남벽 쪽으로 돌아 내려온 후 서쪽 대정현 쪽인 영실과 오백나한 절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서북쪽으로 내려서 광령리 위쪽에 위치한 사소장 목장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이생촌(제주시 해안동(海安洞))에서 말을 갈아 타고 제주성 서문으로 돌아왔다.

이원조는 관아인 관덕정 망경루에서 한라산을 보았을 때는 산이 낮고 작아보였는데, 사라봉에 오르면서 바라보니 점점 높게 보이더라고 했다. 마치 공문(孔門)의 도(道)와 학문을 탐구하면 할수록 우뚝하게 우러르게 드러남과 같음을 느껴, 원래 제주에 올 때 한라산에 오르려 안했지만, 이 사라봉등산에서 마음을 바꿔 한라산에 오르려 자연 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주에 부임하여 날마다 망경루에서 지내면서 앞에 대하는 한라산이 책상에 있어 그리 높고 험준하지 않아 업신여겨 즐길만 하였다. 나중에 낙조(落照)를 보려고 사라봉(紗羅峰)에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그 뒤 얼마 안 되어 내가 사라봉에 더 올라갈수록 한라산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었다. 유가(儒家)를 우러르고 깊이 탐구하면 탁월함이 나타남을 참으로 보게됨과 비슷하였다… 원래 탐라바다를 건너 올 때는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리하여 저절로 계획하게 되었다.

余莅此州日寢處望京樓上 前對擎山 在几案間不甚高峻 可狎而玩也 已而觀落照登紗羅峰 怪其我愈登而彼愈高 有似乎孔門之鑽仰 眞見卓爾之立 … 既渡耽羅海 不見漢擎山 是自劃也

3-6. 최익현과 김희정의 한라산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조선조 말기의 애국지사로서 본관은 경주, 자는 찬겸, 호는 면암이다. 경기도 포천 출신이며 최대(崔岱)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실정을 탄핵하여 그를 실각하게 하고, 자신은 제주로 유배되어 1년 4개월여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그러나 본토 친지들과의 서신왕래, 제주지리에 익숙할 정도로 나들이가 가능해 그의 유배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배기간 동안 최익현은 제주문사(濟州文士)들과도 교류했으며, 특히 김희정(金羲正)과는 사제관계를 맺기도 했다. 1875년 유배에서 방면되자 한라산을 등람했다. 1875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이루어진 한라산 등산기록인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가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한라산 백록담에는 그의 제명(題銘)이 있다.

김희정(金羲正, 1844~1925)은 조선말기 제주출신 유학자이며, 자는 우경, 호는 해은, 본관은 김해이다.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학식이 많고 시를 잘 지었으며 참봉벼슬을 거쳤다. 1873년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최익현의 적소(講所)에 자주 왕래하기도 하였다. 1895년 봄 단오날부터 3일간 이루어진 한라산 등람기록인 한라산기「漢拏山記」가 그의 문집 해은문집『海隱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최익현(崔益鉉)은 제주에 유배온 후 한라산을 오르려고 싶어 갈망하다가 유배에서 방면되자 제주선비 이기온(李基璫)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동행자 10여명과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성 남문을 출발하여 방선문 계곡을 지나 죽성촌에 이르러 1박을 하고 탐라계곡과 개미목, 삼각봉 동쪽을 거쳐 정상에 이르렀다. 백록담에서 주변 경관을 둘러본 뒤 동쪽 석벽을 돌아 내려온 뒤 화구벽 남쪽 밑에서 노숙을 한 후 다음날 서쪽 등람로인 영실의 천불봉을 거쳐 하산하였다.

김희정(金羲正)은 이기용, 김희선, 김진호 등과 함께 고향인 조천에서 출발하여 궤평촌을 지나 단애봉(절물오름)의 절물에서 점심을 먹고 한라산 동쪽 등람로를 따라 올랐다. 조천읍 교래리 지경인 도리석실에서 1박하고 구상나무숲을 지나 방아오름 근처로 추정되는 '통궤' 석실에서 식사를 한 후, 남벽을 올라 백록담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서 제주섬 주변 섬들을 굽어본 후 한라산 북쪽 개미목 주변에서 다시 노숙을 한 후 산허리를 돌아서 올라왔던 동쪽 등람로로 하산하였다. 최익현은 제주에서의 유배기간 중 한라산이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으나 구경한 사람이 아주 적다는 주변의 이야기와 삼신산이라서 사람이 쉽게 유람할 수 없다는 말에 놀라고 있던 중, 1875년 특별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자 제주유생 이기온(李基璫)과 함께 드디어 꿈에 그려왔던 한라산을 올라가게 된다.

여러 읍지(邑誌)를 거쳐 상고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라산은 명승으로 천하에 알려졌는데, 구경한 사람이 아주 적으니 어찌 능히 오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오르려 하지 않는 것인가? ... 마침 특사(特赦)의 은혜로 풀려난지라 드디어 한라산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정확한 계획을 하였다.

漢拏名勝 聞於天下 而考諸邑誌 聽於人語 觀者甚鮮 豈不能歟 抑不爲歟 … 適以特恩出
棘 遂定尋眞計

김희정은 제주출신으로서 유배 온 최익현과 왕래하며 학문과 문학을 교류했던 인물이다. 1875년 면암 최익현이 귀양에서 풀려나 한라산을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행 하지 못함을 깊이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한라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1895년 병든 몸을 이끌고라도 한라산을 오르려는 마음을 먹고 산행에 나서고 있다.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는 머물던 안개가 걷히고 백록담의 장관이 깨끗하게 보여 마음이 황홀해지고, 신선이 나타났다가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한라산 산행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호남에서는 월출산을 보았고, 충청도에서는 계룡산을 보았고, 서울에서는 남산과 삼각산을 보았으며, 또 영남에서는 지리산을 보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아직 한라산을 오르지 못하였다. … 지난 올해년 봄에 면암선생이 관용을 입고 돌아가게 되어, 갑자기 오르게 되었는데 알이 있어서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오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지금의 기회를 버리고 유람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와 앓은뱅이가 되었을 때 텅 빈 방을 지키는 꼴이 될까 걱정 되었다.



是以嘗北遊於湖南見月出,於湖北見鷄龍 於上都見終南三角 又於嶺南見智異 而尚未登漢拏 … 在乙亥春 勉菴先生蒙宥 而返,不時登臨,有事未從 自是以來 欲往而未能 不止一再 … 捨今不遊 恐爲覽者之守空堂

최익현은 “백록담에 올라 분화구 북쪽으로 1리쯤 떨어진 곳에 이른바 혈망봉과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고 하였지만, 해가 기울어 틈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遊漢拏山記』: “向北里餘 謂有穴望峰 及前人刻名 而日仄未暇”). 그리고 백록담 북쪽 분화구내에는 각을 새긴 연도도 없이 그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최익현이 아쉬움을 보인 옛 사람의 각명들이 있다고 하는 곳은 백록담 동측내벽 일대이며 북동측 내벽 최익현의 마애각과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땅인 영주(瀛洲)의 산으로 불려 왔다. 이러한 인식은 한라산에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선유의식(仙遊意識)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 유산자 중 최익현(崔益鉉)은 한라산을 큰 바다 가운데 있는 ‘지주(砥柱)’라고 표현했다. 또한 한라산은 바닷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외방 도적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곳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3-7. 유산자들의 백록담 인식

백록담은 그야말로 신비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오늘날까지도 백록담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른다고 말할 정도이다. 이러한 백록담은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인물들이 쓴 시(詩)의 핵심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라산이 절해고도에 위치한 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도 수많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한라산을 동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이 있어 더욱 신비스러운 산이요, 나아가 신선이 사는 산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또한 흰 사슴을 탄 백록담 노인 이야기나 신선이 먹는 불로초(不老草)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老人星)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라는 인식은 한라산과 백록담을 더욱 신성시 하게 만들었다.

고도가 높아 은하수(雲漢)를 끌어당길 만 하다는 의미의 한라산은 정상부가 평평하여 두무악(頭無岳) 그리고 꼭대기가 둥글어서 원산(圓山)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으며, 정상부에 못이 있어서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한라산은 인간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게끔 하는 것이다. 조관빈, 김치, 김희정, 최익현의 기록은 한라산 백록담에 대한 선유의식(仙遊意識)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유산자들은 백록담의 외형상 모습 뿐만 아니라 신선과 백록을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르면 백록담은 하얀 사슴들이 물을 먹는 곳이요, 맑고 깨끗하여 티끌기가 전혀 없어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백록담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각(山角, 산봉우리)들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백록담은 참으로 천부(天府)의 성곽이었다.

층층이 울창해 사방을 에워쌌고 가운데에 푸르고 맑은 담못이 있어서 깊이 몇 길이나 된다고 하니 여기가 백록담이다. 속세에 전하는 말이 신선이 백록을 타고서 이 못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별안간 어떤 흰사슴이 백록담 가를 따라서 지나갔다. 정말로 기이한 일이다. 그때부터 일기가 아주 맑았다. 바다 빛은 아득히 트여 하늘과 바다가 서로 포용하는 듯해서 드넓은 물가의 언덕이 보이지 않았다.

趙觀彬, 「遊漢拏山記」: “層巒四圍 中有潭綠淨 深可數丈 卽白鹿潭也 俗傳神仙騎白鹿 遊於此潭云 俄而有白鹿 從潭邊過 誠一奇事也 于時天氣澄清 海色莽濶 上下相涵 浩無涯畔”

(정상에서) 세상에서 전하기를 이곳에서 여러 신선들이 하얀 사슴들에게 물을 먹인다 하는데, (백록담이라는) 못이 이름을 얻은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金緻, 「遊漢拏山記」: “諺傳群仙 飲白鹿於此 潭之得名 蓋以此也.”

오래 묵은 안개가 온 하늘에 짝 끼고 어렵듯하여 한 점 티끌도 없으니 정말 별천지였다. 산의 가장 높은 곳이 서봉이라고 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네발로 기어올라, 초연히 정상에 우뚝 섰는데 바람에 흩날리어 끝없이 이어져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랐다. 金義正, 「漢拏山記」: “宿烟盡空 溶溶淡淡 無一點塵埃 眞別天地也 山之最高處 曰西絕 頂 努力攀躋 超然獨立 飄飄浩浩 不知身在何處.”

(백록담이) 맑고 밝으며 깨끗하여 터럭 하나나 티끌끼가 미치지 않아, 자취를 감춘 선인(仙人)들의 씨나 있음직하고, 사방을 에워싼 산봉우리들이 높고 낮음이 다 가지런하니 참으로 天府의 성곽이다.

崔益鉉, 「遊漢拏山記」: “清明潔淨 不涉一毫塵埃氣 隱若有仙人種子 四圍山角 高低等均 直天府城郭.”

윤제홍은 직접 그린 한라산도 「漢拏山圖」에서 백록담 분화구 내에 백록을 탄 신선을 그려 놓았는가 하면 백록담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해가 저물게 되어서 바위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한 신선이 백록을 타고 와서 이곁에서 물을 먹이는데 뒤에는 가을연꽃이 있어 그가 곧 여동반[呂仙]임을 알았고, 이 때문에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尹濟弘, 「漢拏山圖」: “舊有人 值日沒 宿巖間 月下有一仙翁 騎白鹿來 飲于此旁 後有秋蓮 知其爲呂仙 由是名白鹿潭”

반면, 이원조는 백록담의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었음을 백록담의 지형과 백두산天池 그리고 태백산의 황지 등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물이 있다는 것은天性이 아니다. 지극히 높은 곳인데도 움푹 패어 있으니,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뿌리를 이루는 오묘함이다. 움푹 패어 있으므로 물을 기대하지 않아도 물이 저절로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백두산의天池나 태백산의潢池가 모두 이런 부류이다. 다만 이 백록담에서만 신선의 괴이한 설로써 꾸며대는 것이 심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정(大靜)의 산방산은 이곳에서 도려져 나가 드디어 웅덩이에서 못이 되었다” 고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李源祚, 「遊漢拏山記」: “山頂有水非性也 而極高則凹 此陰陽之根之妙也 凹則不期水而自水 故白頭之天地 太白之潢池 皆是也 獨於是潭 必文之以仙怪之說甚 或曰 大靜之山房 挑出於此 遂窪而爲潭 不亦異歟.”

○ 혈망봉(穴望峰)

혈망봉(穴望峰)은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한다. 즉, 이것을 한라산의 최고봉이라는 주장도 있다. 백두산의 장군봉, 설악산의 대청봉, 지리산의 천왕봉처럼 한라산의 최고봉은 바로 혈망봉이 된다는 것이다. 혈망봉이라는 명칭은 김치의 유한라산기 『遊漢拏山記』에 처음 등장하며, 이원조의 탐라지 『耽羅誌』 형승(形勝)조에는 혈망봉은 백록담 남쪽 변두리에 있으며 봉우리에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 사방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여 혈망봉이 분화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 최고지점 일대를 뜻하는 봉우리임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에도 한라산 정상부에 백록담과 함께 혈망봉이 표시되어 있다.

혈망봉에 대해서는 한라산 유산기에서도 백록담에서의 자연경관적 요소로 나타나는데 김치와 조관빈의 기록에서 그 형상과 이름을 지은 유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한낮에 비로소 산꼭대기 위에 도착하여, 혈망봉을 마주하여 앉았다. 봉우리에 하나의 구멍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金緻, 「遊漢拏山記」: “日午始到絶頂之上 坐對穴望峯 峯有一竅 可以通望故名焉.”

이윽고 정상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앞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하길 ‘이것이 바로 혈망봉입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그걸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한다.

趙觀彬, 「遊漢拏山記」: “及到絶頂 從者指前峰曰 此是穴望峰 峰有竅可通望 故名焉.”



〈大東輿地圖〉에 나타난 한라산과 혈망봉

○ 자연생태

한라산은 약 2,000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식생의 보고(寶庫)'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백록담 일대의 식생은 구상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시로미 등 고산생태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한라산을 등람했던 제주목사와 대정현감 그리고 유학자들이 남긴 유산기와 다양한 시문(詩文) 속에도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원조는 동청, 금령, 화등가, 여점실 등은 육지에서도 희귀한 품목이라고 하고 있으며, 참대와 영주실, 향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했다. 여기서 참대는 제주조릿대를 의미한다. 영실기암 절벽의 식생에 대해서도 관찰력이 뛰어나고 섬세하다.

온 땅에 참대가 가득 차 있었다. 뽀뽀하기가 방석과 같았고, 가녀리기가 잔디와 같아 앉아서 깔개로 삼을 수 있었다. 어떤 향내 나는 이파리는 작지만 줄기를 뺏아서 땅을 덮으며 바위를 얼어매고 있었는데, 열매가 검고 달았다. 영주실이라고 불렀다. 이파리를 달이어서 차로 마신다. 맛이 심히 맵도록 시리다. … (영실기암)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강직하게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는데 위는 말라있고 아래는 푸르다. 겨울과 봄에는 눈에 짓눌려 생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키가 1척이 안 되어 보였다. 가지가 많아 땅을 덮고 있으므로 마치 털방석과 같았다. 삼사월에 꽃이 만약 피게 되면, 온 산이 비단 무늬에 바둑돌을 놓은 듯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족히 사람의 눈에 속 들어온다.

李源祚, 「遊漢拏山記」: “滿地苦竹密如席 嫩如莎可坐而藉 有香葉小而蔓布地絡石 實黑甜名瀛州實 煎葉爲茶味甚冽 … 崖壁被香木 飢饉偃屈 上枯下青 冬春爲雪所壓 生氣不敷 其間多躑躅 長不尺許而 多枝布地如方氈 三四月花如開 遍山如錦紋 碁子眩攝綺麗 足以媚人眼.”



○ 노인성(老人星)과 방암

제주도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이가 많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노인성을 노성 또는 수성이라고 하며 서귀진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이원조 목사는 1841년 가을에 자신이 직접 관측한 것을 토대로 남남동쪽에서 떠서 남남서쪽으로 지는데 고도가 지면에서 21° 정도의 높이에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심연원과 이지함이 노인성을 보았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세종때는 역관 윤사옹을 파견하여 한라산에서 관측하게 했으나 구름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한다.

노인성은 봄과 가을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볼 수 있었던 별이요, 장수(長壽)의 상징이었다. 그리하여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성에 대해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 중종조(1506~1544)까지 도교적 성격의 노인성제(老人星祭)가 행해졌다. 이것은 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조선 태종대까지만 해도 매해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제사를 지냈다. 희생(犧牲)은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올렸으나 제사 후 소격전(昭格殿)에서 기르도록 했다고 한다. 노인성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던 임제는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노인성을 보고자 했을 것이다. 충암 김정도 「제주풍토록」에서 노인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윤제홍의 그림에도 기록되고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드넓은 바다이다.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 내려다보인다. 노인성(老人星)은 크기가 밝은 별과 같은데 하늘 남극의 축에 있다. 지상에 나타나지 않으나 나타나면 인수(仁壽)의 상서로움이다. 오직 다만 한라산과 중국 중원의 남악에 올라가야만 이 별을 볼 수 있다.

金淨, 「濟州風土錄」: “登漢拏絕頂 四顧滄溟 俯觀南極老人 (老人星 大如明星 在天南極之軸 不出地上 若現則仁壽之祥 唯登漢拏及中原南嶽 則可見此星).”

老人星이 대정읍 병(丙)방에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정(丁)방으로 사라졌다. 크기가 마치 사람 얼굴 만 하다. 그래서 수명을 보는 壽觀峯이라 말한다.

尹濟弘, 「漢拏山圖」: “見老人星現於大靜邑丙 沒於丁方 大如人面 故曰 壽觀峯.”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16세기~19세기에 작성된 한라산 유산기록들에는 공통적으로 한라산 동서남북 등람로와 등람여정 그리고 한라산 정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주변에 존재하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한라산의 자연환경과 제주도의 사회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라산 유산기에는 당시 한라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경관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백록담과 혈망봉, 그리고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 지질 및 기후특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역사문화경관 요소로는 제주 삼읍의 배치모습, 노인성과 방암, 불교유적인 존자암과 수행굴, 두타사 그리고 숙박제공과 산길안내에 동원되었던 승려, 한라산신제와 기우제, 칠성대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도 제주도 민들이 한라산을 다양하게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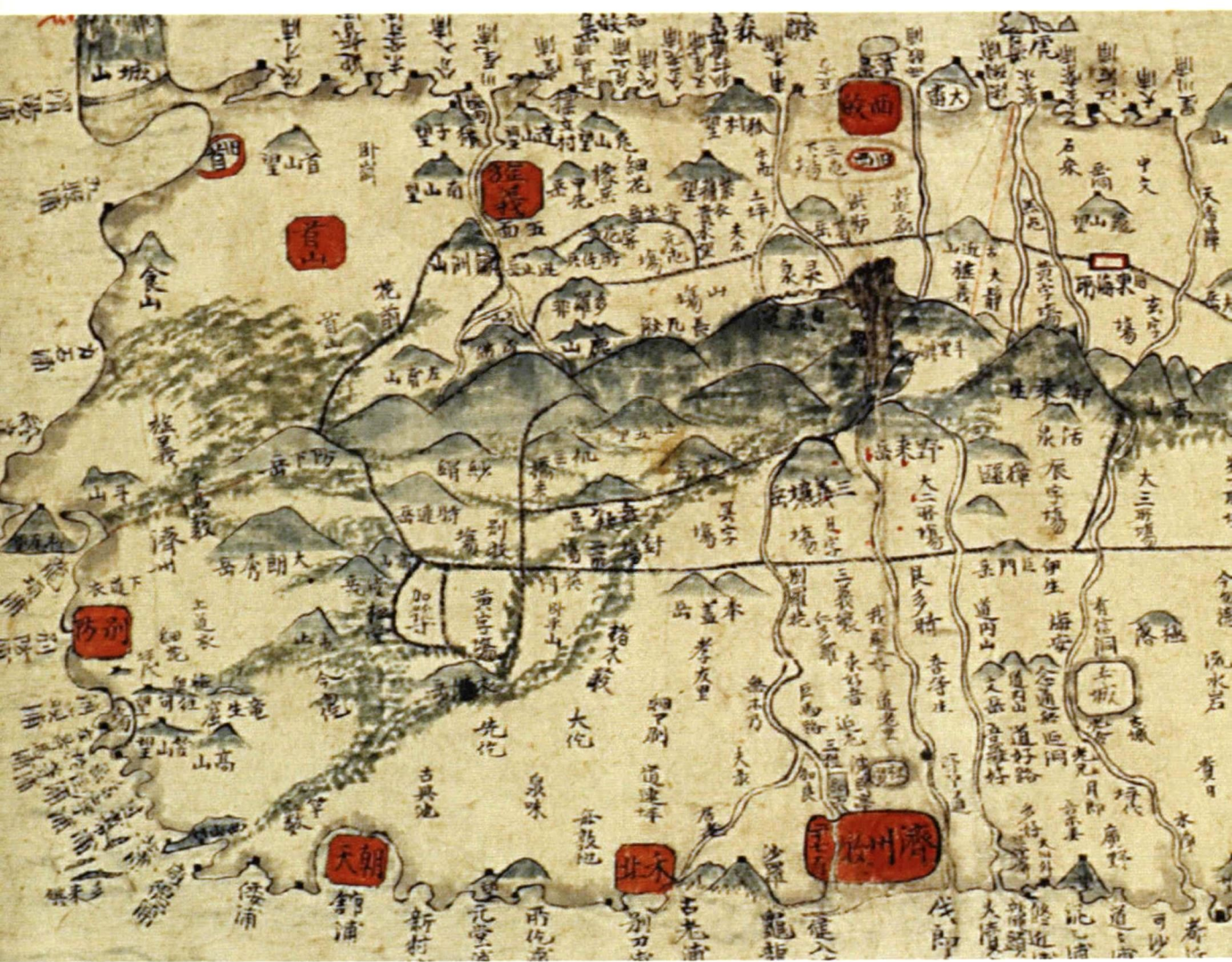
【노인성】

남극성이라고도 하는 canopus로 아르고 자리2성, 용골좌의 2성인데 1등성이다. 위치는 6H24m, 적위(赤緯) $-52^{\circ} 41'$ 이다.

제주도 서귀포쪽에는 오리온과 시리우스 아래 수평선위로 붉게 보이는데 9월초에는 새벽에 12월말에는 12시~3시 반, 1월 말에는 밤10시~11시반, 2월말에는 초저녁 8시~9시, 3월 초에는 초저녁에는 보인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934년(고려태조 17)에 노인성 기록이 보인다.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수평선에서 봄, 가을에 4도 높이로 붉게 크기 보이는데, 고도가 낮으면 공기밀도로 크게 보이는 것인데, 문집에는 쟁반크기 만큼 보인다고 한 곳도 있다. 노인성을 본 사람은 장수한다는 전설때문에 제주도가 신선이 사는 곳으로 전해졌고, 맑은 날 한라산에서 잘보이기 때문에 한라산이 영산으로 전해진 것이며 「한라(漢拏)」 이름 자체가 은한(銀漢)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라산에 마애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인 것이다. 이상은 소백산 천문대에서 김익수가 청취한 내용이다. 제주도 기록 문집에 적어 놓았다. 별뜨는 시각이 하루에 4분씩 늦어지므로 한 달에 약 두시간씩 늦어지므로 노인성도 9월에 새벽에 뜨던 것이 12월에는 밤 12시에 뜨게 되고 3월에는 해질 무렵 뜨게 된다.

그리고 노인성의 고도가 높아지는 12월에는 노인성도 오래 뜨면서 1등성 크기로 보일 것이다. <문화원간행>





04
맺음말

예로부터 신선들의 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 온 관료 및 유배인들과 제주인 등에 의해 새겨졌으며, 한라산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 등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라산을 오른 인물들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목민관들의 풍류의식과 알려진 바와 사뭇 다른 유배생활의 이면과 그들의 제영에서 보이는 독특한 찬축의 정서, 그리고 제주의 인물들과 촘촘하게 직조되는 교유관계까지를 고려한다면 마애명이 가지는 제주향토사적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백록담, 탐라계곡 일원에서 마애명 현황조사 및 탁본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한라산 등산로의 초입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지정 명승인 제주시 방선문 계곡 일대에서도 마애명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주요 조사지를 3구역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즉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백록담 및 탐라계곡, 국가지정 명승인 방선문계곡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라산내에 분포하는 마애석각 즉 마애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마애명의 시대적 구분은 조선시대 부터 근현대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현지조사를 포함하여 탁본작업 및 사진촬영, 글자서체 및 글자크기 등을 조사하였고, 방선문계곡 일원에서는 현황조사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100건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도에는 백록담 내에서 30건, 탐라계곡에서 4건, 방선문계곡에서 64건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도에 방선문계곡 일원에서 추가로 2건을 조사하였다. 탁본작업은 2013년도에 백록담 및 탐라계곡에서 조사한 마애명지 35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방선문계곡 일원의 마애명은 여건상 탁본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향후 탁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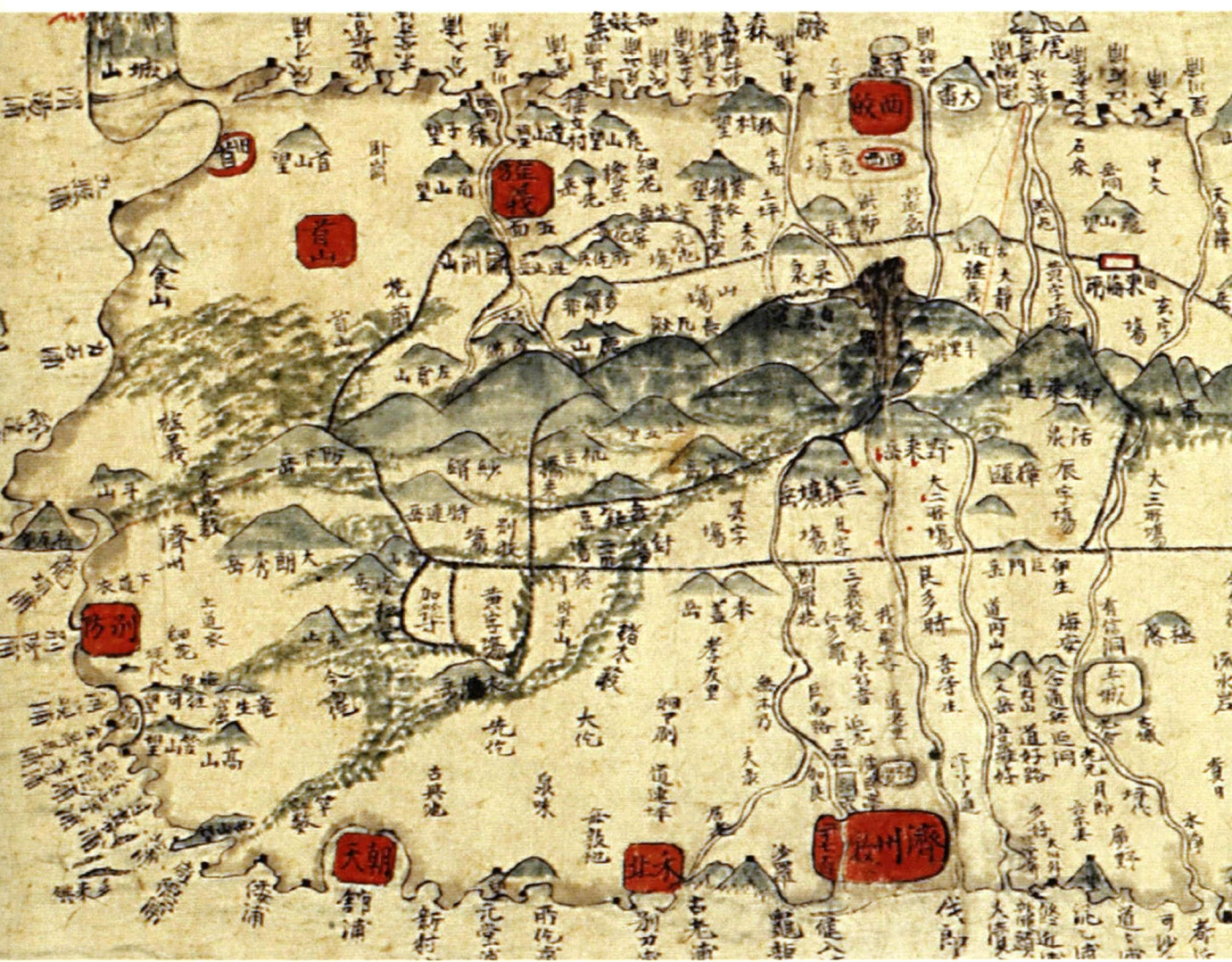
마애명은 자연암석에 모두 한자로 음각되었으며, 대부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으나 간혹 가로쓰기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문번역 및 판독작업을 2013년도에 병행하였으며, 한자 원문은 우상에서 우하, 좌상에서 좌하순으로 판독하였다. 인물판독에 있어서는 우측의 인물을 선두로 좌측의 인물들을 동행인으로 판독하였다. 백록담 및 탐라계곡의 마애명은 탁본과 사진을 병행하여 제시하였고, 방선문의 마애명은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한자 원문의 표시는 새겨진 각자대로 세로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어법에 맞게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시대분포는 16세기초 유배인 김정희의 마애명부터 1960년대 제주도지사 정우식까지 조선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조선후기에 새겨진 마애명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한라산연구소에서 실시한 한라산의 인문학과 역사지리학적 접근으로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한라산 조사연구의 범위를 자연자원 조사에서 역사문화유적 조사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마애명 조사를 기초로 향후 제주도 금석문 연구에도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해 본다.

특히 본 조사를 통해 한라산 마애명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한라산이 소중한 우리나라의 유산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부록
색인

| 참고문헌 |

1. 사료

- 『世宗實錄』〈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金淨, 「濟州風土錄」, 『冲菴先生集』
金緻, 「遊漢拏山記」, 『南槎日錄』(李增), 『耽羅志草本』(李源祚)
金義正, 「漢拏山記」, 『海隱先生文集』
尹濟弘, 「漢拏山圖」, 『學山九九翁』
李源祚, 「遊漢拏山記」, 『耽羅錄』
李瀾, 『艮翁遺稿』
趙觀彬, 「遊漢拏山記」, 『梅軒集』
崔益鉉, 「遊漢拏山記」, 『勉庵先生文集』

2. 연구논저 단행본

- 강문규 외 공저, 『화산섬, 제주세계자연유산 그 가치를 빛낸 선각자들』,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2009.
강문규,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2006.
강시영 외 공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10.
강정효, 「나의 한라산 이야기」, 제민일보, 2013.
강정효 외 공저, 『한라산의 동반·개발사』, 한라산총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강정효, 『한라산』, 돌베개, 2003.
강태진 외 공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06.
고성훈, 「1601년 제주도 역모사건의 추이와 성격」, 『史學研究』 제96호, 한국사학회, 2009.
고윤정,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와 등람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고윤정, 「한라산의 마에명(磨崖銘)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13.

- 고정균 외 공저, 「한라산의 자연자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8.
- 고정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훼손 및 복구현황」,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2006.
- 김두봉, 『濟州島實記』, 제주문화, 2005.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도관광협회·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 김은지, 「학산 윤재홍의 회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인기,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김일우 외 공저, 『한라산의 역사·유적』, 한라산총서,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 金榮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 金榮洽 編著, 『20世紀 濟州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0.
- 김희정 저, 백규상 번역, 「김희정의 한라산기(漢拏山記)」, 『제주발전포럼』 제41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 오문복 외 공저, 『제주도 마애명』,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2000.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李榮培, 「濟州地方의 磨崖石刻에 對한 小考」, 調查研究報告書 第4輯,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0.
- 이원조 저, 김찬흡 외 편역, 『耽羅誌草本(상) 춘·하』, 제주교육박물관, 2007.
- 이원진 저, 김찬흡 외 편역, 『역주耽羅志』, 푸른역사, 2002.
- 임제 외 저, 김봉옥 역, 『옛사람들의 登漢拏山記』, 제주문화원, 2000.
- 정광중 외, 『한라산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제주교육대학교논문집』 제33집, 제주교육대학교, 2004.
- 정광중 외 공저, 『한라산의 인문지리』, 한라산총서 제4권,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 제주도, 『濟州의 文化財』, 태화인쇄, 1998.
- 제주도, 『韓國의 靈山, 漢拏山』,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4.
-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濟州史年表 -古代~日帝時代』, 濟州道, 2005.
- 제주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목사료집 제1책, 제주시,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일보, 1999.

| 부 록 |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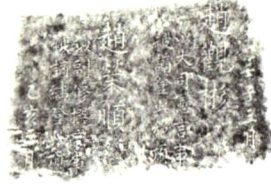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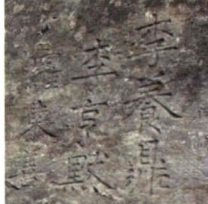
구 분	원 문	탁 본	사 진
<p>목사 박장복</p>	<p>牧使 朴長復 乙未 八月 十一日</p>		
<p>양세술</p>	<p>梁世述 辛卯</p>		
<p>엄제 일행</p>	<p>嚴濟 任斗材 嚴思晚 李命啓 韓濟億 南履觀 尹濟商 丁載游 癸卯 九月 日</p>		
<p>엄선</p>	<p>嚴璿 任百敏 李遠啓</p>		
<p>남익상 일행</p>	<p>南益祥 南峴 戊子四月</p>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유석효 일행	劉錫孝 金重運 二客從 愼基慶 戊子初夏登		
목사 조희순	趙義純		
양당	梁塘		
심낙수	恩坡退士 沈樂洙 以巡撫御史來過 甲寅春		

| 부 록 |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 분	원 문	탁 본	사 진
남수	南涑		
정이환	<p>東西南北海 撐挿一峯浮 獨立乾坤大 居然最上頭 鄭履煥 身之 丁亥四月日 題白鹿頂</p>		
조관빈 과 조영순	<p>壬子三月 趙觀彬 以大司憲言事 被謫登此絕頂 趙榮順 以副修撰言事 被謫 繼登此項 乙亥三月</p>		
조정철	<p>趙貞□丁酉以前□□ 被謫庚戌□□趙貞□ 辛未以防□使□登絕□</p>		
목사 이양정 일행	<p>李養鼎 李亨默 羅東善</p>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황덕빈 일행	黃德彬 沈恒之 梁埴		
목사 조우석 일행	牧使 趙禹錫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義經 判官 申義恒 李寅和 金秀男 劉永勳 文命新 丁酉 五月 日		
이경로	李景老		
신호인	申豪仁 丁亥四		
김희 일행	金會 朴萬淳 洪大成		

| 부 록 |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p>김종보 일행</p>	<p>(金載俞 丁八日) 金鍾輔 夫士簡 李膺良 洪 範植 張文明 辛未</p>		
<p>임관주</p>	<p>茫茫滄海濶 一拳漢拏浮 白鹿仙人待 今登上上頭 丁亥 秋 任觀周</p>		
<p>홍구서</p>	<p>洪九瑞</p>		
<p>윤식 일행</p>	<p>尹植 尹權 權德行 成永夏 朴璠 孟仁行 洪重健</p>		

1. 백록담 동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윤명훈 일행	尹命勳 尹基 乙丑 五月 尹命兼		
목사 조위진 일행	戊寅 二月 十七 登此 新伯 趙威鎮 舊伯 李潤成		

2. 백록담 북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김정	金淨		
이익	李溲		

| 부 록 |

2. 백록담 북벽 마애명

구 분	원 문	탁 본	사 진
최익현	崔益鉉		
정우식 일행	大漢拏 / 登山記念 / 濟州道知事 鄭雨湜 副知事 姜成俊 / 總務局長 金漢駿 産業局長 元東鉉 警察局長 朴用詮 濟州市長 姜泰植 北濟州郡守 金泰秦 南濟州郡守 權東胄	 	
김세완	大法官 金世玩 乙未 六月 十一		

2. 백록담 북벽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민복기	漢拏靈峯探勝 檀紀 四二八八年 八月 十三日 海務廳長 閔復基		
손경오 일행	丙戌 孫京吳 梁元廈 孫才善 金善浩 孫炳鉉 趙君夏 姜奉秀 安大宜 孫武鉉 安宗根 高斗日 趙南俊 趙在建		
김규환	金圭煥		

3. 탐라계곡 마애명

구분	원문	탁본	사진
은선동	隱仙洞		

| 부 록 |

3. 탐라계곡 마애명

구 분	원 문	탁 본	사 진
목사 조우석 일행	牧使 趙禹錫 判官 申義恒 幕賓 趙禧錫 咸永述 朴裕源 趙義經 金秀男 卞恒遠 劉 永勳 李明秀 金菊逸 笙 文命新 琴 金致元 丁酉 九月 日		
	최치경 居士 崔致敬		
장한규 일행	張漢奎 朴致順 金昌彦 崔濟斗 洪鍾河 高昌珉 林聖潤		

4.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p>목사 심원택 일행</p>	<p>牧使 沈遠澤 軍官 朴永漢 沈相俊 朴章浩 丁亥 四月 二十日 又西 沈樂中</p>	
<p>임귀춘 일행</p>	<p>林貴春 丁志升 南得遠</p>	
<p>관관 이의겸</p>	<p>浦口吞紅日 山肩荷白雲 清遊宜此夕 携酒且論文 判官 李義謙 戊子四月初一日</p>	
<p>박종민</p>	<p>朴宗珉 乙亥巳月</p>	
<p>최운숙 일행</p>	<p>審藥 張鳳徵 倭學 劉廷禧 / 崔雲翻 金時鎮 韓樂增 金載西 / 鄭致福 / 丁卯初夏 韓百增與舍弟同來此 / 韓衡鎮 / 洪明瑞</p>	

| 부 록 |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p>목사 안경운 일행</p>	<p>防禦使 安慶運 子 致範</p>	
<p>목사 김몽규 일행</p>	<p>瀛洲伯 金夢燧 子 肅基 郁基 軍官 辛一東 鄭彥佐 金得基 鄭東羽 崔倬 李宗芳 洪愼健 審藥 李禧大 甲戌 首夏</p>	
<p>박창봉</p>	<p>判官 朴昌鳳 甲戌初夏</p>	
<p>김봉길 일행</p>	<p>金鳳吉 成漢宗 崔命祚 金正鉉</p>	
<p>목사 박성협 일행</p>	<p>耽羅伯 朴聖浹 軍官 朴聖漢 趙益祥 李聖儒 姜遇周 金載赫 韓相五 審藥 梁慶柔 甲午初夏 十月 過此</p>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p>목사 한정운</p>	<p>次壁上韻 亂石沉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祇空來 韓鼎運</p>	
<p>고평호</p>	<p>丁酉四一 道連私塾 代表 高平鎬</p>	
<p>목사 홍중징</p>	<p>登瀛丘 石竇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 洪重徵題 己未首夏</p>	
<p>이명준</p>	<p>李命俊</p>	
<p>홍태두 일행</p>	<p>乙亥初夏 防禦使 洪泰斗 軍官 李閔樞 崔濬文 判官 安世潤</p>	

| 부 록 |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p>윤구연 일행</p>	<p>瀛州伯尹九淵 軍官 閔震 柳敏章 梁泰重 柳獻徵 張紀龍</p>	
<p>윤부연 일행</p>	<p>湖西過客 尹溥淵 李有實 壬申 孟春 漢陽過客 丁天樞</p>	
<p>박진문 일행</p>	<p>朴振文 權燮 洪九瑞 朴萬和 安根</p>	
<p>판관 강인호</p>	<p>判官 康仁鎬</p>	
<p>목사 송구호 일행</p>	<p>牧使 宋龜浩 子榮稷 冊室 宋鐘奭 軍官 宋元浩 尹斗成 皮秉奎 中房 李仁典 己丑 四月 日</p>	

4. 방선문 북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	----	----

임태유
 壁間纔一路 自作石門開
 騎鹿遊仙去 我行覺後來
 乙酉 暮春 任泰瑜



최익현
 일행
 叅判 崔益鉉 李基璠 來 乙亥



오창두
 吳昌斗



홍평규
 일행
 洪平圭
 鄭東源



| 부 록 |

5. 방선문 굴내부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방선문	訪仙門	
윤득규 일행	府伯 尹得遠 子 翎東 從子 養東 冊室 玄鎮澤 金桓 軍官 金述曾 尹得敷 姜文一 丙午四月	
김형수	斲石非神斧 渾淪肇判開 白雲千萬歲 仙俗幾多來 乙酉 春 金衡秀	
목사 박선양 일행	朴寅陽 稼樊 耽羅命吏 朴善陽 弟 五衛將 泰陽 子 勝台 勝斗 軍官 族 金□□ 宗□ 五衛將 朴來敏 判官 金東杓 本州進士 金亮洙 書 中房 金仁宅 李昌基 壬午三月 日	

5. 방선문 골내부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p>목사 홍규 일행</p>	<p>牧使 洪圭 軍官 申鶴熙 李教晚 尹泳毅 乙酉 / 東帆 洪淳</p>	
<p>목사 조희순</p>	<p>線通花徑轉 斧鑿石門開 已透參同秘 休嫌俗子來 己巳 四月 吉日 牧使 趙義純</p>	
<p>목사 강면규 일행</p>	<p>牧使 姜冕奎 堂侄 鎬 軍官 李始愚 李啓奕 庚申 閏三月 晦日 題</p>	
<p>목사 목인배 일행</p>	<p>牧使 睦仁培 子 裕錫 甲寅 四月 日</p>	
<p>판관 고경준</p>	<p>判官 高景峻</p>	

| 부 록 |

5. 방선문 굴내부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고기하	州出身 高祈河 壬午 春	
김수석 일행	金洙錫 金沂鍾	
서동원	徐東源	
참관 한학수 일행	參判 韓學洙 韓翊相 戊申 端午	
권세공 일행	權世恭 己未 首夏 申德涵 金壽鳳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p>관관 정동리 일행</p>	<p>歲 丁未 八月初吉日 識 金時鎮 閔廷楫 散人 許運 判官 鄭東里 (雙溪石門) 巖開大禹斧 月老女媧天</p>	
<p>윤진오</p>	<p>尹進五</p>	
<p>김영수</p>	<p>喚仙臺 別壑乾坤大 石門日月閑 莫云無特地 眞箇有神山 花老已春色 岩蒼太古顏 憂然鳴鶴至 知是在仙間 己亥 春 金永綬 子樂園</p>	
<p>박종오</p>	<p>朴宗五</p>	
<p>목사 이원조 일행</p>	<p>李源祚 子 鼎相 奉硯 安命岳 丁義成 李潞夏</p>	

| 부 록 |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목사 김윤	牧使 金潤 甲子 首夏	
황규현	黃奎鉉 金澈	
박래언 일행	朴來彦 金教顯 金東轍 三同甲辰	
한창유	入洞山如揖 瀛丘我亦仙 嵌空危欲墜 玉斧鑿何年 玉溪逍遙生 韓昌裕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p>목사 이현택 일행</p>	<p>牧伯 李顯宅 判官 孫應虎 旌義 盧尙熙 軍官 金漢恂 權啓東 韓永履 李顯謨 侄 義達 韓永履 李顯謨</p>	
<p>목사 이재호 일행</p>	<p>瀛伯 李在護 弟 參奉 在國</p>	
<p>박민현 일행</p>	<p>同遊 平壤後人 朴敏賢 賢成 丙午 居 清州 韓山後人 李禎協 興南 癸酉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志 仲高 丁卯 居 京 岑城後人 李紱 德□ 戊辰 居 保寧 高靈後人 申善煜 清霜 戊辰 居 潭陽 韓山後人 李榮協 馨南 己巳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華 仲輝 □□ 居 京 高靈後人 申汙 仲深 辛未 居 淳昌 韓山後人 李明協 光南 辛未 居 雲峰 隋城後人 白尙燁 仲明 癸酉 居 京 辛卯 仲春 書以識之</p>	
<p>이노영 일행</p>	<p>李魯榮 李甲鉉 丙子</p>	
<p>이재관 일행</p>	<p>李在寬 李永俊</p>	

| 부 록 |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판관 이필술 일행	李必述 子斗南 金在浩 康綖 洪良燮 李尙□ □□□ 松□姜□ 松(林) 金□□ 松□ 洪□□ 乙酉□□	
윤상화	謫客 尹相和 甲申 五月 日	
목사 정관휘	牧使 鄭觀輝	
양응상	水從瀛海放 門對漢山開 仙去留花石 令人幾訪來 梁應祥	
목사 홍종우	洪鍾宇 光武 甲辰 五月 日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분	원문	사진
남만리 일행	南萬里 郡守 洪友淳 甲辰	
김중운 일행	風詠錄 金鍾運 朴章鉉 玄商休 金性久 金應璜 俞晟煥 文斗燦 朴景亮 洪淳坤 文圭三 金謙集 梁昊元 梁錫圭 姜宗杓 金泰河 愼奎錫 金寅錫 金履珩 姜錫祚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閏五月 初五日 辛巳 春 金永權 洪義杓 改修	
영초	洞穴螺旋入 溪流燕尾分 仙人難可見 萬古鎖烟雲 瀛樵	
강옥빈 일행	搜雲契 姜郁彬 韓禎裕 愼哉揆 金庸圭 金炳鎬 金啓柄 姜斗勳 姜遇伯 吳圭瀛 李能白 金鍊百 李源弼 文斗南 姜師鎬 朴南岳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閏五月 初五日	

| 부 록 |

6. 방선문 남면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p>목사 知州 沈賢澤 심현택 開國 四百九十三年 甲申 朴箕壽</p>		
<p>이정섭 泰仁 李定燮 癸酉 秋</p>		
<p>양인보 梁仁保 일행 高仁峻 吳戊吉</p>		

7. 방선문 남면 상류 마애명

구 분	원 문	사 진
<p>우선대 遇仙臺</p>		
<p>이근복 李根福 淡□危□□ □山□□開 神仙何處在 臺靜白雲來</p>		

㉑

강면규	136
강우백	169
강옥빈	169
강인호	122
강정	161
고경준	134, 139
고기하	140
고평호	112
공신정	165
군관	123, 133
권섭	121
권세공	141
김계병	169
김규환	79
김몽규	106
김봉길	108
김세완	74
김수석	141
김양수	133, 149
김윤	152, 155
김재유	51
김재호	161
김정	62, 180, 181
김종보	51
김종운	167
김중은	29
김진호	189

김창언	91
김철	153
김치	180, 183
김치원	45
김형수	132
김희	49
김희선	189
김희정	180, 189

㉒

나리포창	105
남만리	166
남수	33
남익상	29
남현	27
노인성	196, 197

㉓

대사간	37
도련사숙	112
동벽	23
들령기	145, 146
등영구	146

㉔

마애각석	10
------	----

| 색 인 |

마애명	10	부수찬	37
망경루	165	북벽	61
맹인행	57		
목인배	138	㉞	
민복기	77		
		산방산	53
㉝		선유의식	192
박래언	154	성영하	57
박만화	121	손경오	78
박민현	158	송구호	122
박선양	133	송원호	123
박성한	109	수운계	169
박성협	109	순무어사	33
박영한	98	신기경	29
박장복	24	신덕함	141
박장호	98	신호인	48
박종민	102	심낙수	32
박종오	149	심탁중	98
박진문	121	심약	103
박창봉	107	심원택	98
박천형	42	심항지	43
박치순	91	심현택	139, 170
박휴	57	쌍계석문	145
방선문	93, 96, 130, 146	㉟	
방암	196		
방어사	117	안경운	99
백록담	15, 180, 192	안근	121
부사간	51	안덕계곡	53

안명악	151	은선동	87
양당	31	의운	114
양세술	25	이갑현	159
양응상	164	이경로	47
양인보	172	이근복	177
양훈	43	이기온	125
엄사만	27	이기용	189
엄선	27	이노영	159
엄제	27	이로하	151
연상루	111	이명계	27
영주산	183	이명준	115
영초	168	이양정	42
오위장	133	이영준	160
오창두	126	이원계	27
왜학	103	이원조	150, 180, 188, 193
용운	114	이윤성	57
우선대	176	이용량	51
운주당	156	이의겸	101
유산기	180	이익	64, 180, 182
유석효	29	이재관	160
윤구연	119	이재호	157
윤권	57	이정섭	171
윤득규	131	이필술	161
윤명훈	57	이현택	156
윤부연	120	이형묵	42
윤상화	162	이형진	188
윤식	57	임관주	52
윤계홍	38, 96, 186, 193	임태유	124
윤진오	147		

| 색 인 |

㉞

장령	163
장문명	51
장봉징	103
장한규	91
전최	137
정관휘	163
정동리	144
정동원	126
정은	73
정우식	73
정의성	151
정이환	34
정치복	103
조관빈	37, 180, 185
조영순	37
조우석	45, 88
조위진	57
조정철	37, 41
조태채	37
조희순	30, 135
중방	123, 133

㉟

차운	114
참동비	135
책실	123

천제연	53
최익현	66, 125, 180, 189
최치경	89

㊦

탐라계곡	85
탐라록	151
탐라빈홍록	48
통덕랑	163

㊧

풍영록	167
피병규	123

㊨

한라산	53, 180, 191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79
한라산도	186
한락증	103
한백증	103
한익상	141
한정운	111
한정유	169
한창유	155
한학수	141
혈망봉	194

홍구서	55, 121
홍규	134, 139
홍대성	49
홍명서	103
홍범식	51
홍순목	162
홍우순	166
홍종우	165
홍준	134
홍준건	57
홍중징	113
홍태두	116
홍평규	126
화운	114
환선대	149
황규현	153
황덕빈	43
회현집	20, 38

한라산의 바람이여

한라 산신의 길에 새기다

| 책을 만든 사람들 |

- 기획 · 편집 고정군, 고윤정(한라산연구소)
- 원고집필 고윤정(한라산연구소)
 문창선(제주대 사학과 석사과정수료)
 이진영(제주대 중문과 석사과정수료)
- 감 수 김익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한라산 현장조사
및 탁본작업 고정군, 고윤정, 조병창, 이영돈, 양승훈(이상 한라산연구소)
 전양호(제주산악회)
 문창선, 이진영
- 사진촬영 신용만(사진작가)
 고윤정
- 도움주신분 백종진(제주문화원)
 강정호(사진작가)
 강만익(제주대 사학과 강사)
 김용철(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김나영(제주시 문화예술과)

| 발행처 |

- 발 행 인 양영현(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발 행 일 2014년 2월 (비매품)
-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 주 소 690-8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72(연동) Tel. 064-710-7575, Fax. 064-710-7419
- 제 작 디자인열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구1길 70 Tel. 064-746-0775, Fax. 064-746-0774
- 북디자인 부건영(디자인열림)

발간등록번호 : 79-6500451-000009-01

ISBN : 978-89-958956-3-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